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 137-87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gods@kira.or.kr  
http://www.kira.or.k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55 / March / 2007

#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 0703

### 취임사

위기를 기회로, 재도약하는 협회만들터!

### 칼럼

"A·E·C의 관계정립과 발전방안포럼" 유감

### 시론

건축과 문학 이야기

### 회원작품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남대문시티파크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

글로벌창의유치원 · 어학원

저동주택

### 현상설계

전북대학교 BIC 도서관

건축사\_책을 말하다

표지사진\_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건축사 2007 03

korean architects 455

## 위기를 기회로, 재도약하는 협회 만들 터!

Squeak from Crisis ; Jumping KIRA again!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기까지 많은 사랑과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 해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면을 빌어 협회장이 되기까지 성원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축사를 대표하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건축계가 처한 현실을 볼 때 많은 책임감과 중압감이 앞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 건축계는 그야말로 내, 외적으로 엄청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화라는 커다란 시대적 격랑의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후퇴와 업역의 축소로 시장은 위축되고 이 분야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우리 동료들과 종사자들, 그리고 가족들은 일 자리를 잃고 모두 떠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에 꿈과 희망을 품은 학생들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계속 줄어들고 시장 질서도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부족한 시장의 물량도 진입장벽이 만들어져 이 분야의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자유로운 품질 경쟁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하여 지배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가슴 속에는 절망과 자괴감으로 원망과 분노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 건축계는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리의 것을 잃어만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는 인식보다 외부나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사고가 팽배합니다.

지금 세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자격은 이제 인증된 교육과 수련을 통하여 높은 도덕적 가치와 기준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지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우리도 이제 국제적 수준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건축계가 안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지혜롭고 선진화된 방식으로 풀고 합의해 가겠습니다. 합리적이며 창의적 발상으로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시켜 가겠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제도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 제도,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국제적 수준으로 배출되는 후진들에게는 선진화된 품질 경쟁 방식을 도입하고 업역의 확충과 재정비를 통하여 고용안정과 생활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도 세계화에 부응하여 거듭나는 건축사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화된 건축사법이 마련되어 건전한 시장 풍토

**위기를 기회로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문제를 하나하나 지혜롭고 선진화된 방식으로 풀고 합의할 것  
합리적이며 창의적 발상으로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시키되 불합리한 제도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  
제도,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  
후배 위해 선진화된 품질 경쟁방식 도입, 업역 확충과 재정비 통해 고용안정과 생활보장 이룰 것  
건축계가 양보와 타협으로 대통합의 기반 조성하고, 협회의 재정자립 기반 공고히 할 것  
건축인들의 불평등과 차별적 대우 혁파와 건축사의 품위와 위상을 확립시킬 것**

가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계가 양보와 타협으로 대통합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협회의 재정자립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며 건축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인들이 각 분야에서 받는 불평등과 차별적 대우를 혁파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건축사의 품위와 위상을 확립시켜가겠습니다.

건축분야를 선진화된 창조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문화적 혜택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조직도 건축분야가 선진국형 창조산업으로 재편되도록 활동을 전개해갈 것입니다. 건축의 문화성과 산업성이 상호조화를 이루어 발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협회는 많은 변화를 시도했으며, 그동안 이철호 회장님께서 전국건축사대회와 한국건축산업대전을 개최하셨고, 건축문화신문 창간, 협회회관도 마련하셨습니다.

10여개의 건축관련 법안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셨으며, 건축자재 인증사업과 건축공제사업 그리고 등록원 설립 기반도 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협회가 역동적으로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이철호 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후임 회장으로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는 데 도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우리 협회를 행동하며 실천하는 협회, 화합하고 함께 하는 협회,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협회, 강하고 역동적인 협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협회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굳센 의지와 강한 신념만은 미래를 앞당기고 현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해 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새 집행부의 의지에 믿음으로 성원해 주십시오.

열정과 헌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신뢰받도록 행동하고 실천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가지십시오. 

## “A · E · C의관계정립과발전방안포럼’유감

Displeasure on "Forum for relationship-in- place and development of A · E · C"

제4차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연대포럼이A·E·C의 관계정립과 발전방안이란주제로열렸다. 건축설계(A)와엔지니어링(E)과건설사(C)의관계를어떻게정립해야하고발전방향을모색하는포럼이었다.

발표자는제도적관점으로볼때관계정립에서기대되는사안으로기술축척, 원가절감의기여, 건설산업의참여, 형평성문제해소, 대형건설업체의기술능력활용제고성을들었다. 또한우려되는사안중에는건제, 균형기능의왜곡으로인한부실시공, 품질저하 초래문제, 공사원가절감과 수주에 집중할 경우구조적 안전을 해칠우려, 품격보다는 발주자 의도에부응하거나경제성중시, 창의성, 공공성, 작품성등의저하로질적수준이저하되는문제를거론하였다.

그는 논란의 핵심과 문제해결을위한 전제로, 중소건축사사무소의설계 활동보호및 건설업체의무절제한시장잠식방지와 국내 실정과 시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전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제도도입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으로 Win-Win Approach를통한타결점을모색해야한다고하였다. 또한건설업체가수행하는설계의품질수준확보를위해건설사와 설계자간의협조적 파트너링 체계를 연구해야 하며제3자의 체크앤 밸런스 기능의제도적도입과 강화가 필요하고, 시장의충격을완화하며진입장벽을제거하기위한제도적이며정책적인로드맵수립을전제조건으로달고있다.

이러한발표자의주장은대체로맥을잘짚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는단지외형에그칠뿐, 근본적으로바탕이잘못돼있기에 무용지물이란점을지적하지않을수 없다. 우선현재의관계정립이세계적으로 보편타당성을지니고있는데도이를 건설회사의진입장벽을 허무는 것이관계의정립이고발전방안이라는점에서수긍할수 없다. 백번양보하여장벽을허문다하더라도, 발제자의말처럼상호건제기능이왜곡될경우, 국민의안전은누가책임을질것인가하는점이다. 능률과경제성만을생각한다면국가도입법, 사법, 행정부를분리하지말고대통령에게다주어야한다. 절대권력은부패하고, 부패한정부는국민을위한것이아니고자신들을위해일한다는사실을우리는역사를통하여수없이보아왔으며, 그렇기에완전하지는않으나3권분립의민주정치체제가지금까지인류가발견한최선의국가형태라고하지않는가. 국민을위한다는정치가그러할진대, 최대의이익을추구하는기업인건설사에게모든것을주었을때, 그부작용은불보듯뻔한일인것이다. 이미부분적으로이러한제도를시행하고있는일본이살인맨션이후이를고치려하고있는데우리는거꾸로가려하고있다.

혹자는‘ 건설사들이소비자인국민의신뢰를저버리는부실공사를하면결국망하게되는데, 왜스스로망하는것을하겠는가’라면서기우라고말한다. 실제로대부분의회사는그러할것이다. 그러나열에하나, 아니백에하나라도부실이나오면수십, 수백명의인명과어마어마한재산의손실을가져오게되는것이다.

**발제자는 결언의 끝장에서 제도적 관점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축설계 문제는 각 관련주체 주장의 핵심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방침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객관적인 분석이 무엇인가? 제3자의 눈에 비치는 것만 객관적인가?**

**국민의 생명에 지장이 있다면 모든 문제는 이로서 중단되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기 때문이다.**

**발제자도 더욱 큰 글씨로 건설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담보하는 산업이므로, A·E·C 관계개선의 핵심은 국민, 건축주, 발주자, 고객 등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며, 각 주체는 자기 성찰과 자구 노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과 상생의 전략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 결론짓고 있다.**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는 엄연히 업종과 고유 업무가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도 최대의 이익창출과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등 확연히 다른데, 어떻게 경쟁을 하라는 것인가?**

국가는국민을위하여많은안전장치를해놓고있다. 일례로도로의경우80km, 100km 등속도제한을두고있다. 그러나그이상달린다고사고가나는것은아니다. 안전거리또한마찬가지이다. 그러나이러한조치는사고를줄이며, 사고시에도최소한의피해를입게하기위한최소한의안전조치인것이다.

99마리의결에있는양보다길잃은한마리의양을더귀하게여긴다는성경말씀처럼국가는만에하나생길수있는국민의안전과생명을지키려하고있다. 요즈음납북어부나국군포로의귀환과관련, 외무관리의무성의한조치로국민의분노를사고있는정부이다. 그런맥락으로보면건설사설계점업과관련하여이루어지는이같은일련의일들도국민무시와무관하지않다는생각을지을수없다. 그러나건축사들은믿고싶지않다.

우리는이제건축이문화이며, 창조산업이며, 국가를알리고국위를선양하며문화국민으로서자존심을갖게한다거나, 아름답고특별한건축물하나가1년에수억불의 수출효과를가져온다는등 그간 많이도주장했던말들은 접으려한다. 하지만국민의생명을지키는일에서만은몰려설수없다. 이는건축사란전문가집단에게주어진공공복리우선이란명제를수행해야하기때문이며, 나아가설령그러한의무가없다손치더라도스스로의양식과, 양심에의거하여묵과할수없기때문이다.

발제자는결언의끝장에서제도적관점과관련해, 최근이슈가되고있는건축설계문제는각관련주체주장의핵심에대한객관적인분석과합리적인방침이수립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도대체객관적인분석이무엇인가? 제3자의눈에비치는것만객관적인가? 국민의생명에지장이있다면모든문제는이로서중단되어야한다. 이보다더큰일은없기때문이다. 발제자도더욱큰글씨로건설은국민의안전과생활을담보하는산업이므로, A·E·C 관계개선의핵심은국민, 건축주, 발주자, 고객등의요구를파악하여이를만족시킬수있는방안을 수립하는것이며, 각주체는자기 성찰과자구노력을통한선의의경쟁과상생의 전략을펼쳐나가야할 것이라결론짓고있다.

우리는되묻고싶다.

건축사에게있어어떤것이자기성찰인가?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는 엄연히 업종과 고유 업무가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도 최대의 이익창출과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등 확연히 다른데, 어떻게경쟁을하라는것인가?

이는남자골프대회에여자가가나는것과도비교가안되며, 토끼와거북이의경주와도비교가되지않는것이다. 그야말로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한마디덧붙인다면문화적인측면이전혀없었다는것이다. 하기사생명도경제논리앞에서묻혀가는판이다. ■

# 건축과문학 이야기

## Architecture and literature

건축과문학은전혀다른분야인것같지만, 상호관계는의외로깊다. 건축이인간의여러가지생활을담기위한것이고쾌적하고도안전한생활의영위를위한것이라면, 문학또한인간의생활을어떻게영위할것인가를심도있게형상으로고민하는것이기에우선답있다. 문학이말과글이라는언어를매재로하나의예술적형상을갖는구조물로만들어예술적감흥을일으키려한다면, 건축또한진실하고도견실한구조기술로편리성과유용성으로서의기능을추구하며벽돌과시멘트로예술적감흥을만들려한다.

동서양의많은시나소설에는건축사의고뇌와성공이담겨있고, 그들의사랑이나상상이배어난다. 때로는건축사들의무한 상상력이 펼쳐지는 작품도있는가하면, 현대건축에 대한신랄한비판도있다. 이들작품은건축사들에게인간의이해를통한새로운건축의길을제시하기도해줄것이고, 현실적건축에의또다른상상력을제공해주기도할것이다. 문학에대해이해없는건축사는인간에대해이해가있을수없고, 인간에대해이해가없는건축사가만드는것은한낱시멘트덩어리가되고말수도있다.

### 건축과문학의조화

문학과건축을이야기하면서한국문학을범위로잡는다면많은사람들은이상이라는괴팍한작가를떠올리지않을수없고세계문학을향한다면폴발레리를꼽게된다. 이상은한국문학에서가장건축가가까운작가였다. 그가경성공업학교에서건축을전공했고, 조선건축학회지<조선과건축> 표지도안공모에두번이나입선하였고, <건축무한육면각체>, <오감도>(건축용어인‘조감도’의언어유희) 등많은작품에서건축적상상력을발휘하여한국문학의신세기를만들었다. 그는한국문학연구사에서가장많이연구된작가이다. 프랑스의시인·비평가·사상가이자 20세기최대의산문가중한사람으로꼽히는폴발레리는<건축과시론>으로도유명하다.

한국문학에서는문학을건축에비유해논쟁을벌였던적이있었으니, 김팔봉과박영희의내용형식논쟁이그것이다. 김팔봉은“소설은한개의건축이다.”라고했고이에맞서박영희는“소설로서완전한건물을만드는것은시기상조이다.”라는말로맞섰던적이있다. 이상적소설은내용과형식이온전하게구비된하나의건축물이어야하고, 이상적건축은이상과현실이조화롭게어울린것이어야할것이다.

### 건축을비판한문학

1930년대이상의소설<날개>에나타나는 18가구가어깨를맞대고늘어서서창호가똑같고아궁이모양이똑같은집을제외한다면, 한국문학에서집단주택이나아파트문제가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한것은 1950~60년대부터였다. 편의화되어

동서양의 많은 시나 소설에는 건축사의 고뇌와 성공이 담겨있고, 그들의 사랑이나 상상이 배어난다.  
 때로는 건축사들의 무한 상상력이 펼쳐지는 작품도 있는가 하면, 현대 건축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있다.  
 이들 작품은 건축사들에게 인간의 이해를 통한 새로운 건축의 길을 제시하기도  
 해 줄 것이고, 현실적 건축에의 또 다른 상상력을 제공해 주기도 할 것이다.  
 문학에 대한 이해 없는 건축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축사가 만드는 것은 한낱 시멘트 덩어리가 되고 말 수도 있다.

가는 건축문화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인간을 소외시키고 고립시킬 것으로 보았다.

김광식의 소설 <213호 주택>의 주인공은 집모양이 똑같은 주택단지의 자기 집 213호를 잘못 찾아남의 집으로 잘못 들어가도둑으로 몰려 경찰서 유치장 신세까지진다. 이 작품은 기계때문에 실직당한 주인공이 기계문명에 예속되어 규격화된 삶의 틀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만상황을 형상화했다. 1970년대 들어, 최인호는 <타인의 방>으로, 박완서는 <닭은 방들>로, 그리고 강석경은 <숯곳의 방>을 통해, 남과 닭기 위해 애쓰며 아파트에 살게 된 인간이 결국 개성이 죽어버린 생활이나고립감, 자아상실에 매몰된 일상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을 비판했다. 현대인의 단조로운 삶과 기계문명이 지배하는 비인간적인 상황 기계적인 삶의 상황에서 소외를 극복하고자 삶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 상실의 건축을 비판한 작품으로는, 일본의 극우주의자로 할복자살하였던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를 들 수 있다. 주인공은 “이런 것이 있어도 선종이란 아무 관계도 없다.” 라고 외치며 금각에 불을 붙였다. 주인공은 금각의 미적 아름다움과 마력에 영혼을 빼앗겼는가 하면, 그뒤에 감추어진 번뇌로 인간의 존재 이유와 윤리적 의무감을 반문했고, 마침내 역사적 건축물을 태워버렸다. 개성 존중 사상의 청년이 전통적 건축을 향해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개성적 행동을 보여 주려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건축을 이루는 것도 이상적 건축관이겠지만 건축을 비판하고 불태워 없애는 것도 한 이상적 건축관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닐까?

## 건축관을 고뇌한 문학

건축을 둘러싼 이런 고뇌와 번민을 가장 잘 형상화한 작품으로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인 랜드의 <수원>(원 제목은 The Fountainhead, 한국에서는 <마천루>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는 <수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적이 있다.)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인간의 이기심이 인류 발전의 원천이라는 도발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소설가의 건축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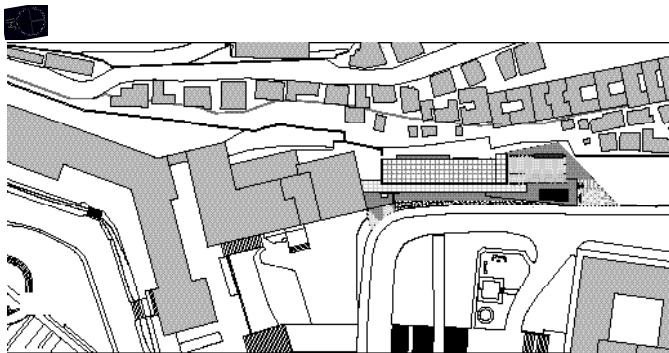
이 소설의 주인공 하워드 · 로크는 건축공사 노동자를 하면서 건축사를 목표로 해고학하면서 다니고 있던 대학을 돌연 중퇴하게 된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건축학에 이의를 제기한 것 때문에 교수들의 분노를 샀던 것이다. 그는 고전 건축을 현대풍으로 살리려는 건축학에 반기를 들었다. 건축물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획기적 디자인과 건축법 등을 그는 추구했던 것이다. 그가 일류의 건축사로 인정되기까지의 약 18년간의 고투를 축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은 단순한 건축사의 성공 이야기기는 아니다. 건축사상 투쟁 이야기이다.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정부에 의한 대규모 공공 주택 건설을 로크가 폭파하고,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이다. 그에게 있어서 명성 등 은 아무래도 좋았다. 단지 자신의 이상을 현실 건축에 살리는 것만이 소망이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공사내용은, 로크의 원안으로부터 크게 후퇴되고 말았고, 로크는 건설도중의 공사현장을 폭파했다. 로크가 체포된 것을 알면, 도미니크는 참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두 명 이 은 밀하게 지켜온 스스로의 독립과 사랑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사선을 해맨 도미니크에게도 무서운 것은 없다. 로크가 형무소에 들어가도 상관 없다. 스스로의 마음에 충실하면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결국 도미니크는 로크를 뒤따른다. ■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 배치도



### ● 건축개요

|       |                                        |
|-------|----------------------------------------|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0 외 0필지              |
|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학교시설용지)                         |
| 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대지면적  | 143,808.00㎡                            |
| 건축면적  | 32,385.17㎡                             |
| 연면적   | 185,979.32㎡                            |
| 건폐율   | 22.52%                                 |
| 용적률   | 105.22%                                |
|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부철골조                         |
| 외부마감  | T60 폴리메탈패널, THK16 투명복층유리, THK12 투명강화유리 |
| 내부마감  | 고경질우레탄페인트, T3비닐계타일, T9논슬립자기질타일 등       |
| 설계담당  | 장근, 허인성, 신석우, 김영주, 김희성, 이상아, 조현제       |
| 구조    | 한울구조                                   |
| 설비    | 세익설비                                   |
| 전기    | 도심전기                                   |
| 시공사   | 에이앤에이 주식회사                             |



|                     |                                                |
|---------------------|------------------------------------------------|
| Location            | 221-0,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Korea |
| Site area           | 143,808.00㎡                                    |
| Bldg area           | 32,385.17㎡                                     |
| Gross floor area    | 185,979.32㎡                                    |
| Bldg coverage ratio | 22.52%                                         |
| Gross floor ratio   | 105.22%                                        |
| Structure           | R.C + S.C                                      |
| Bldg. Scale         | B1, F5                                         |

|   |   |                   |
|---|---|-------------------|
| 1 | 2 | 1. 투시도<br>2. 남측전경 |
|---|---|-------------------|



중앙대학교의과대학증축은시설의확충이라는기능적인면못지않게, 부지가가지는 장소적 특성이 중요한 곳이다. 부지는 캠퍼스의 동측경계 인접 주택지로 향한 경사면에 위치하며, 협소한대지여건에의해학생회관을향한증축의방향성을가진다. 이로인해 대지의 경계를 따라가는 긴 매스는 캠퍼스 밖으로의 조망을 단절하고 전면도로의성격을재설정하게된다. 따라서본계획의주안점은캠퍼스안과밖, 캠퍼스내 도서관과학생회관, 의과대학본관과의 관계를재해석 함으로써, 현재중앙대학교정문계획에서보여준캠퍼스의개방적성격에부합하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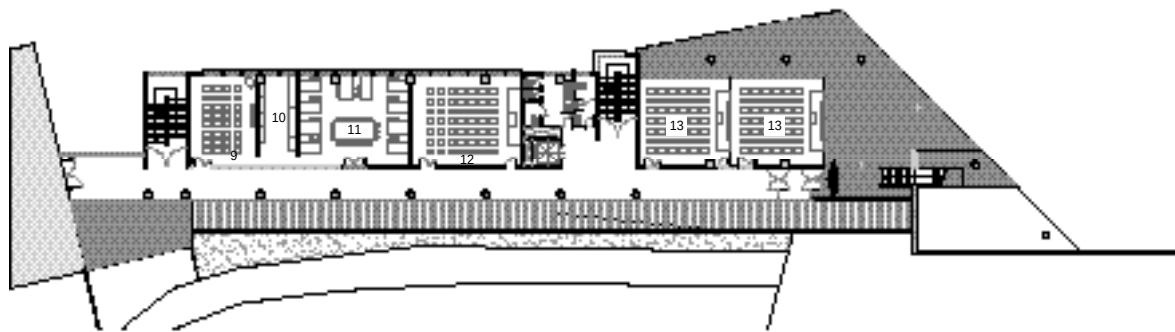
배치계획은 장기적인 캠퍼스 발전계획을 고려한 전면도로의 일부조정으로 기존 의과대학과의 연결부분 부출입구에 전면 진입공간을 확보하고, 학생회관과 도서관 쪽진입을고려한주출입구에대지경사면을활용한데크를계획해동선의혼잡함을 완화하고 캠퍼스 안과 밖을 관통하는 커뮤니티 및 휴게공간을 제안 하였으며, 좁은 전면도로에 면하는 긴 매스의 위압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공간의 계단식강의실을 투명하게처리하고진입부의필로티처리로인한개방감을확보하였다.

또한매스의돌출과다양한외벽재료의사용, 강의실외벽의슈퍼그래픽계획으로 활기넘치는캠퍼스의다양한움직임을드러내려하였다. 부지의지형은동-서, 남-북양방향으로경사저주출입과부출입이각각3층과1층으로경사를따라자연스럽게진입할 수있게하였으며, 동-서방향의 경사로인한동측 지하층부분은필로티 처리하여차후필요로사용할수있게고려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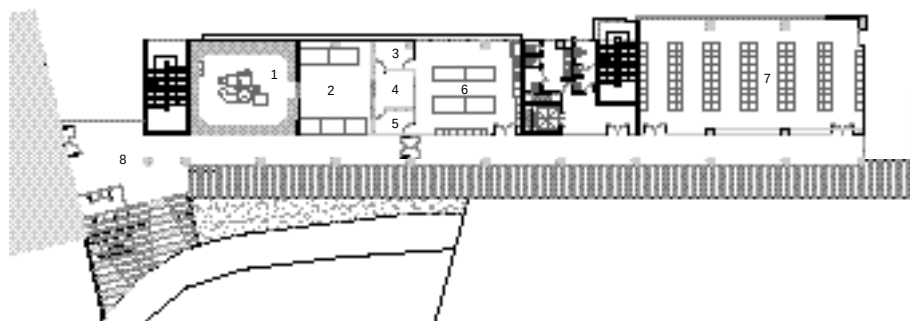




- |           |             |           |              |
|-----------|-------------|-----------|--------------|
| 01. 수술실   | 07. 동물실     | 13. 강의실   | 19. 학생휴게실 및  |
| 02. 무균정정실 | 08. 홀       | 14. 예비실   | 사물함실         |
| 03. 발의실   | 09. 정신간호실습실 | 15. 교수회의실 | 20. 컴퓨터실습실   |
| 04. 전실    | 10. 실습준비실   | 16. 행정실   | 21. 간호학과사무실  |
| 05. 사위실   | 11. 간호관리실습실 | 17. 학장실   | 22. 간호학과학과장실 |
| 06. 준비실   | 12. 간호학과강의실 | 18. 계단강의실 | 23. 교수연구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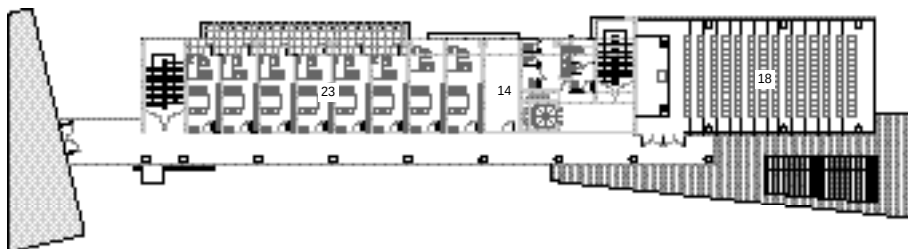
지상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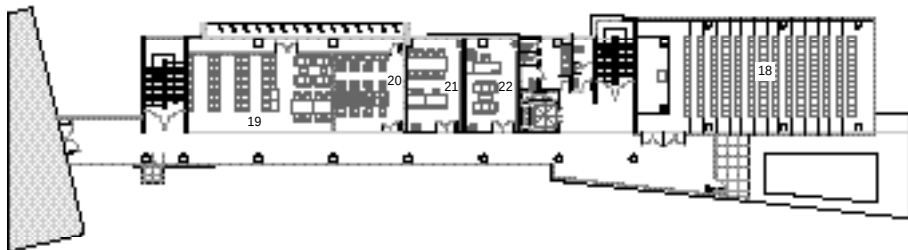
지상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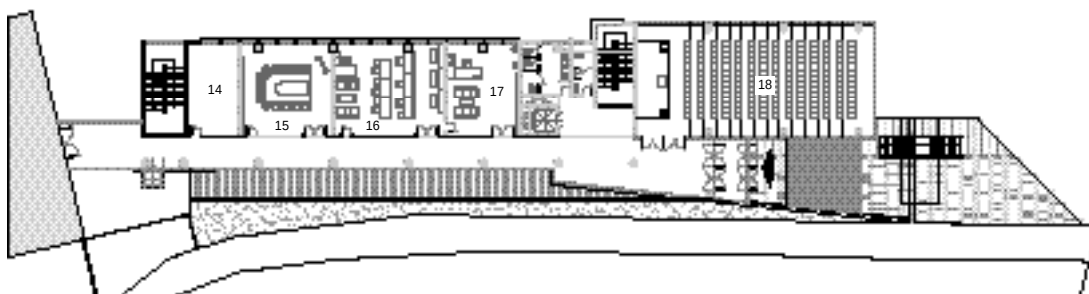
- |   |   |   |
|---|---|---|
| 1 | 2 | 3 |
|---|---|---|
1. 부출입구전경
  2. 서쪽전경
  3. 부출입부입면디테일



지상 5층 평면도



지상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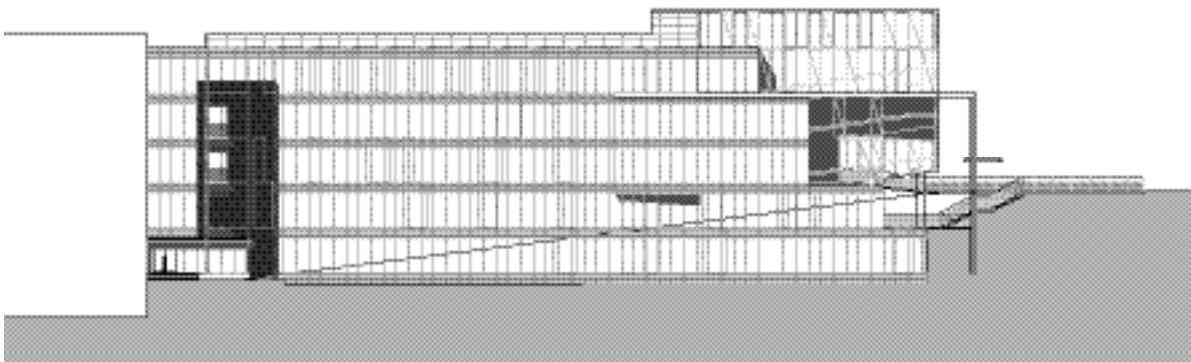


지상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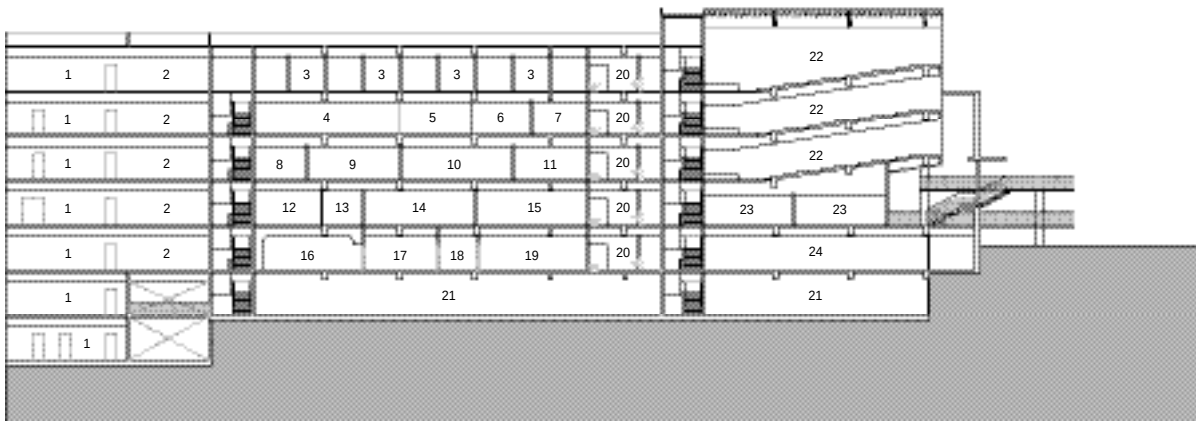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횡단면도

- |                  |              |             |           |
|------------------|--------------|-------------|-----------|
| 01_ 복도           | 07_ 간호학과학과장실 | 13_ 실습준비실   | 19_ 준비실   |
| 02_ 브릿지          | 08_ 예비실      | 14_ 간호관리실습실 | 20_ 화장실   |
| 03_ 교수연구실        | 09_ 교수회의실    | 15_ 간호학과강의실 | 21_ PIT   |
| 04_ 학생휴게실 및 사물함실 | 10_ 행정실      | 16_ 수술실     | 22_ 계단강의실 |
| 05_ 컴퓨터실습실       | 11_ 화장실      | 17_ 무균청정실   | 23_ 강의실   |
| 06_ 간호학과사무실      | 12_ 정신간호실습실  | 18_ 전실      | 24_ 동물실   |

- |   |   |   |              |
|---|---|---|--------------|
| 1 | 2 | 3 | 1. 주출입구입면디테일 |
|   |   |   | 2. 주출입구데크    |
|   |   |   | 3. 데크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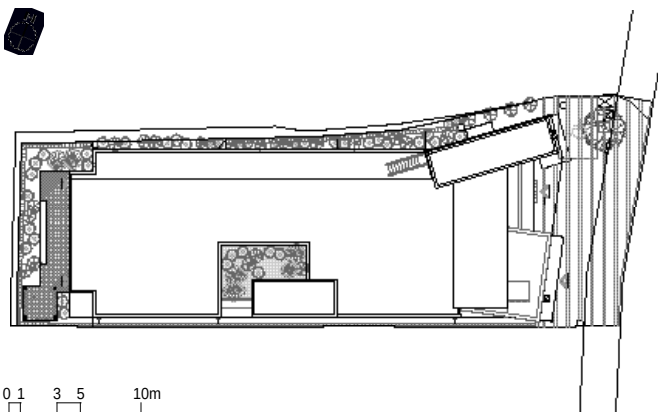


# 남대문 시티 파크

Namdaemun CITI PARK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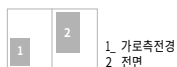
● 건축개요



|       |                                        |
|-------|----------------------------------------|
|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5가 176번지                     |
| 지역/지구 | 일반 상업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방화지구,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
| 용도    | 판매시설, 업무시설                             |
| 대지면적  | 876.00㎡                                |
| 건축면적  | 525.22㎡                                |
| 연면적   | 4,091.05㎡                              |
| 건폐율   | 59.96%                                 |
| 용적률   | 412.73%                                |
| 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
| 외부 마감 | 노출콘크리트, 메탈복합패널, THK18 칼라복층유리           |
| 높이    | 33.0m                                  |
| 도로현황  | 동측 30m도로에 접함.                          |
| 주차대수  | 20대(장애인용 1대 포함)                        |
| 조경면적  | 132.24㎡                                |
| 설계    | 한대희, 서영훈                               |
| 구조    | 산아구조                                   |
| 설비    | 서울엔지니어링                                |
| 전기    | 창조                                     |
| 시공사   | 한울종합건설(주)                              |



|                     |                                             |
|---------------------|---------------------------------------------|
| Location            | 176, Namdaemunno5-ga, Jung-gu, Seoul, Korea |
| Site area           | 876.00㎡                                     |
| Bldg area           | 525.22㎡                                     |
| Gross floor area    | 4,091.05㎡                                   |
| Bldg coverage ratio | 59.96%                                      |
| Gross floor ratio   | 412.73%                                     |
| Structure           | R.C + S.C                                   |
| Bldg. Scale         | B1, F8                                      |







대지는 남대문 로타리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소월길 초입에 있다. 건널목만 건너면 남대문 시장이고 안경도매점이 뽁뽁하게 붙어 있는 거리에 고려안경도매상가라고 1층 규모의 허름한 건물이 서있는 대지가 바로 이번 프로젝트의 사이트이다.

대지내 안경상가는 일제강점기의 적산가옥(건축주가 어렸을 때 살던)을 일부 개조하여상가로사용했었는데, 건물이너무노후되어자주문제가발생하여이번에신축을하게되었다. 남산자락에위치한관계로주변대지와는상당하고저차를 갖는 땅으로 인접대지와는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석축으로 경계지어 있다. 대지의2면에형성된석축높이는약5미터이고, 주변의무허가부속건물들이이석축에붙어있다. 또한나머지2면에는상당히노후화된건물들이위치한다.

대지를조사하면서여러가지로골치아픈대지라는생각이들었다. 그이유는

주변의건물들이상당히노후되어있고대지경계에석축이형성되어있으며이석축에붙어서주변건물이있다는점그리고지반의상태는암석이라는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잘 해결할 것인가. 건축주는 1층부터 3층까지는 기존처럼 안경도매상가를 만들고 그다음 8층까지는 업무시설을 설계해달라고 하면서 공사비는 평당 280만원선이 되며 주변을 압도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세워달라고했다.

기존의 석축을 걷어내면서는 공사를 할 수 없고(주변건물이석축에 붙어있으므로) 지반이 지하 5미터이하로는 암반이어서 지하 2층으로 만들기에는 공사비도 많이 들고공사시주변의노후화된건물들에게많은위해가되므로 석축을 살려두고 지하 1층으로만 설계를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는 지하 2층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상주차타워를 설치한다면지하 1층으로 가능하며지하층의 폭을줄여 석축으로부터약3미터이상의여유를갖고공사를함으로석축을 존치시키며 공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층에는 기계실과전기실일부근생을계획했다.

지상 주차타워를 설치할 경우 보통은 건물의 후면에 배치하고건물의전면에는주차타워로가는주차로를형성하게 되는데 대지의 폭이 상당히 좁고 차로 때문에 임대료가 비싼 1층 매장이 작아질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생각을바꿔건물의전면에주차타워를두기로결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뜰이나 좁은 전면에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는 생각에 반감을 가졌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좀 달랐다. 대지가 4대문 안 주차 상한지역인 관계로다른지역보다법정주차대수를약50% 줄일수있었고따라서주차타워를설치하더라도건물보다높지않게본 건물에 관입된 형상으로 일체화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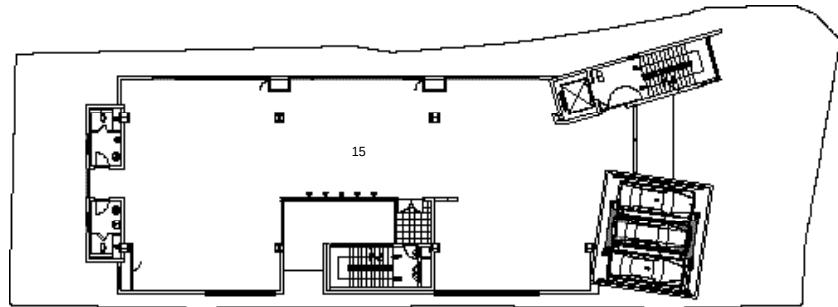
이번계획에서는주차타워를적극적으로광고판으로활용하고건물의나머지부분은유리커튼월로처리하여개방감을최대한살리면서보이드와솔리드의대비가강한파사드를형성했다. 또한계단을전면에배치하여건물의수직상승감을높이고사람들의움직임을보여줌으로써활력넘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단을 주출입구부근에배치하여4층이상의업무시설을이용하는동선을판매시설동선과섞이지않도록분리했다.

물론주차타워와계단이전면에배치되다보니주출입구가협소해지는단점이발생되나주차타워와계단을약간씩틀면서배치시켜입구폭을최대한확보하고주출입구 상부의 2층과 3층 슬라브를 잘라내어 보이드 시킴으로입구로서의개방감을최대화시키려고노력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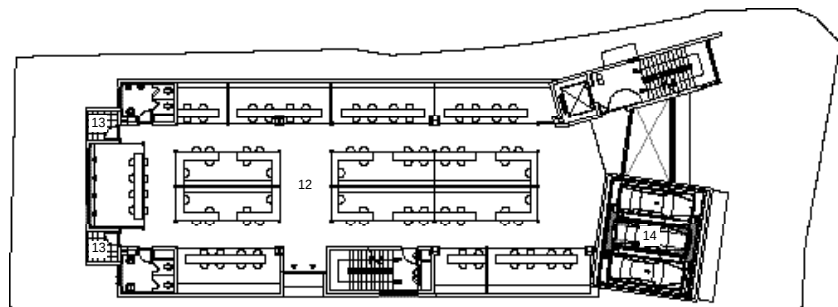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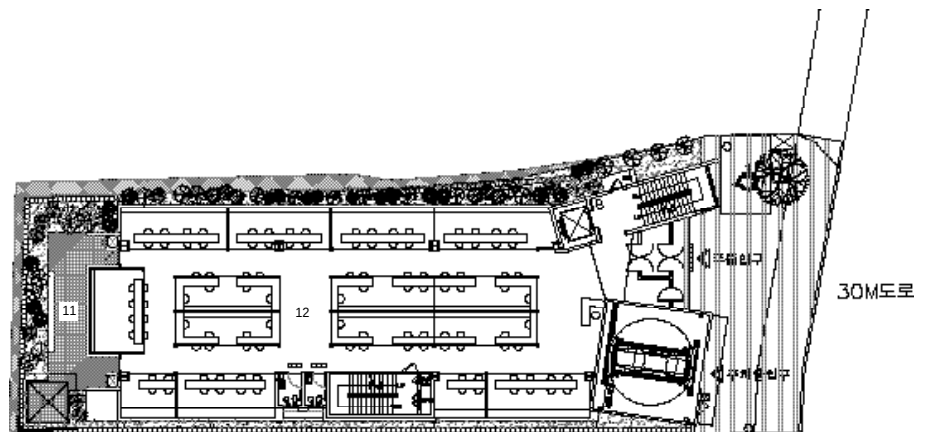
- |            |          |
|------------|----------|
| 01_정화조 관리중 | 09_홀     |
| 02_기계실     | 10_피트    |
| 03_전기실     | 11_데크    |
| 04_근생      | 12_판매시설  |
| 05_MDF실    | 13_발코니   |
| 06_발전기실    | 14_기계식주차 |
| 07_창고      | 15_법무시설  |
| 08_관리실     |          |



지상 2,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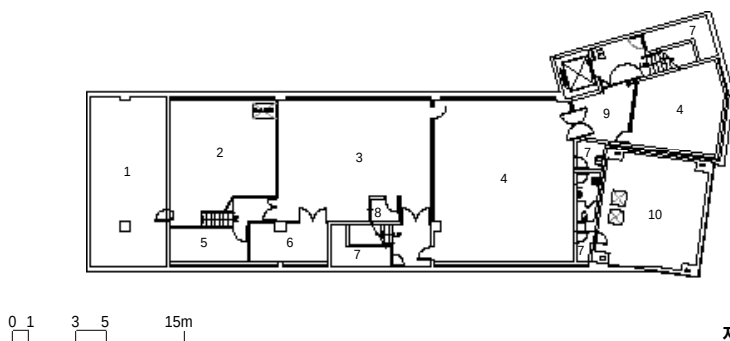


지상 2, 3층 평면도



지상 1층 평면도

- |          |
|----------|
| 1_광장     |
| 2_스튜디오형  |
| 3_7층데라스  |
| 4_8층발코니  |
| 5_엘리베이터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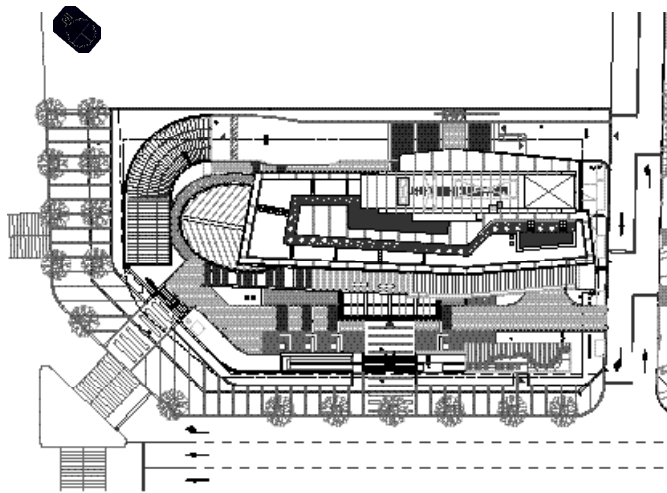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 외국기업 창업지원 연구센터

Invest Korea Plaza

● 배치도

● 건축개요



|       |                                         |
|-------|-----------------------------------------|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6                     |
| 지역/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 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대지면적  | 3,511.70㎡                               |
| 건축면적  | 1,286.89㎡                               |
| 연면적   | 12,260.06㎡                              |
| 건폐율   | 36.65%                                  |
| 용적률   | 218.36%                                 |
| 규모    | 지하 2층, 지상 9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 외부마감  | T.24 칼라복층유리, 알루미늄 쉬트, 알루미늄복합패널, 알루미늄 루버 |
| 내부마감  | 바닥: 화강석, 카펫타일<br>내벽: 무늬목, 환경친화용 수성페인트   |
| 설계담당  | 최창섭, 유병섭, 배상운, 정선, 백혜원, 김대욱, 손현석, 엄주석   |
| 구조    | (주)이레구조기술사사무소                           |
| 설비    | (주)성아엔지니어링                              |
| 전기    | (주)제일전기                                 |
| 시공사   | 명지건설주식회사                                |
| 설계기간  | 2004. 10 ~ 2005. 04                     |
| 공사기간  | 2005. 04 ~ 2006. 10                     |



|                     |                                              |
|---------------------|----------------------------------------------|
| Location            | 300-6, Yeomgok-dong, Seocho-gu, Seoul, Korea |
| Site area           | 3,511.70㎡                                    |
| Bldg area           | 1,286.89㎡                                    |
| Gross floor area    | 12,260.06㎡                                   |
| Bldg coverage ratio | 36.65%                                       |
| Gross floor ratio   | 218.36%                                      |
| Structure           | R.C.R                                        |
| Bldg. Scale         | B2, F9                                       |
| Design period       | 2004. 10 ~ 2005. 04                          |
| Construction period | 2005. 04 ~ 2006. 10                          |



1. KOTRA 사옥과브릿지로연결된 IKP의 정면  
2. 도로에서바라본전경



염곡사거리의상황은독특하다.

우선거대한하이라이즈빌딩들의모습이대지로향하는이들의이목을 자극한다. 하지만 그들과 마주하는 과정은 의아함을 가지게 한다. 사실상 그들은 서울이란 거대 스케일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행자의 시점으로는 산과 낮은 주거군, 화훼단지 등의 도시변두리의풍경을가지고있다.

인근의 교통상황 역시특이점을가지고 있다. 몇 곳의 대규모 시설이자리잡고있는으나, 보행자의모습은관찰하기힘든것이이지역의 특징 중 하나이다. 반면 고속도로와 서울 내부로의 진입이 상충하는 도로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상당히 많은 량의 차량이동이 이뤄지며, 교통체증또한익숙한지역이기도하다.

이러한특성들은매스의형성에몇가지의지를가지게했다.

먼저교차로라는특성으로인해건물의3면을인지시켜야한다는부분이었다. 매스는도시적 Context에의존한정돈된모습보다는교차로를진행하는차량들로부터의시선에반응하게되었다.

둘째는지역의건조한일상을변화시킬이벤트공간의제안이었다. 그방안으로매스의중앙부(지상2층)는비워졌다. 기능적으로는 시설의메인유저들과방문객을분리·연결한다. 하지만가로와직접연결되는외부계단이나, 불특정다수가이용가능한정원과스낵바는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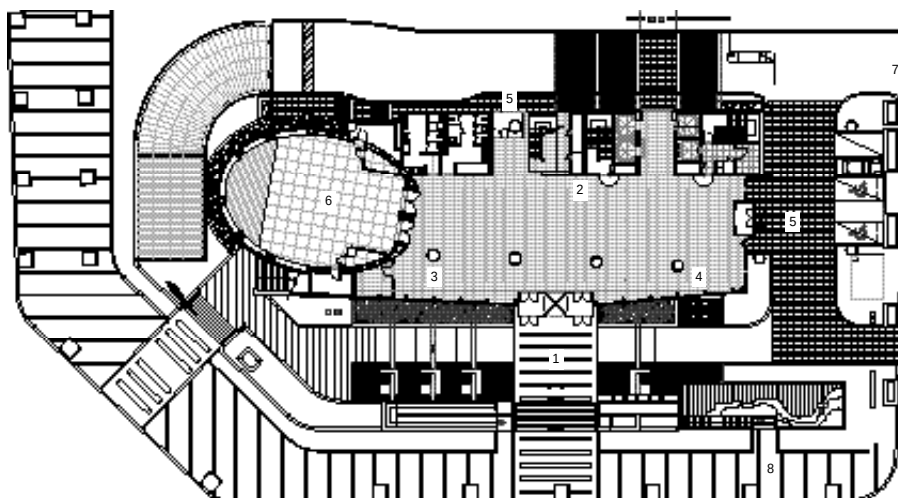
개방적인공간, 그리고이벤트요소로서의가능성을살리기위함이다.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기본적으로외국인투자자들을대상으로한다. 자국을방문한외국인, 그것도앞으로일어나게될협력관계가 중요한 귀한 손님이기도 하다. 이러한 손님들에게 어떠한 환영의 메시지를전달할것인지역시해결되어야할숙제이다. 당시설은외국인을 향한 국가차원의사랑방이기도 한 것이다. 세부디자인의 큰 줄기는한국전통성의표현이었다. 로비에는전통양식으로표현된이미지의전달을제안하였으며, 바닥은전통마루의패턴을이용했다. 그것은 로비에 진입한 방문객들로 하여금 공손한 인사로 받아들여지도록 하였다. 외부조경디자인에는조각보를모티브로하였다.

고려되어야할대상중중요했던것한가지는 KOTRA이다.

새로지어질건물은자신의모태를결메시고보좌해야할입장이었다. 10년이란시간을사이에두고함께자라는형제로서인식되어야 했다. 입면의대부분의구성방식을기존KOTRA 사옥으로부터그모티브를차용하고 있다. 이제 지역은 이 두형제를구심점으로새로운질서를만들어가기를기대한다. ■

- |                |                |
|----------------|----------------|
| 01. 주출입구       | 14. 안내/복도      |
| 02. 로비         | 15. 소회의실       |
| 03. 라운지        | 16. 홀          |
| 04. 한국투자홍보관    | 17. 창조실        |
| 05. 부출입구       | 18. 법률         |
| 06. 세미나실       | 19. 회계         |
| 07. 차량전출입구     | 20. 통역         |
| 08. 선크출입구      | 21. 관광         |
| 09. 비지니스라운지    | 22. 유관기관사무실    |
| 10. 스넥바        | 23. 외국인기업전용연구실 |
| 11. 사랑마당(deck) | 24. 상담실        |
| 12. 오리엔테이션룸    | 25. 수면실        |
| 13. 휴게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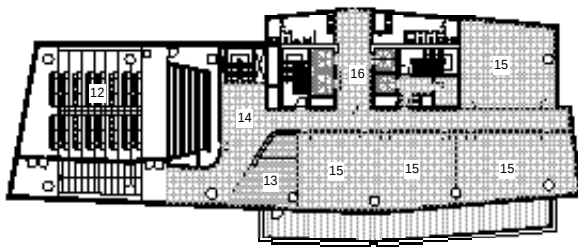


지상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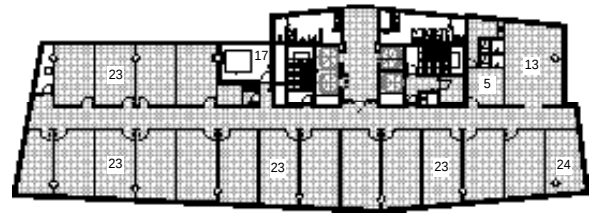
- |              |              |
|--------------|--------------|
| 1. 도로에서바라본아경 | 2. 남측에서바라본전경 |
| 3. 데크        | 4. 서측에서바라본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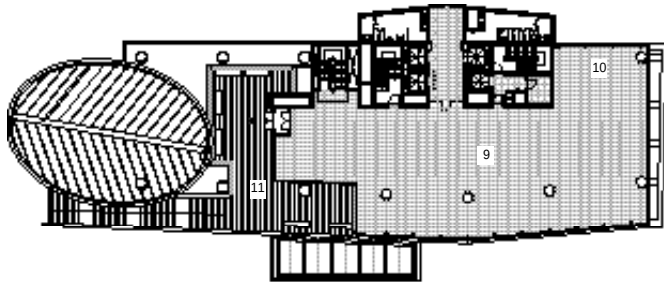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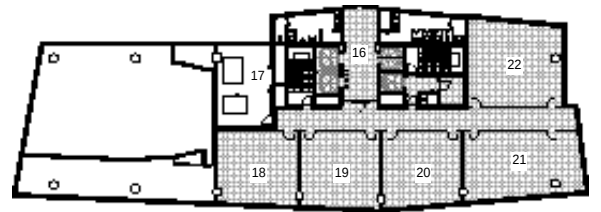
지상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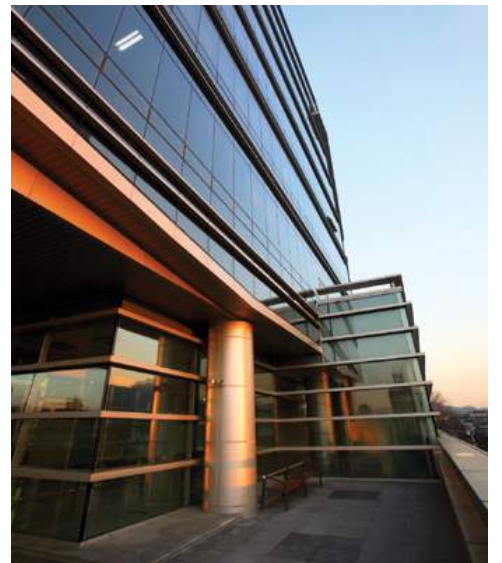
지상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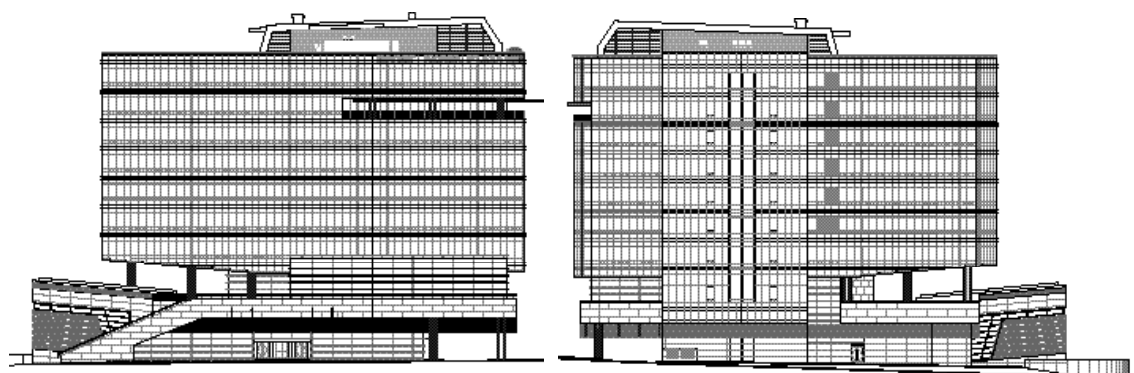


지상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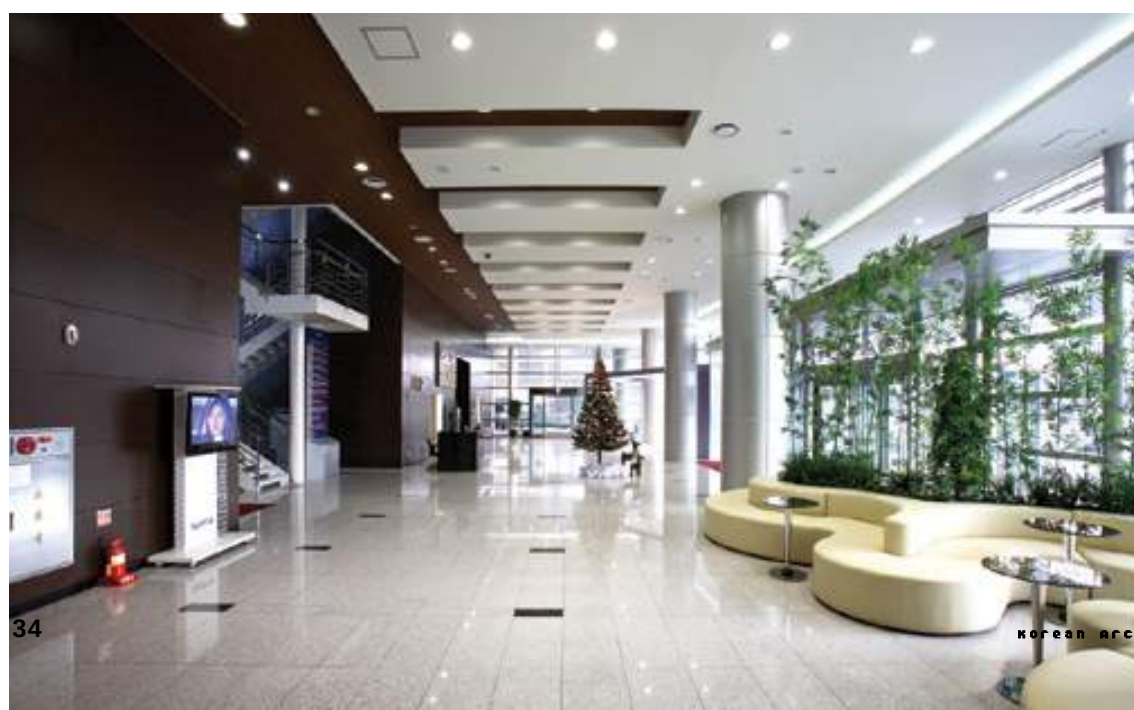
지상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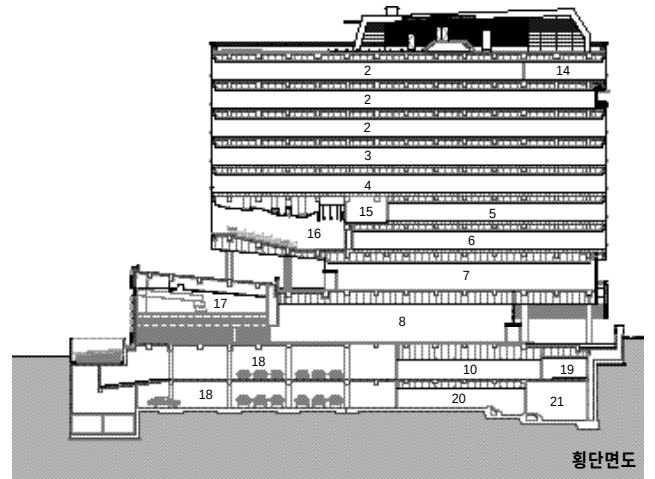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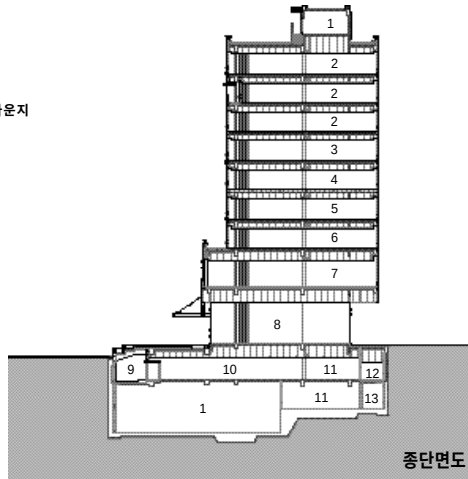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 01\_ 기계실
- 02\_ 외국인 기업전용 사무실
- 03\_ 투자 상담실
- 04\_ 유관기관 사무실/투자상담실
- 05\_ 비즈니스 센터
- 06\_ 소회의실
- 07\_ 한국생활 안내관/비즈니스 라운지
- 08\_ 로비/한국투자 홍보관
- 09\_ 선크마당
- 10\_ 편의/부대시설
- 11\_ 홀
- 12\_ 화장실
- 13\_ 창고
- 14\_ 영상회의실
- 15\_ 공조실
- 16\_ 오리엔테이션 룸
- 17\_ 세미나실
- 18\_ 지하주차장
- 19\_ 방재센터
- 20\_ 복도
- 21\_ 전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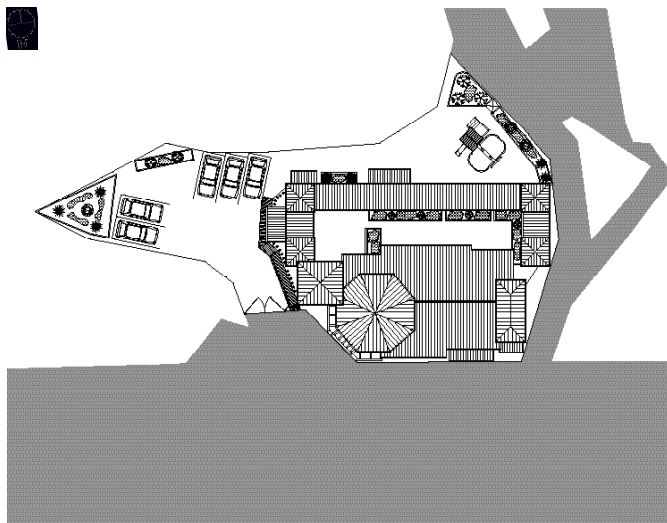


# 글로벌 창의 유치원 · 어학원

Global Chang-eui Kindergarten

● 배치도

● 건축개요



|       |                              |
|-------|------------------------------|
| 대지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344 - 번지 외2필지   |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지역             |
| 용도    | 노유자시설(유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 대지면적  | 879.00㎡                      |
| 건축면적  | 406.30㎡                      |
| 연면적   | 1,322.26㎡                    |
| 건폐율   | 46.22%                       |
| 용적률   | 150.43%                      |
| 규모    | 지상 4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 외부마감  | 적벽돌 치장쌓기, 외단열 고운마감, 스페니쉬기와지붕 |
| 내부마감  |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목재마감+핸디코트      |
| 설계담당  | 천은영                          |
| 구조    | 원구조                          |
| 설비    | 상록엔지니어링                      |
| 전기    | 광명기술단                        |
| 인테리어  | 성 종합건축사사무소                   |
| 시공사   | (주)경양종합건설                    |
| 건축주   | 김정애, 함진주                     |
| 설계기간  | 2006. 01 ~ 2006. 5           |
| 공사기간  | 2006. 06 ~ 2006. 12          |
| 사진    |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김성곤,천은영)        |



Location 344-1, Dongsang-dong,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                     |                     |
|---------------------|---------------------|
| Site area           | 879.00㎡             |
| Bldg area           | 406.30㎡             |
| Gross floor area    | 1,322.26㎡           |
| Bldg coverage ratio | 46.22%              |
| Gross floor ratio   | 150.43%             |
| Structure           | R.C                 |
| Bldg. Scale         | F4                  |
| Design period       | 2006. 01 ~ 2006. 5  |
| Construction period | 2006. 06 ~ 2006. 12 |





### 건축주의생각과경사지붕의허가조건

두 분의 건축주는 오랜 유아교육경험과 훌륭한 인품을 갖춘 교육자이다. 그동안의 교육과 유지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을 위한 기본 밑그림은 그려져 있었다. 건축주가 조심스럽게 제안한 건축의 형태와 프로그램은 용도가 어린이집이고, 외국어 전문학원이므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유럽식이되, 조잡하지 않고 아름다웠으면했다. 현대적디자인으로내·외부공간을만들겠다는 내생각과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자료 조사 때 알게 된 김해시의 허가조건 중에 옥상은 반드시 경사 지붕이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당황스럽게 했다. 건축은 시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목구조일 때 나필요했던경사지붕을오늘날에도반드시해야하는지설득해보았으나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건축주의 생각과 경사지붕의 조건이우연히일치되어오히려건축형태의컨셉은쉽게머릿속에그려졌다. 지나친 규제는 독창성에 영향을 주기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것도시대의흐름이라면, 유사함속에서다름을추구할수밖에 없다. 건축은 건축주가 소중하게 모은 재산을 투자하여 만드는 것이니우선건축주의마음에들어야한다. 그다음이건축사의사유일것이라생각한다.

### 華而不侈와宇宙

경사진 대지를 수차례현장 방문하며 사진 분석 작업과함께 스케치에몰두했다. 기본디자인개념의설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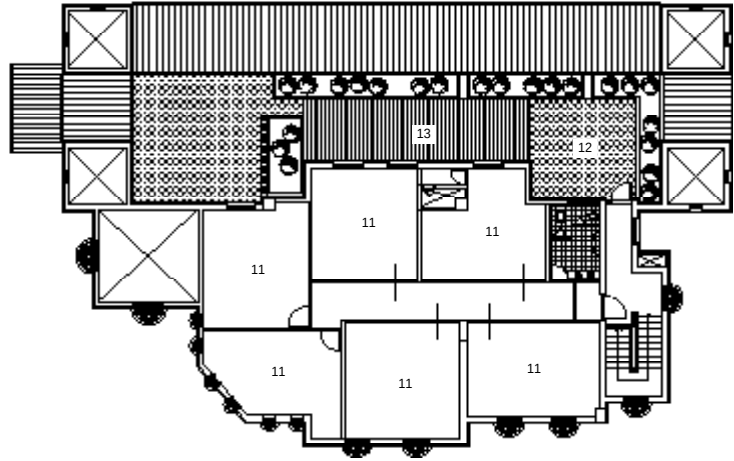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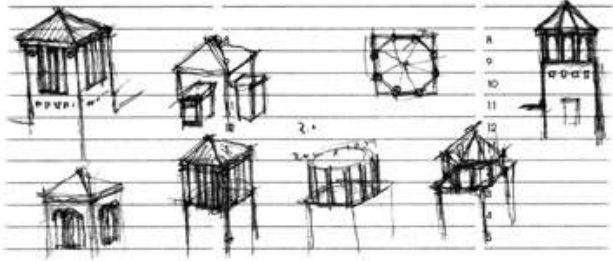
- 경사진자연지형을최대한훼손하지않고대지에순응하게배치한다.
- Mass의분절 • 陽과陰의형태변화
- 원+사각+삼각의기본도형을이용한다자인

- 도시의언덕위에위치한건축으로서주변산세와의스카이라인고려
- 높낮이가다른사각형탑들의긴장감 • 인지성- 야간조명탑설치
- 색상- 우주를상징하는오방색으로표현
- 외부와내부인테리어의통일성등으로요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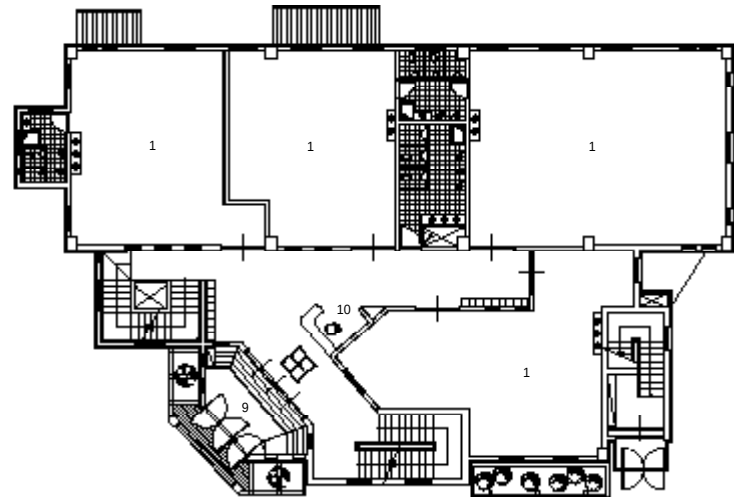
4개의사각형탑들은, 고깔모자를눌러쓴코가진동화속피노키오의 모습과 닮은 해학이 있고, 외부색상은 백색 외벽에 적색계열의기와, 186개의 흑색 원목각재로 하얀 벽에 포인트를 주고, 인지성을 표현한 야간 조명탑 지붕을 받쳐주는 3개의 원형기둥에는 적색, 황색, 청색의 오방색을 표현했다. 이는 아동전통의상인 색동저고리와 우리음식의 비빔밥, 나물 등의 오방색들이 우주를 상징하듯, 우주를 가슴에 가득 품은 꿈둥이들의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은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는 않아야 한다는 정신이 그가운데있다. 건축은혼자하는작업이아니다. 건축은 혼자할 수 있는 여타 예술과는 다른 분야다. 절대적으로 시공사 현장소장의 기술력과 프로근성이중요하다. 시공을맡은경양종합건설(주)의현장소장송현오님은처음부터끝까지일관된장인정신으로책임을다해줬다. 무려 186개의 원목각재를 외부벽체에 고정 시킬 때, 약간의흐트러진 선이라도 그냥 봐 넘기지 못하는 나의 지적에 공감하며 바로시정하는성실함과원목각재에칠한흑색의스테인이빗물로인해하얀벽체에배일세라일일이물에담아서시험한후이상없을때 시공하는 치밀함도 보여줬다. 더불어, 설계를 담당한 스태프인 천은영님도특유의꼼꼼함과책임감으로날밤을세워가며작업해준결과물이라 자평한다. 건축주와 건축사, 시공사가 신뢰와 배려로 하나가 될 때뜻있는건축작업을이룰수있다. 그러면직업이 이보다더한보람이있을까?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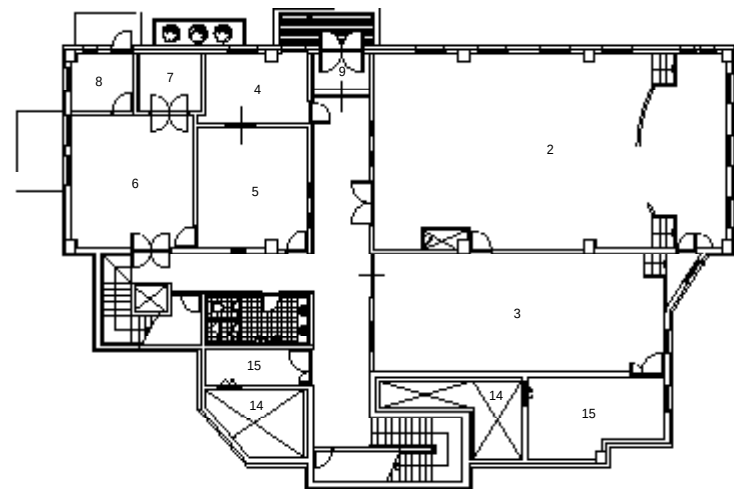
- |        |         |           |            |
|--------|---------|-----------|------------|
| 01 교실  | 05 교사실  | 09 현관     | 13 DECK마당  |
| 02 대강당 | 06 주방   | 10 안내실    | 14 지하수조    |
| 03 소강당 | 07 식품창고 | 11 어학원강의실 | 15 펌프및보일러실 |
| 04 원장실 | 08 다용도실 | 12 인조잔디마당 |            |



지상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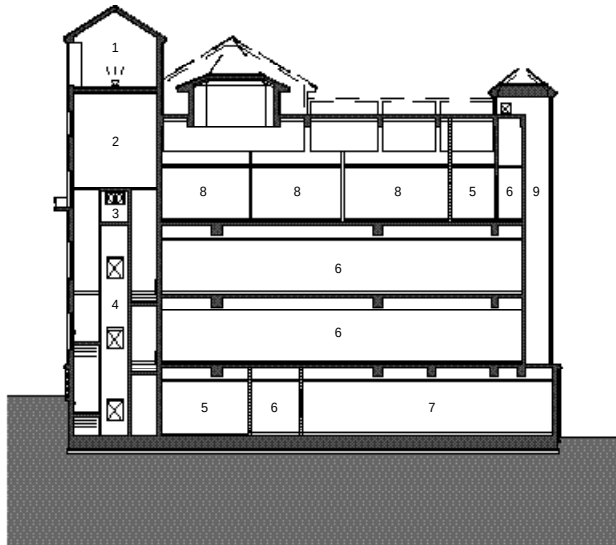
지상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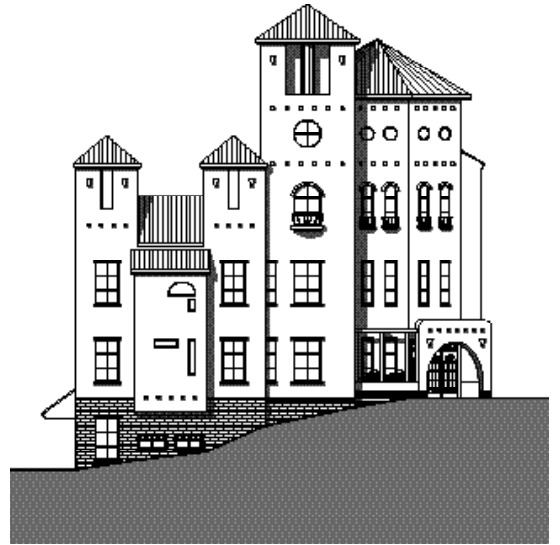
지상 1층 평면도



- 01\_ 조명탑      06\_ 복도
- 02\_ 계단실    07\_ 소강당
- 03\_ D/W기계실   08\_ 어학원강의실
- 04\_ D/W        09\_ CH
- 05\_ 화장실



단면도



입면도

- |   |      |   |    |
|---|------|---|----|
| 1 | 아경전경 | 4 | 복도 |
| 2 | 좌측면  | 5 | 교실 |
| 3 | 옥상정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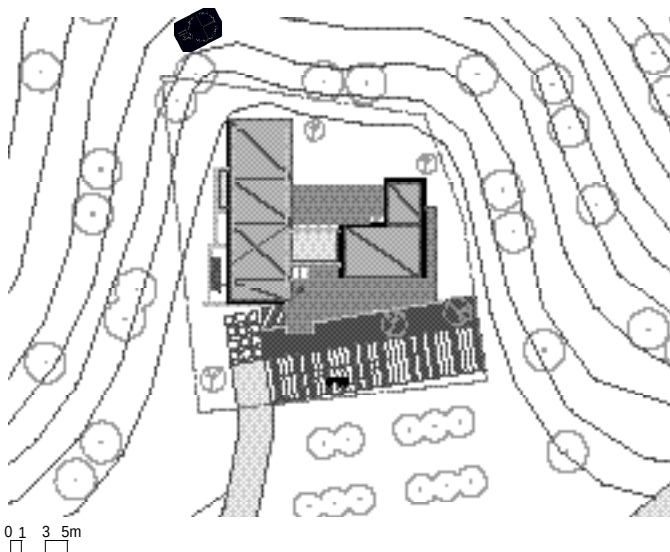


## 저동 주택

Ju Dong Residence

###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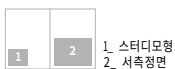
### ● 건축개요



|       |                          |
|-------|--------------------------|
| 대지위치  | 강원도 강릉시 저동               |
| 지역/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경포도립공원 공원자연마을지구 |
| 용도    | 단독주택                     |
| 대지면적  | 595.00㎡                  |
| 건축면적  | 131.55㎡                  |
| 연면적   | 145.50㎡                  |
| 건폐율   | 22.11%                   |
| 용적률   | 21.73%                   |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
| 외부마감  | 방부목 사이딩, 노출콘크리트, 강화유리    |
| 내부마감  | 석고보드 위 수성 페인트            |
| 설계담당  | 천영석, 이승곤, 박범진            |
| 사진    | 건축사사무소 제공                |



|                     |                                           |
|---------------------|-------------------------------------------|
| Location            | Jeo-dong, Gangneung-si, Gangwon-do, Korea |
| Site area           | 595.00㎡                                   |
| Bldg area           | 131.55㎡                                   |
| Gross floor area    | 45.50㎡                                    |
| Bldg coverage ratio | 22.11%                                    |
| Gross floor ratio   | 21.73%                                    |
| Structure           | R.C, wood                                 |
| Bldg. Scale         | B1, F1                                    |





저동주택은 40평 규모의 소규모 주택이다. 대지의 조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필요한 만큼만 지어진 조출 주택이다.

저동은 경포대가는 길에 경포대 건물에 있는 뒤쪽 지역을 말한다. 저동주택은 경포를 좋아하여 경포에서 살기 위해 만드나 이든 부부를 위한 집으로 경포대가는 길에서 조금 들어간 북측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다. 건축주는 주변에 늘어나고 있는 펜션 스타일의 집과는 다른, 조용하게 살 수 있는 편안함을 원했고 화려한 걸모습보다는 실속 있는 주택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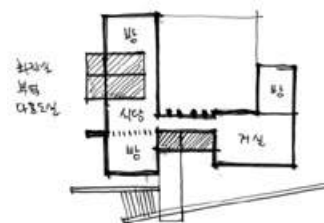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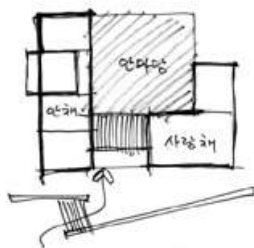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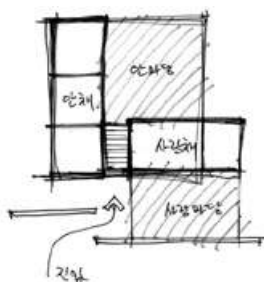
대지는 골이 서쪽으로 열려 있는 서향 대지로 진입 역시 서북측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40평 정도의 일층 주택으로 필요한 방으로는, 안방과 사랑방 그리고 손님이 올 경우 쓸 수 있는 방 하나를 추가 하였고 손님이 많이 올 경우 대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였다. 빠듯한 공사비를 제한하기 타나 나머지 사항은 거의 건축사의 손에 위임하였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집을 짓기 위해 구조를 서양식 목조주택으로 선택했고 그 대신 중정을 낀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된 전통주택의 공간 구성을 제안하였다. 지세를 따라 서측을 전면으로 하되 안채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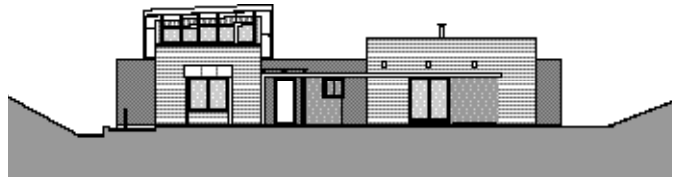
향은 중정을 바라보는 남향으로 자리잡게 하였고, 사랑채는 서향으로 하되 거실의 창을 최소로 하고 남측에 창을 두었다. 진입은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이 공간은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하는 갤러리 공간이 되었다.

사랑채에는 사랑방과 거실을 두어 바깥 주인이 손님과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잠가둘 수 있도록 하였다. 안채는 안 주인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안방과 주방, 식당의 공간이 있고, 식당 옆의 서측 공간을 비워 두어 간단한 가족실로 쓰게 하였다. 또한 이 공간은 두장의 미닫이 칸막이 패널로 분리되어 손님이었을 경우 필요에 따라 분리하여 건넌방으로 쓸 수 있게 하였고, 공간의 높이를 이용하여 다락을 두어 수납장 속 계단을 통해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전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 마당이 있어 반쯤 폐쇄된 프라이버시의 공간을 제공하였고 사랑채 앞에는 마루를 깔아 사랑마당에서 멀리 마을이 보이도록 하였다. 이 공간은 1.5미터 정도 높이의 노출콘크리트 벽으로 주차장과 구분이 되며 측면에 계단을 통하여 진입하게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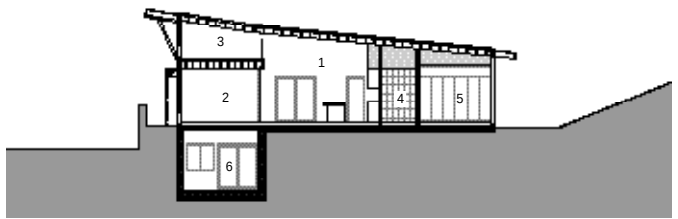






정면도

- |          |         |
|----------|---------|
| 01_식당/주방 | 04_화장실  |
| 02_건넌방   | 05_안방   |
| 03_다락방   | 06_보일러실 |



단면도

0 1 3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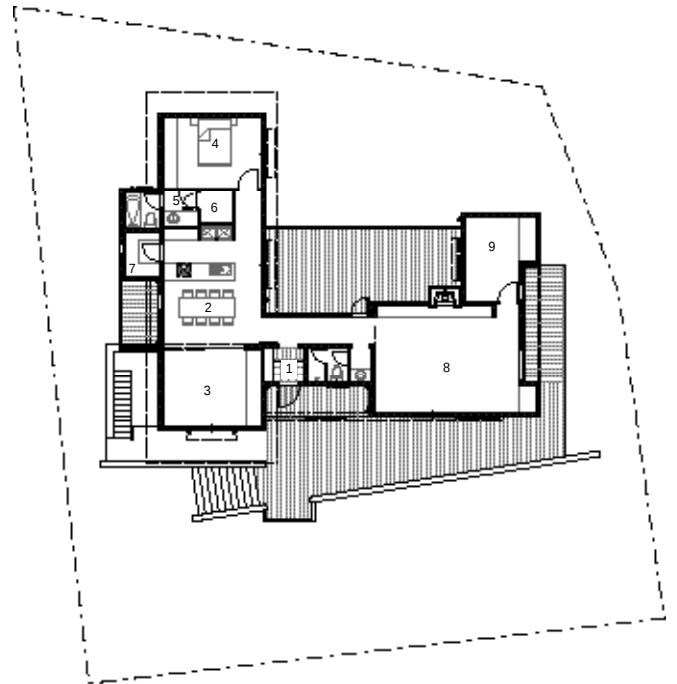
|   |   |
|---|---|
| 1 | 3 |
| 2 | 4 |
|   | 5 |
|   | 6 |

1. 진입계단과 앞마당
2. 앞마당 전경
3. 미닫이 칸막이를 사용한 건넌방과 식당공간

4.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하는 복도
5. 사랑채를 통해 바라본 안채
6. 자연으로 열려있는 거실



01. 현관
02. 식당/주방
03. 건넌방
04. 안방
05. 강의실
06. 창고
07. 다용도실
08. 거실
09. 침실



0 1 3 5m

지상 1층 평면도





## 설계경기 Competition

### 전북대학교 BIC도서관

Chonbuk National University BIC Library

당선작/ (주)이가건축사사무소(은동신) +  
(주)윙그룹건축사사무소(강문수)

대지위치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  
664-1번지전북대학교교내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시설보호지구  
대지면적 18,935.03  
건축면적 3,315.13  
연 면 적 23,869.97  
건 폐 율 17.51%  
용 적 륜 83.55%  
용 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주  
규 모 지하2층, 지상5층  
외부마감 알루미늄복합패널, 매탈패브릭,  
칼라복층유리, 고밀도목재패널  
설계담당 김제형, 조한준, 유명순, 석민철, 김석열,  
윤희정, 강민호

#### 계획의의도

Site가 위치한 전북대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거점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명실상부한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고있다.

현시점에서 3개소로 분산 운영되어 온 전북도서관은 그 이용 및 정보서비스의 상당한 제약과 동시에 관리상 비효율적인부분이문제시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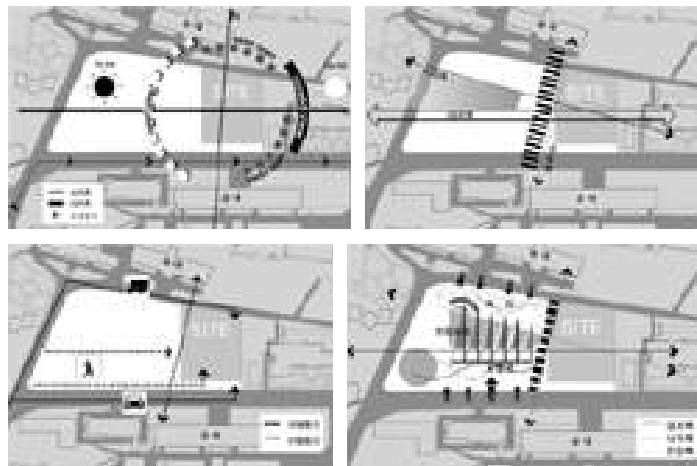
그로인해장서와정보를얻을수있는필수적인인프라 시설을요구하게되었고, 해결방안으로 BIC가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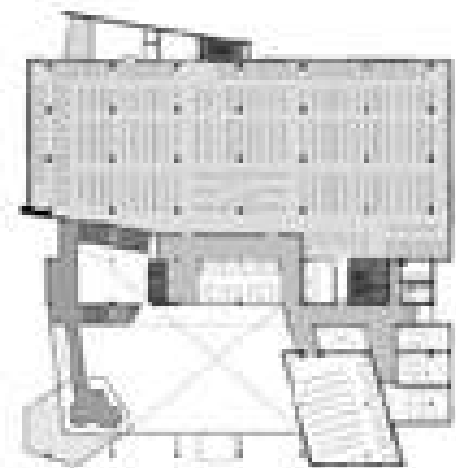
#### 계획의방향

도서관은 그 이용객들에 따라 성장변화를계속하는기관으로 장래변화를수용할수있는장소로서존재해야한다.

열린 녹지와 인접건물군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Site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오픈된 공간을 계획하고, 접근을 유도한다.

오픈 공간은 입체적으로 확장되어 수장공간의향후변화에순응한다.





2층평면도



배치도



1층평면도



남측면도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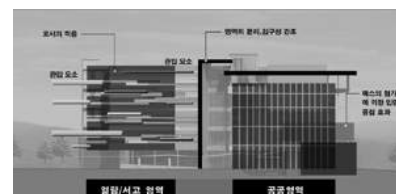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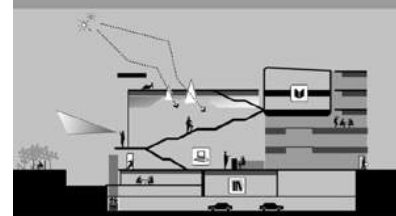


지하 1층평면도



입면구성

입면구성



실내환경계획



## 전북대학교 BIC도서관

Chonbuk National University BIC Library

우수작/ 종합건축사사무소세림(주)(송경규) +  
디바이엠건축사사무소(서정일, 이창우)

대지위치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 664-14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교육시설보호

주요용도 교육및연구시설중대학도서관

대지면적 18,935.0㎡

건축면적 4,434.8㎡

연 면 적 24,480.8㎡

건 폐 율 23.42%

용 적 륜 90.75%

규 모 지하2층, 지상5층

발 주 처 전북대학교

설계담당 세림 : 임대현, 이동철, 이영환

디바이엠 : 김나나, 이수완, 류광민, 정진오,  
강현진

대학도서관은 캠퍼스내 대학문화의 중심으로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정보가 각기다른매체방식으로 상호간소통이가능한커뮤니티장소로제공되어야한다.

주어진대지는전체캠퍼스중심에서는약간치우친 지역이지만, 건물군에 의해 둘러싸인넓은녹지공간으로서공간적가능성이충분한장소이다.

본 계획안은 도서관 프로그램, 정보와 컨텍스트, 지역사회, 문화를 결합시킨 관계디자인을통해이용자들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 장소로서의 복합문화 정보도서관을 제안한다. 효율적인 도서관확보는 필수이며, 방치된 녹지공간의 복원은 이상적인환경을제공할것이다.

### green - scape

도서관기능과 green이 결합된공간은자연스럽게 물리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공간적, 시각적, 행위적인 다양성을가지게 된다. 이것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공간시스템은 내부와외부가동시에작동될때효과적이다.

### digital matrix

공용공간은외부공간이필터링된공간이자, 서가공간이확장된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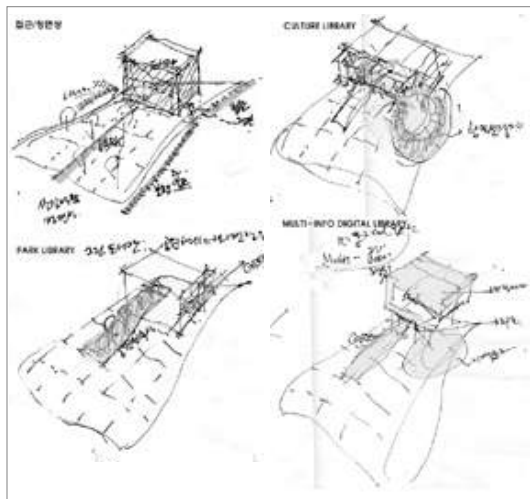
디지털도서관을 위한 USN환경을 위한 시스템적인 제안이공간적으로도명확히보여지길 원했고대공간의오픈스페이스로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프로그램과 정보의연결과이동경로를명확히보여줄것이다.

### Zoning / Identified Space

개방적, 활동적 정보교류의 장인 문화정보공간과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의 정보집적장소인 고전적 서가기능의 학술연구정보공간으로 조닝한다. 명쾌하다. 문화정보공간(1~2층)은멀티미디어와정기간행물로구성되며, 대공간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된 digital & culture street형태의 info - mall 공간으로계획한다... 현대적이다.

학술연구정보공간(3~5층)은 주제별 서가공간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오픈계단과 중정이수직적으로연속된전형적인방법을선택한다... 다소고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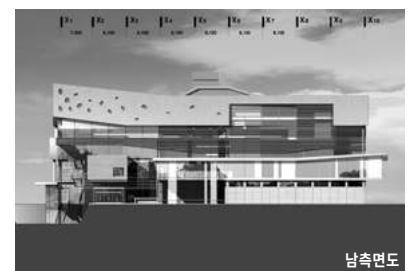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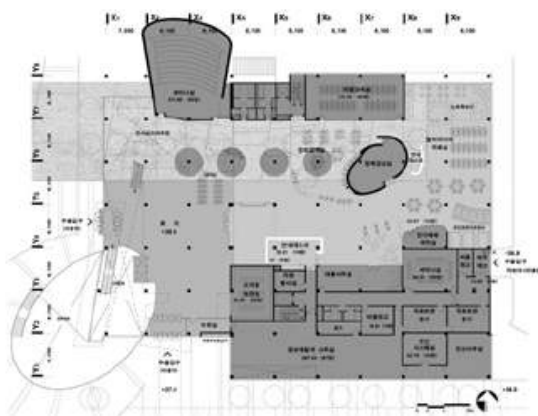
3층평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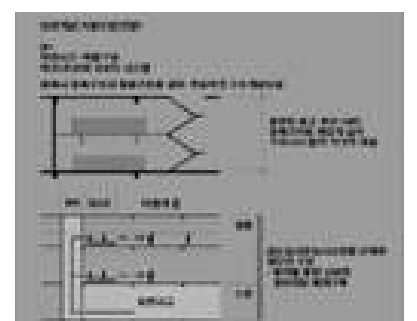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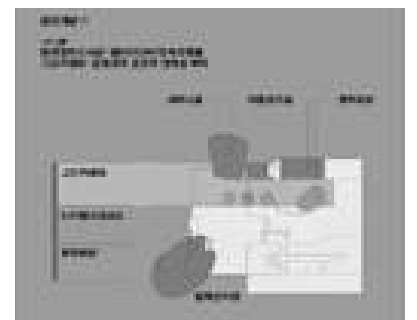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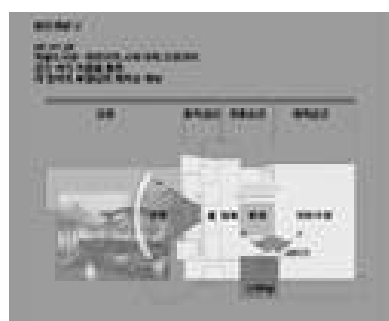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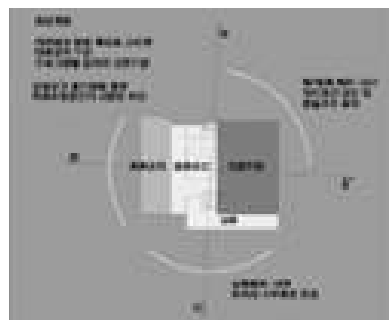
1층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지하1층평면도

## 전북대학교 BIC도서관

Chonbuk National University BIC Library

가작/ 종합건축사사무소토우재  
(김주석, 박원영, 나성호)

대지위치 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 664-14  
(전북대학교구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교육시설보호지구

주요용도 교육연구및복지시설

대지면적 18,935.0㎡

건축면적 4,600.1㎡

연 면 적 23,548.3㎡

건 폐 율 24.29%

용 적 량 124.36%

규 모 지하2층, 지상5층

발 주 처 전북대학교

설계담당 김현득, 정제춘, 김민규, 이치열, 신동윤

본계획안의시작은전북대학교에서이미설정한 BIC도서관의 위치와 계획의 범주내에서 기존 캠퍼스의 Network의 연결고리를 끌어내는것과전면의 Openspace조경계획의개념을어떻게 규정지어가면서건물의 기능과 상호 연결시키느냐가 Design의 주요 핵심 Factor였다. 더욱이좌우공대와농대의질서와 기존 지형이가지는 물리적, 자연환경적상황의재규정을 계획의시발점으로하고전북대학교 BIC도서관의미래적환경구상과기능적역할이구체화되어가는도중에메트릭스처럼풀어야될과제였다.

### SITE 접근방향

기존캠퍼스의물리적환경의제약을 Site의 시작점에 새로운 대학문화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건물로 직접접입시키는진입마당을다양한조경적연출공간을마련하여이어지도록하였으며북쪽은 기존 지형 유지하면서 위요와 동선의 시퀀스(sequence)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 SIT와도서관

Interaction이도서관의저층부에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각 예상 이용자의 흐름을 성격에 따라그대로형태화하여 조합됨으로 자연과사람과건물의상호작용이보다뚜렷하게이루어지도록하였다.

### 도서관과그이미지

BIC도서관의 첨단적 이미지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층부의 Mass를 띄워 올리고 미래도서관의첨단적이미지가한부분의요소나 요소의 조합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로 표현하고자하였으며이를통해 전북대학교의새로운상징성을만들고자하였다.

### 형태적이미지와기능

도서관은 기능이다. 그 기능적 효율성과 함께형태의이미지를유지하고내부환경의극대화를위하여중정을건물의중심에두었으며 각 실들의 내·외부적 환경을 모두 균일하게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정의 단면적 변화가각종 System의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함과동시에합리적기능성이유지되도록하였다.







지상2층평면도



배치도



지상1층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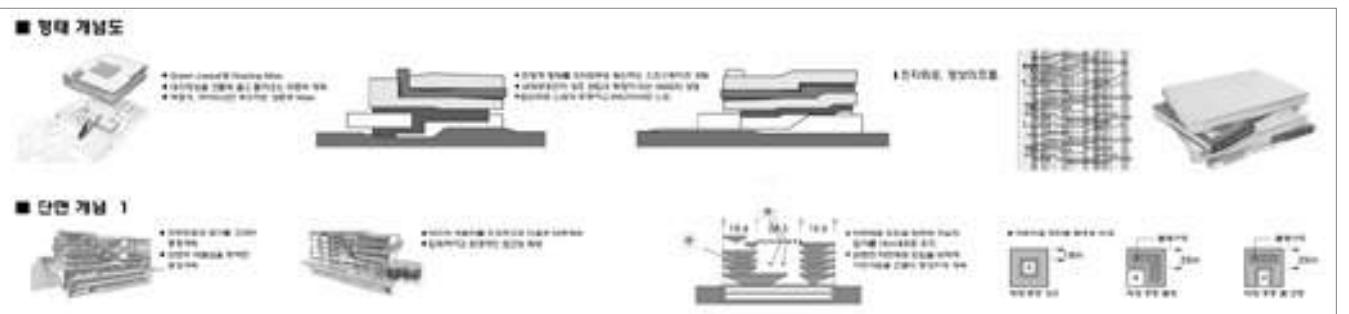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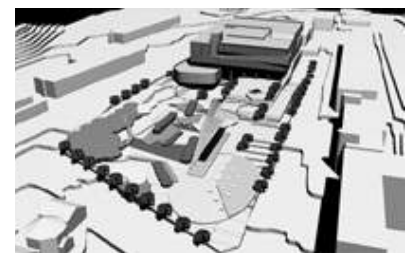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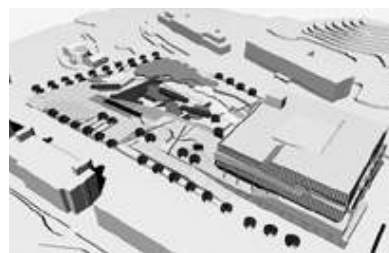
주단면도1



주단면도2



지하1층평면도



김 정 신  
단국대학교건축학과교수  
by Kim, Jung-shin

# 유럽 현대 교회건축 순례(下)

- 20세기 후반의 위기와 새로운 모색

Modern Church Architecture in Europe

## 제2차바티칸공의회와그영향

가톨릭교회를내적으로쇄신하고현대에적응시키며외적으로는문화를개방하여그리스도교세계의일치를촉진시키기위해소집된제2차바티칸공의회(1962.10~1965.12)는 거룩한전례에관한헌장(Sacrosanctum Concilium) 등4개의헌장과9개의교령, 3개의선언을발표함으로써현대가톨릭교회에대한세부적인지침을마련하였으며, 또한현대교회건축의방향을제시해주고있다. 그내용은현대적상황에대한교회와사회, 문화, 예술등에대한거의모든세부적사항을집대성한것인데궁극적인목표는“신앙을풍요롭게함”이었다.

공의회를소집한교황요한 23세가주창한2가지원칙은‘아조르나멘토(aggiornamento/up-date)’와‘파티시파티오악뚜오사(participatio actiosa/active participation)’이었는데이것은돌다교회의전례와건축에광범위한영향을주었다.

이미 20세기초전례운동에의하여평신도들의적극적인참여를고무하는성당내부공간의재배열움직임이있었으나제2차바티칸공의회를통하여전세계에공식화되고보편화되었다. 가톨릭성당에서는잊혀졌던세례대를부활하고, 회중석과제단사이의적극적인관계를추구하게되었으며, 이것이내부공간에영향을미쳐종전의긴회중석을지닌장방형평면에서벗어나게하였다. 그리하여 정방형 평면이 추고되고 십자어는 원, 타원형, 사다리꼴과 같은 평면까지 시도되었다. 전례의 기능에 성당 건물의 존재의미(raison d'être)를부여하는새로운신학관은‘form’학관은form follows function 이라는근대주의(Modernism)이넘이교회건축에서도합리적인의미를지닐수있게하였다.

## 다원주의시대와교회건축의위기

1970년대이후의유럽교회건축은다양성의시대를맞았다. 이미 1960년대부터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포스트 모던(Post Modern)건축의사조는 20세기 전반동안진행되어온모던건축의 합리주의, 기능주의, 그리고규범적건축의틀에서벗어나역사주의, 절충주의, 표현주의, 구조주의, 지역주의등다양한건축적개념들을 실험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는 전통과 역사를 부정하는 해체주의 건축까지등장하였다.

그러나복합기능공간으로서의교회는익명성과세속화로급속히 사양길로접어들었다. 교회의사회참여가너무중시되고세속화되어 인간의 존재 의미 및 ‘하느님과 의 재결합’이라는 종교의 근본 문제가 불분명해지고, 약한건축주와 함께성공의 절정을구가하였던 건축가들이 질 대신에 ‘게으른 타협’의 건축을 양산하였기 때문이다. 모더니즘 요소의 피상적이고 자의적인 혼합의 결과로 교회건축은 ‘허세부리는’ 유행적새로운절충주의로타락하였다.

## 교회건축의부활

그러나그들은탈이념과다원주의시대에대응한새로운건축개념을 교회건축의 역사성과 정통성, 토착성의 바탕 위에 모색함으로써 밀레니움(새천년) 전환기에 새로운 교회건축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많은교회들이문을 닫거나세속적인용도로전용되는 한편, 고속도로 교회, 휴양지 교회, 기념교회, 피정교회 탈교파교회 등 다양한 유형의교회가새로이등장하고있다. 그들이떠났던교회를다시찾는 데는 현대인들의 일상과 물질문명에서의 일탈과 피난욕구이다. 교회와성당은조용함, 명상, 자유, 최소한피난의, 오직 ‘다른’ 장소이다. 많은 건축사들은 역사적인 참조 대신에 인상적인 교회내부를 창조하였다. 다시 한번 고상한종교건축이 유럽의다양한지역문화의다양함을반영하고있다.

## 크리프톤대성당

(Cathedral Church of St. Peter and Paul, Clifton, Bristol, 1970~1973)

잉글랜드 서부 항구 도시인 브리스톨(Bristol)의 서북부 크리프톤(Clifton)에 위치한 성 베드로와 바오로 대성당(Cathedral Church of SS. Peter and Paul)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교회 건축 개념을잘 반영한성당이다. 1965년 설계를 의뢰받고서부터건축사와성직자, 신도들사이 에 새로운 교회 건축의 개념에 대한 진지

한논의가진행되었으며그과정은모두기록으로남겨져있다. 당시 제2차바티칸공의회(1962~1965)에서는가톨릭교회를내적으로쇄신하고현대에적응시키기위하여교회와사회, 문화예술등에대한 거의 모든 세부적 사항을 논의하고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전례 운동과 함께 과거 400년 동안 지속되어온 교회 건축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 성당내의 배열이 자유로워진 것이다.

설계의가장큰주안점은 900명의회중을어떻게그룹핑함으로써미사중적극적인참여와일체감을갖게할수있을까하는점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찬채플과 세례당의 위치 설정이었다. 들어오고 나가는회중의동선과의관련하에이주요부분의배열이디자인개념을구성하고건물의형태를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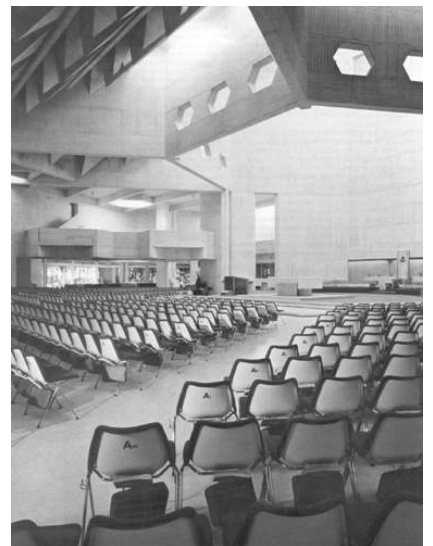
성당의접근은 두방향에서이루어진다. 부지의고저차를이용해 동측의테라스를(하부는주차장) 통해성베드로문으로진입할수있고, 서측의성바오로문으로진입할수도있다. 두개의진입문을통과하면 나르텍스(입구홀)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은 8,000여 조각의 판석 색유리를 에폭시 수지로 결합한 거대한 2개의 창에 의해 밝게 비춰지고있다. 보다긴창은 ‘오순절(Pentecost)’이라명명하였는데 예수 부활 후 50일에 강림한 성신을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환희(Jubilation)’로서 땅과 하늘과 바다가 서로 만나 뒤섞이는 탁 트인해변에서맞이한자유와행복의환희를표현하고있다.

신자는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따라서 세례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가족을환영하는사건인것이다. 이런이유로세례받은성당의 입구에놓였다. 물론제대와직접적인관련을맺을수있고교회중이볼수있는곳이다.

네이브의좌석은성단주위3면으로둘러배열되어있는데어떠한 좌석도 제대로부터 15m 이내에 놓이지도록 했다. 좌석은 전례뿐만 아니라 비전례적인여러 활동에적응토록 이동가능하다. 네이브 주위의 유보랑(ambulatory)에는 14처가 콘크리트 벽체에 얹게 부조되어 있다.(한면을 조각한스티로폼을 거꾸집안에대어 콘크리트를



크리프톤대성당-외관



크리프톤대성당-내부



타설하여제작하였다.)

성단은 대성당에서 거행되는 어떠한 성찬식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으며, 주제단(high altar)은 회중과 사제들의 가운데 드러나도록 성단의 앞쪽에 놓여있다. 성단의 맨뒤쪽에 사제석으로 둘러싸인 주교좌가 위치하며, 성단 상부의 채광창(lantern)으로부터의 빛이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거친 표피에도 불구하고 내부공간을 온화하게 만들어준다.

성찬채플은 개인기도와 평일 미사가 거행되는 곳이다. 주 제단과 연결된 성찬 채플의 코너에 스테인레스로 만든 감실이 있는데 네이브에서도, 제대에서도, 그리고 채플내에서도 보이는 우월한(교묘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바로로문 우측에 마리아 채플이, 성단 우측에 오르간과 성가대석이 위치하며 그 너머 벽으로 구획된 제의실이 있다.

## 바우스베아교회당

(Bagsværd Church, Bagsværd, Denmark, 1974~1976)

코펜하겐 교외 바우스베아(Bagsværd)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바우스베아 교회당은 요른 웃존(Jørn Utzon)의 명성을 입증케 하는 또 하나의 걸작이다. 웃존하면 그 거대한 쉘 형태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1957~1973)가 이미 떠오른다. 그러나 그처럼 거대한 구조 형태가 간단한 설계경기의 스케치에 기초할 수 있다는 잘못된 구상으로 찬사와 함께 결국 많은 논쟁과 비난을 받았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는 너무나 다르다.

웃존(Jørn Utzon)은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케이 피스키(Kay Fisker)와 스티인 에일러 라스무센(Steen Ejler Rasmussen)이 있었던 왕립 예술 아카데미에서 수학한(1937~1942) 후스톡홀름의 군나르 아스프룬드(Gunnar Asplund)사무소(1942~1945), 헬싱키의 알바알토(Alvar Aalto)사무소(1946), 그리고 프랑크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탈리아신(Taliesin)(1949) 등에서 수련하였다. 따라서 처음부터 건축을 유기적인 것으로 이해한 그는 이러한 대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를 더욱 성숙시켰다.

웃존에 의하면, 1930년대의 기능주의는 형식으로 일관하여 종말을 고했고, 전쟁이 원인이 된 고립과 구속 때문에 생겨난 1930년대의 전통주의는 이 시대의 기술 및 과학의 발전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진보적인 건축이란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재료는 그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한다. 웃존에게 있어 건축 형태는 건축사에 의해 결정되는 최우선의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존재와 인간 활동을 담는 유기적 실체이다. 자연의 형태와 재료를 반영함으로써 유기적 건축은 인간을 그들의 자연 환경과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설계한 최초의 교회 건축인 바우스베아교회당(1974~1976)은 일견 성벽이나 곡물 엘리베이터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바우스베아의 간선 도로에 접한 폭 40m, 길이 100m의 장방형 부지에 필요한 시설을 수용키 위해서 길쭉한 건물 이 될 수밖에 없었고 도로의 소

음을 차단키 위해 교회는 도로를 등지도록 돌려서 배치하였다. 도로 반대편 남쪽과 서쪽으로 다양한 단면의 입구가 놓여지도록 개방되어 있는데 전체를 2.2m 정방형 모듈의 질서 원칙에 따라 구성하였다. 서측 주입구로부터 전정(4×8m), 전례공간(10×10m), 중정(3×8m), 미팅홀(4×6m)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여러 공간들이 배열되고 1모듈(m) 폭의 복도가 이들을 연결, 통합한다. 한쪽 끝에 작은 장방형 채플이 있는 전정을 통해 교회로 들어서면 밝은 나르텍스가 있는 데 전례공간에 들어가기 전의 예비공간이자 내외부를 연결하는 매개 공간의 역할을 한다. 교회당 내부의 회중석은 성찬 테이블과 세례반, 강론대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회중이 모일 수 있는 길이보다 폭이 넓은 장방형 평면이며 유공 블록으로 구획된 제대 뒷부분은 제의실과 고백소가 위치한다. 고정석과 2층 갤러리를 합쳐 350인의 수용이 가능하다.

이 교회의 특징 중의 특징은 내부 공간의 빛이다. 구름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높고 낮게 파도 치는 듯한 볼륨이 웃존다운 조형성의 자태를 보여준다. 두 개의 큰 보울트가 서로 겹쳐지는 16m 높이 상부의 큰 창(일부는 감추어진)으로부터 쏟아지는 빛이 주간에 옅은 회색으로부터 찬란한 금빛으로 변화한다. 때때로 제대 상부의 보울트 면에 구름의 그림자가 반영되기도 하며 양측랑(aisle)과 제의실의 천광도 역시 변화하는 색채 - 전체가 푸른색일 때도 있고 보라색일 때도 있다. - 를 연출한다. 인공조명은 연한 자연광과는 대조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연출이다. 조명 기구는 돛쇠파이프에 4인



바우스베아교회당 - 전경



바우스베아교회당 - 내부

치 간격으로 전구를 노출시켜 일렬로 부착시킨 것이고 이것으로 실내는 더욱 부드럽게 연출된다.

외벽은 회색콘크리트 패넬로 덮혀있고 표면은 연출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붕은 전기도금한 금속패넬인데 이것들 모두가 외광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여 건물 표정을 바꾼다. 옷조는 그의 첫 교회 설계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함, 진실성, 순수성이란 종교 건축의 근본 테마에 훌륭히 접근하였다. 전통적인 계단상 박공지붕과 스칸디나비아 교회의 모조 보울트 의의역, 거푸집의 목리문, 절묘한 장인술 등에서 민족적인 반향과 함께 일본 토착 건축에 대한 전후 덴마크인들의 열정에 대한 반향을 읽을 수 있다.

### 성크리스토퍼고속도로성당

(Autobahn Kirche St. Christoph, Baden-Baden, 1976~1978)

남부독일의 주요고속도로인 E 35번도로를 달리다 보면 바덴바덴(Baden-Baden) 부근 휴게소 근처 황량한 벌판에 우뚝선 피라밋이 오가는 여행자와 운전자의 눈길을 끈다. 이것이 여행자의 수호신 성크리스토퍼(St. Christoph)에 봉헌된 고속도로 성당(Autobahn Kirche, 1976~78)이다.

특이한 상징체계와 매혹적인 내부공간을 갖춘 성당으로부터 신의 부름이 숨가쁘게 질주하는 여행자에게 다가온다. “잠깐 멈추고 쉬어가거라! 여기서 너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라! 너의 생활과 일에 대한 의미를, 너의 슬픔에 대한 위안을, 그리고 일상 스트레스로부터 평화를, 새로운 출발을 위한 힘을 찾아라!”

이전에는 교회라도 시나 촌락의 심장이요 중심을 이루었으며 지나가는 여행자들은 반드시 그 교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위대한 고속도로는 도시를 빠르게 연결하고 교회는 주요한 교통의 흐름에서 멀리 벗어나 있게 되었다. 기동화(motorization)의 전반적인 증가의 결과로 스피드의 시대를 맞게 되었고, 주행 중인 사람들에게도 종교적인, 정신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고속도로 교회는 여행자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운전의 스트레스에서 묵상과 심신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로상에서의 생명의 위험성을 항상 환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사고가 정신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에 걸맞게 바덴바덴의 고속도로변 성당은 몇 가지 독특한 건축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첫째는 이 성당의 디자인이 전통적이 교회 건축의 양식에서 벗어남을 반영하였으며,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설득력 있는 종교적 상징체계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셋째, 건축사와 예술가(조각가, 스테인드글라스 아티스트)의 완

벽한 협력과 조화가 전설적인 수호자 성크리스토퍼(St. Christoph)를 딴 것이다. 소의 아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성크리스토퍼는 옛부터 도로상의 모든 위험 - 강도, 맹수, 매서운 날씨, 기술적인 실수와 인간의 미숙함 등 - 으로부터 여행자를 도왔던 모든 이들의 상징으로서 모든 종교 신앙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왔다. 높이 20m에 달하는 피라밋형 성당은 평탄한 주변을 지배하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한다. 3개의 단(기단, 창, 지붕)으로 뚜렷하게 분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거대한 모노리스(monolith)의 인상을 준다. 피라밋 형태는 고대 이집트의 성소를 생각나게 하는 동시에 거대한 텐트, 하늘의 피난처로 보인다.

전체 콤플렉스의 기본 아이디어인 십자가는 외곽에서부터 뚜렷하다. 십자가 형태는 옛부터 인간 구원의 표징이며 신성과 우주 자체의 상징이다. 어떠한 표징도 고속도로 성당의 의미를 보다 잘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4개의 가로에 의해 형성된 십자가의 교차점이 바로 이 지역의 심장이며 여기에 성당 자체가 서 있다.

전체 콤플렉스의 기본 형태인 방형 십자가는 대각선 십자가(소위 말하는 St. Andrew's cross)와 병치되어 있다. 대각선 십자가는 4개의 모퉁이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4개의 지보에 의해 만들어진 다. 이 2개의 십자가가 교차점의 정점에서 통합되며, 성당의 수직적인 배열에서 지하 경당(Crypt)의 제단과 주성당의 바로크 십자가가 바로 이 지점에 자리잡는다.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따르면 방형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요 대각선 십자가는 사도들의 십자가이다. 이러

1. 고속도로성당 - 내부  
2. 고속도로성당 - 전경  
3. 고속도로성당 - 노아기둥



한상징의통합은콘크리트조각과스테인드글라스에서 효과적으로 표현된광범위한이미지에서나타난다. 현저한실제로4개의거대한 콘크리트 지지보의기저에 4복음서자의 상징 - 마르코의사자, 마태오의인간, 루가의황소, 요한의독수리 - 이놓여있다.

성당의내부는혼자혹은단체로신과함께할수있는집회의장이 다. 미사의기능뿐만아니라모든피조물이구원의불가해한신비속에통합된다는것을드러내보이는사인으로서봉사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성스러운전례가주로 행해지는상부의 주성당과주로 개인적인봉헌을위한하부경당의나눔에서표현된다. 각부들은각기특별한성격을갖는다.

지하경당(crypt)의8각형태는상층성당의정방형으로부터나왔다. 방문객은창이없이콘크리트부조로벽과천장이온통덮인압도하는경험을맛보게된다. 그것은진정교회와심장이요중심이다. 묵상과 기도, 성찬에의 진실한참여를 위한 준비, 작은집회를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지하경당은 건축과 조각의 상호 협력과 의존의 탁월한실예이다. 이러한관점에서이부분은이성당의가장뛰어난부분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분절된 공간 개념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콘크리트부조는뛰어난잠재력과표현성을발휘하고있다.

상층의 성당은 약 400m<sup>2</sup>의 정방형 평면에 피라미형 천장으로서 어두운 경당과 대조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반투명의 콘크리트 창(beton - glas) 사방으로연속되어있어 색유리를 통해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이광벽은 성당내부를 반짝이는투명의 공간으로 만든다. 피난처의 피막인 동시에 외부세계와의 연결이다.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외하면오직 나무, 천연 스테이트, 콘크리트의 경제적인 사용이 인상적이다. 풍부한콘크리트의부조는형틀 작업에의해 이루어졌다. 조각가는폴리스칠렌에다장식적인형태와형상을음각하고이것을목재거푸집 안쪽에붙여콘크리트를친다음거푸집과 함께 제거함으로써 양각의 부조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작업과정은 이전에 없었던건축사와조각가, 현장인부간의 긴밀한협력을 요구하였다.

모든계획과장치의기본목표는적합한배경속에완전한건물을 창조하는데 있었다. 아름답고고귀한 신의집인 동시에가능한 많은 사람을끌어들이고지속적인인상을주는교회가바로그것이었다.

3개의 출입문은내외부에아나멜의 정교한장식으로마감되어 있다. 특히동쪽출입문의화려한장식은특별한미사가야외에서봉헌 될 때 제대의 배경이 될 수 있다.(성당외곽의 잔디밭은 수백명의 집회를 수용한다). 4방향의 진입로에 각기 탐처럼 서있는 기둥(pillar)은 성당의 경역을 표시함과 아울러 공간과 시간의 강한 상징 체계를 이루고있다. 각각의 기둥에는사방이 콘크리트부조로 장식되어 있는데신과 인간의전 역사를 조명하고있다. 아담과이브, 노아와요이우리에게직접이야기하는것같다.

동쪽의 기둥은 노아(Noah)로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가 주제이며, 남쪽의 기둥은 모세(Moses)로서 “신과사회, 자유와율법”이주제가된다. 그리고서쪽의기둥은세례자 요한(John)으로 “우리는 어디로가는가? 세례와심판”이주제가되며, 북쪽의기둥은엘리아(Elijah)로서 “개인과힘, 인간권리와공

포의 상징 이 주제가 된다. 이러한 이름들은 결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지리적인방향과역사적인물들의행위의장소와일치한다. 마치그들의배열이세계로의관문이되는바꿀수없는평면(십자가)을 반영하듯인류의역사를대변하고있다.

## 자비의성당

(Chiesa Di Beato Odorico, Pordenone, 1990~1992)

이태리의 베니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km, 알프스 산맥이 막 끝나는작은도시포르테노네(Pordenone)에위치하고있다. 스위스의 유명한 건축사 마리아 보타(Mario Botta)의 설계에 의하여 1992년에완공되었는데지금에이마을의명소로자리잡고있다.

낮은 아파트 단지 내의 모서리에 위치한 단순 명료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성당으로 마당을 ㄷ자 형태로 둘러싼 정사각형 회랑과 원뿔 형태의성당, 그리고회랑바깥쪽의부속동으로구성되어있다. 회랑 밖 한 귀퉁이의 분수대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꾸불꾸불한 대리석 바닥의 수로를따라 마당중앙의연못으로흘러들어가 있다. 회랑은 두개층인데1층은피로티사이로도시와성당을연결하는매개체의 역할을하며, 2층은높은난간벽에의해하늘을향해서만열려있다.

성당의 내부는 부드러운 벽돌의 질감과 함께 원뿔의 끝에 잘려나간천창을통해연출되는빛의음영으로신성함을더해주고있다. 제단은중앙의대리석제대를중심으로좌측에독경대, 우측에원형세



자비의성당 - 내부



자비의성당 - 외관

레대가 위치하며, 그 오른쪽 벽체안으로 감실과 성모자상의 그림이 걸려있다. 원뿔형태의 내부공간은 음이반사·보강되어 소수의 성가대로서도 풍성한 음을 연출하고 있다. 제단 하부 지하에 평일 미사가 봉헌되는 소성당이 있으며 선큰으로 오픈되어 자연광이 떨어진다.

## 에브리대성당

(La cathédrale d'Evry, Evry, 1988~1995)

파리 외곽 위성도시인 에브리에 마리아 보타(Mario Botta, 1943~)의 설계로 건축된 주교좌성당이다. ㄷ자형태의 긴 교구 센터의 3층 건물의 한쪽 끝에 왕관형태의 옥상 테두리를 올린 원통형태의 대성당이 위치하고 있다. 창이 연속적으로 패턴화된 긴 벽돌 건물의 파사드 끝이 무뚝뚝한 면으로 분절되고 여기에 직경 34m, 높이 17m의 기념비적인 원통형 대성당이 연결되는데 ㄱ자형태의 코오벨로 접어들어 간 곳이 주출입구이다. 대성당 옥상의 큰 왕관과 같은 링은 에버리시의 통일된 디자인의 하나의 한 부분이며 중세 도시조직의 핵을 떠올리게 한다.

주출입구 현관을 지나 완만한 계단식 경사로로 된 회랑을 돌아 내려가면 성당 레벨에 도달하게 되고 주출입광장보다 1.5m 낮은 중정에서 바로 접근되는 부출입구와 만나게 된다. 부출입구는 눈썹아치와 상층 출입계단으로 구성되는 상징적인 요소에 의해 중정의 입구로서도 강조되고 있다. 회랑 내부의 복도는 창의 리듬과 좁고 긴 개구부에 의해 조절되는 원주의 움직임이 통째로 성당 내부 공간을 매우 독창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새롭고 독특한 공간, 이 회랑은 고대에 그 기원을 갖고 있으며 로마네스크 교회의 측랑이나 15·6세기 돔형 집중식 성당에서도 보이는 것이다. 회랑 공간은 네이브의 큰 공허부를 돌아서 바깥의 나무가 심겨진 원형 크라운으로 오르는 보도로 종루까지 확장된다.

도시경관의 무한한 다양성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대성당의 침탑 사이의 테라스처럼, 이 오르는 통로는 공중에서의 도시조망을 계속 변화시키며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연속적인 대화를 강조한다. 자연의 상징적인 아이디어가 인공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능가하였는데 왕관 둘레 옥상의 나무가 삼각형 보울트 천장의 양사이드의 큰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강렬한 빛을 조절하기도 한다. 나뭇잎사귀의 움직임, 색채의 변화, 빛과 그림자의 연출 등을 통해 빛을 필터링할 수 있다.

빛은 내부공간을 해석하는 기본음이 된다. 큰 해시계처럼 시간의 경과를 표시하는 벽돌 가로줄의 배열의 표면질감 위에 그림자가 연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제단 상부 벽의 볼록 나온 부분은 빛에 의해 서서히 드러나는데 이곳은 성미술을 보관하는 거대한 별집이다. 건물의 모든 부분을 마감한 벽돌의 질감 조절 기법은 보타 건물에서 가장 풍부하고 정교하다. 벽돌은 바깥의 인접한 건물과의 연속성을 회복하였으며, 공공광장은 내부로 자연스레 끌어들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 맥락에서 성스러운 영역으로 만들었다.

벽돌의 선택은 다양한 건물의 통일된 이미지를 고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동시에 재료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통해 미래의 도시를

특징지를 균질의 모습을 제안함으로써 건물의 인간적인 가치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어떤 경우라도 거대한 원형 볼륨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는 인간적인 도시의 메시지로 남아 있다.



에브리대성당 - 전경



에브리대성당 -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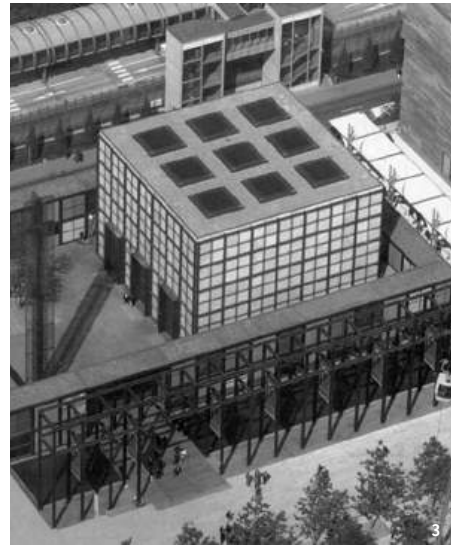
## 계약의 궤의 성모성당

(Notre-Dame De L'ARCHE D'ALLIANCE, Paris, 1996~1998)

70년대에 재개발된 파리지역의 작은 근린공원에 위치한다. 12개의 지지기둥에 의해 들어 올려진 상자형태의 건물은 공사장의 가설비계 같은 스테인레스 격자 프레임이 감싸고 있는데 결코 끝나지 않는 개념의 교회 가사방으로 퍼지는 것들은 유할뿐만 아니라 이곳에 조각과 그림을 전시할 수 있어 종교와 문화의 계약을 상징하고 주변 환경과의 융합을 표현하고 있다.

1층은 공원으로 대부분 개방되어 있고 성당은 지하와 2~5층에 배열되며 최상층에 사제관이 있다. 성당의 내부공간은 피라미트 형태의





1. 계약의계성당  
2. 계약의계성당- 내부  
3. 엑스포2000 교회관-전경  
4. 엑스포2000 교회관- 내부  
5. 엑스포2000 교회관- 회랑



희랍십자형구성으로회중석이 ㄷ자형태로배열되어한층바닥면적이 불과 180㎡에 불과한 작은 면적의 평면임에도 불구하고 2층 갤러리까지 합해 350명을 수용한다. 구조형태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상자형태이기 때문에 잔마리루스티거(Jean-Marie Lustiger) 추기경은 “도시의 방해로부터 보호되는 현대 종교를 위한 장소”로 인식하고 ‘계약의 궤’라 명명하였다. 이 형태는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성스러운 도시이다. 건물 재료의 외부 마감은 ‘아베 마리아’가 황금색 글씨의 불어로 실크스크린된 나무조각과 합성수지(TRESPA)로 만들어졌다.

종탑은 45m 높이의 원통형 구조물인데 불투명 구성물 자체가 바로 종이다. 성당 진입은 옥외계단을 통해서, 그리고 1층 세례당을 통해서, 또 리셉션 홀의 내부 엘리베이터 등 3가지 루트이다. 세례당을 통한 출입은 세례의 의미를 떠올리며 이웃과 성당의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4개의 유리 슬라이드가 세례대에 위치해 빛이 떨어지게 한다. 세례대는 Tassos 마블로 희랍 십자가 형태의 대야를 넣은 8각 형태이다. 8각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며 또한 주의 첫 번째 날을 상징하기도 한다. 두께는 나무와 스틸로 제작되었다.

세례당의 계단을 통해 성당에 올라오면 성소를 만나게 된다. 벽은 외벽과 같은 (문자 실크스크린은 없이) 재료로 가죽색깔이다. 귀중한 상자의 내부. 슬레이트 바닥에 흰색 마블의 제대가 놓여 있다. 성당 내부는 좌우 고창의 스테인드글라스창(하나는 계약 궤 앞에서 춤추는 데이빗, 또 다른 창은 엘리자베트의 마리아 방문. 연도시의 성모 마리아, 그리스도의 어머니) 외에는 일체의 장식 없이 비어 있으나 매우 조화롭다.

감실은 앰프로 들어간 내진 벽에 위치하는데 길쭉한 상자 형태로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금이 덮여 있는데 계약의 궤를 회상케 한다. 감실 위에 십자가 빛이 2층 갤러리에서 두 개의 프로젝트로 투사된다.

## 엑스포2000 교회관

(Der Christus - Pavilion, Expo. 2000 Area, Hannover, 1999~2000)

2000년 하노버 Expo의 교회관은 교회 건축의 새로운 정신과 표현을 보여주었다. 전체 42m×51m의 주어진 평탄한 대지를 주변의 각국 전시관의 번잡한 소음으로부터 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 측 진입 경계에 철골 프레임의 회랑과 물(해자)을 두었다.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직사각형 형태의 대지(전체 11모듈×17모듈) 둘레로 다시 회랑을 두르고(통로 폭 1모듈), 회랑 내부의 북쪽 절반은 교회당, 남쪽 절반은 아트 리움(중정)으로 구성하였는데 아트 리움의 한 쪽 코너(입구 쪽)에 십자가 탑을, 그리고 반대 쪽 코너에는 나무 한 그루와 작은 키오스크, 벤치를 두었다.

교회당은 21m×21m×18m(높이)의 입방체인데 9개의 철제 십자가형 기둥이 지지하는 철골조에 벽체는 반투명 유리 패널로 되어 있

다. 정사각형 공간 가운데를 중심으로 기둥이 6m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단(강단)은 중심을 벗어나 위치하며 제단 앞에 불과 30석의 벤치가 1스판(6m×6m) 안에 배열되어 있을 뿐(엑스포교회관의 특성상 많은 좌석이 필요없다) 나머지는 다용도로 활용될 수도 록 되어 있다. 특정한 종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범그리스도교 일치 를 위해서 제단, 십자가, 독경대는 단순한 형태로만 들어 있다. 9개의 기둥 상부에 난 9개의 천창과 사방벽의 반투명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부드럽고 온화한 빛은 교회당 내부 를 자유스러운 빛의 영역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이 교회당과 외주 회랑 사이에는 1 모듈 폭의 부공간이 좌우 및 후면으로 배열되는데 한 칸씩 걸러서 지하경당(crypt) 연결계단, 기도실, 전시실, 리프트 등 여러 기능실들이고 나머지는 본당과 회랑과의 연결통로이다. 이 기능공간은 매우 작은 공간들로서 때론 정적이고 사색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

외주 회랑은 1모듈 폭(3.6m)에 높이 2모듈(7.2m)인데 벽면은 이중 유리의 전시패널로 채워져 있다. 3.6m×3.6m 크기의 전시패널은 열처리된 2중 유리 속에 각 단위 모듈마다 다양한 재료, 예를 들면, 곡식이나 열매 등의 자연물, 안경, 전구, 핀셋, 직물 등의 생활용품, 톱밥, 폐품 등의 수집물을 채워 넣어서 만들어졌는데, 아트리움과 교회당을 면한 부분에는 한 칸 걸러서 통로로 오픈되어 있거나 대리석, 투명 또는 반투명의 소재로 채워져 있다. 이전시와 과정적 공간의 역할을 하는 회랑은 엑스포 2000의 주제인 ‘환경보존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새밀레니엄 첫 축제인 ‘하노버 엑스포 2000’의 주제는 전지구인의 관심사인 환경문제, 바로 ‘인간, 자연, 기술’(Mankind, Nature, Technology)이다. 170여 개의 나라와 기관이 참가한 이 엑스포에는 50개의 파빌리온이 새로 지어졌는데 그 중에서 교회관의 개념이 엑스포의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즉 기술을 통해서 자연과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인간의 모색, 그럼으로써 지속가능한(subsustainable) 지구촌의 사회, 문화, 환경을 유지한다는...

설계자 메INHART 폰 게어칸(Meinhart von Gerkan)과 요아힘 자이스(Joachim Zais)는 건축적인 흥미와 격조 있는 하나의 통일된 구조 형태로 ‘시대를 반영하는 시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구조와 명료한 디테일’, ‘적은 재료에서 나오는 많은 상징적 의미’, ‘공간의 한정과 불변하는 형태’로 구현하였다. 극히 자제되고 간소화된 재료로 엑스포 2000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예수성심성당

(Herz Jesu, München, 1996~2001)

뮌헨시 주택가에 위치한 거대한 유리상자의 예수성심성당은 극단적인 모더니스트의 무미건조하고 날카로운 독특한 성명, 또는 호화로운 저택이나 하이테크 센터 같아 보인다. 성당의 평면은 긴장방형인데 목재 루버로 된 내벽이 주전례 공간을 둘러싸고 그 둘레에 회랑,

그리고 유리외벽이 다시 감싸고 있는 상자형태의 단순 명료한 건물이다. 신자석은 400석이나 정면의 거대한 문이 열리면 전례 규모는 광장의 수천 명까지 확장된다.

외벽의 직사각형 유리박스는 철골조 격자들에 의해 지지되는 16m 높이의 투명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면은 골조를 제외하고는 피봇 힌지로 작동하는 거대한 성문같은 한 쌍의 유리문이 거의 차지한다. 이 문의 개폐는 날씨와 봉헌되는 전례에 따라 조절되며 문의 안쪽 귀퉁이에 평일과 사적인 출입을 허용하는 일상적인 문이 설치되어 있다. 정문이 완전히 활짝 열리면 전실과 광장이 결합되어 공간의 연속을 창조하며 수천 명을 환영하는 장을 형성한다. 정문은 실크 스크린 기법을 이용하여 ‘못’ 형태를 테마로 한 청색 톤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설형 문자와 유사한 ‘못’ 형태는 요한복음 18~20장의 예수 수난 이야기를 써넣은 것이다.

유리박스의 내부는 다시 단풍나무 루버형식의 자립형 패널로 된 내벽으로 성소 공간을 둘러싸고 있으며 외벽과 내벽 사이의 회랑은 십자가의 길에 배치한 완충 공간인 동시에 냉난방 및 환기를 위한 설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성소 공간의 얇은 단풍나무 패널을 사용해서 얻는 미묘하고 위로 오르는 느낌은 고딕 보울트와 유사하다. 루버 사이의 공간은 수평적으로 증가되고, 제대에 접근하면 골조 사이 사이에서 스며들어오는 빛의 양이 확장된다. 그러므로 마치 대성당의 돔과 장미창이 빛을 집중시키듯이 자연광의 절정이 제단에 떨어진다. 제단 뒤에는 ‘툼박(tombak)’으로 만든 십자가가 있다. 이 재



예수성심성당·전면



예수성심성당·내부

료는 동과황동의 혼합물이다. 십자가부분과 나머지부분의 방향을 달리하여 광선의 투과효과로 십자가상이 드러나게 한다. 정문의 유리창살도 십자가 모티프이며, 건축사의 설명에 의하면 바로 주의를 끄는 도상보다도 두 번째 응시에서 비로소 지각되도록 의도하였다. 성당전체를 예수님몸으로 간주하여 손, 옆구리, 발목에 해당하는 위치의 성당바닥에 예수의 오상(五傷)이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는 작은 유리창을 통해 비데오테잎에 의한 3단계의 영상(못을 댐, 못을 박음, 상처에서 피와 물이 흐름)이 전개된다. 제대, 독경대, 사제석 모두 흰색 대리석이며, 동일한 흰색 대리석의 사각형 세레대는 입구 가까이 중앙 통로에 놓여 있다. 음향을 위한 스피커는 루버 사이에 매입하여 표시하지 않게 하였으며, 조명역시 내벽 상부에 집중하였다.

이 건물은 단순히 종교기능(가톨릭 전례)을 담는 유리박스가 아니라 건축사알만 사틀러 와프너(Allmann Sattler Wappner)가 지칭하듯 'crystalline materiality'를 만드는 투명성과 고도로 순화시킨 은폐시스템이다. 특별히 고안된 유리패널 시스템은 약간 불투명한, 고도의 열효율기능을 가졌으며, 수직유리조각이 수평유리조각의 하중을 지탱하고, 풍압에 저항하며, 따라서 철조는 매우 가볍게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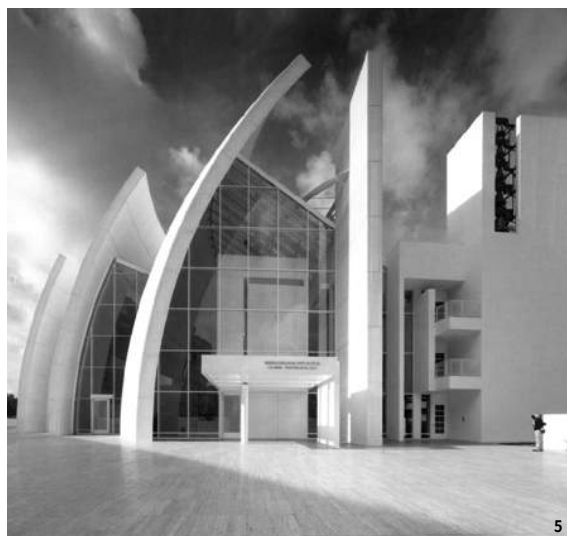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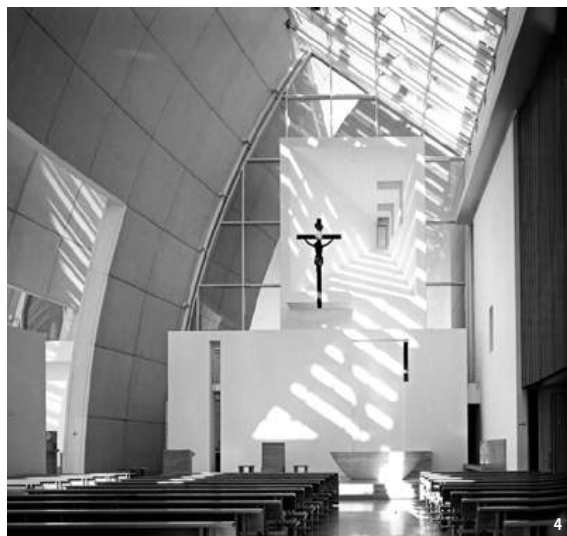
있다. 그렇게 하여 투명성을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이성(reason)과 신앙(faith)이 존재하는 공간이 되었다.

### 오순절의 성모성당

(Eglise Notre-Dame-de-la Pentecote, Paris, 1997~2001)

20세기 후반에 건설된 파리 서서측외곽신도시 라데팡스(La Defense)의 그랑아크의 주 광장에 면해 있다. 대지는 하부에 대형버스터미널이 있고 두 개의 지하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 삼각형이다. 주변의 거대한 고층빌딩과 대면하고 있는 불과 150 여석의 작은 성당이지만 스스로 창조한 스케일과 빛의 효과를 강조한 비물질의 건축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다.

외관은 건물의 전면이 막혀 있으나 유리소재로 밝게 빛나도록 하였고, 십자가가 있는 35m 높이의 정면 유리탑만이 오직 성당임을 암시하고 있다. 1층은 안내와 사무실 홀이며 2층에 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내부계단을 통해 남동측 코너로부터 접근할 수 있고 외부계단



1\_ 오순절의 성모성당 2\_ 오순절의 성모성당-제대 3\_ 오순절의 성모성당-내부 4\_ 주베리성당-내부전면 5\_ 주베리성당-외관전면

을 통해 제단 좌측의 홀을 통해 접근할 수도 있다. 성당의 평면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제단을 중심으로 ㄷ자형으로 신자석이 배열되어 있으며 독경대는 가운데 통로의 중심에 제대와 마주보고 있고 감실은 제단과 떨어져 독립되어 있다.

성당 내부는 세 벽면이 막혀있고 오직 식물의 형태로 장식된 제단 벽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우유빛으로 충만한 현대 예술작품의 성미술과 적당한 크기로 인해 성스러운 명상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

설계자 프랑크 아무텐(Franck Hammoutehe, 1954~)은 그랑 야크, CNIT, FIAT 사옥 등 현대 건축물로 잘 알려진 파리의 명소라 데팡스의 장소성을 잘 이해하고, 어떤 프로젝트보다 형태, 재료 선택이 자유로운 종교 건축에서 종교적 의식과 감흥을 줄 수 있는 건축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성공하였다.

## 쥬비리성당

(Jubilee Church, Tor Tre Teste, 1996~2003)

2000년 밀레니엄을 기념하고 쇠퇴해가는 로마 근교 주거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 로마 대교구가 국제 현상설계경기를 통하여 지은 성당이다.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프랑크 게리, 안도 다다오, 피터 아이젠만, 쿼터 베니쉬 등이 참가한 설계경기에서 채택된 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 1934~)의 성당은 21세기의 첫 기념비적인 성당

건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대지는 로마 근교 톨트레테스테(Tor Tre Teste)의 주거지역으로 서인접한 10층 아파트가 부채꼴로 열린 초점에 위치한 삼각형 대지이다. 성당의 서쪽에 남북으로 길쭉한 주차장, 북서쪽에 레크레이션 코트, 성당 전면 동측과 남측에 공중 집회를 위한 광장을 배치하고 건물의 남서측에 인접하여 반사판을 두었다. 이 반사판은 세례의식을 떠올리게 하며 조용한 옥외 명상 공간을 제공한다.

기본적인 형태는 직경이 같은 3개의 순백색의 곡면 셸과 사이사이의 투명 유리로 구성된 성당, 그리고 여기에 연결한 사각형 박스 형태의 사제관 및 커뮤니티 센터인데 3개의 곡면 셸은 각기 독립된 출입구를 가진 주 전례 공간, 세례당, 채플을 분절하고 있다. 마이어가 지적 하길 3개의 곡면 셸은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곡면 셸의 초점은 돔 또는 첨탑의 효과에 근접하며, 벽 사이의 유리는 크리어 스토리에 해당하고 벽의 수직과 곡면은 고딕의 아치를 연상케 한다. 또한 작은 벽은 플라잉 버트레스로 읽힌다.

벽과 바닥에 많은 십자와 비스듬한 격자 음영을 투사하는 내부 공간은 콘크리트와 유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친밀하며 266명을 넘지 않는 신자수에 적합하다. 마이어는 벽과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음영으로부터 극대의 효과를 얻는 기회를 순수한 흰색 표면에 의해 달성하였다.

이 건물은 리처드 마이어의 명성과 동의어가 된 익숙한 순백색에서 출발하였으며 성스러운 공간의 창조를 위해 혁신적인 사고를 표현하였다. 



김 석 환  
터·울건축사사무소  
by Kim Seok-hwan, KIRA

# 일매헌(一梅軒)

Ilmaecheon

나는 2003년 10월 이곳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1966년도에 지어진 구옥을 용자와 세를 안고 사서 수리해 쓰고 있다. 당시 살 엄두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단독 특유의 체취와 위치가 마음에 들어 빗을 내구입했다. 요새 짓는 건물들의 편리한 점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그런 건물이 주는 편안함이 있다. 이런 구옥은 작은 마당이라도 있고 건물과 담장 사이에서 골집 헛간 같은 공간도 마련할 수 있어서 마땅히 두기 어려운 물건을 숨기듯 정리할 수도 있다.

내가 이곳을 알게 된 것은 전에 부근에 작업을 할 때이다. 내가 서초동에서 이곳 주택가로 이전한 것은 어려운 시절에 대비할 요량이었다. 내가 사무실을 옮길 무렵 다른 재산을 처분한 것이 있어서 작업실을 겸해 쓸 수 있는 집을 구하고자 할 때였다. 나는 새 밀레니엄이 될 무렵 IMF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되고, 경제적 압박이 컸지만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렵더라도 견디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찾은 집은 낡지만 싸고, 주차장 없고, 뜰이 있는 구옥이었다. 소개소 사람을 따라 몇 곳을 다니면서도 이 집은 지나치며 볼 뿐 물어볼 생각을 안 했었다. 위치는 마음에 들지만, 주택가로서 입지가 좋은 편이어서 찾는 것보다 비쌀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개하시는 분과 함께 지나가다 이 집도 나왔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큰 이웃집들에 비해 이 집만 규모가 아주 작았다. 그래도 찾던 것보다 부담이 크고 심하게 퇴락해 보여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계약을 했다. 잘만 고치면 꽤 괜찮게 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지하층 부분도 앞대지가 훨씬 낮아서 지상층이 나다름 없었다. 오래된 집, 하지만 찬찬히 보니 재미있게 될 것 같았다.

도시인들이 기본적으로 차를 두고 편리하게 쓰려는 것이지만, 평소 늘 그 차량들에서 버적거리듯 하는 것이 편안함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여러 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은 주차 대수를 충족하느라 사람이 출입하는 부분에 늘 차가 서 있게 된다. 현대 건축에



1\_ 전경사진 2\_ 일매현내부 3\_ 한그루감나무가있는마당(사진김석환)

서당연시하는주차장을둔건축은그렇게건조한모습이될수밖에 없었다. 내가전통건축을답사하면서 좋게느낀가장큰이유가평온함 이라고생각된다. 그런데그렇게느껴지는것은우선차가없는상태 같은, 탈 문명적 상황이기때문일 것같았다. 오래전에지어진 이 집 은비록 넓고주차장도없지만대문을열고 담장으로둘러쳐진 외부 공간을들어설때 그평온함을누릴수 있을것 같았다. 그리고 차는 노상주차장을이용할수있는상태였다.

막상계약을하고수리를하려고보니 건물상태가생각보다 훨씬 열악했다. 지었을때설치한난방파이프는다막혀서방치된상태이고 석유난로를때고있었다. 내부벽의위치나공간구성도좋지않고 벽과천정에쓰인후로링등여러가지마감재도덕지덕지된상태였다. 2층은지붕여기저기서누수가있어거의쓰지않는상태였고 옥상 난간은 금방 부스러질 듯 녹이 슬어 있었다. 주인은 고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살아온 듯했다. 그렇게 험한 상태지만 옥상에서의 위치가 좋아보였고 1층 외벽에 쓰인 돌은 질감이 좋았다. 건물과 담장 사이의 공간도 정리하면 차분해질 것 같았다.

새로 짓는 게 더 낫겠다는 친구들 조언에 마침내 고칠 결심을 하고 업체를 선정해 공사 계약을 하였다. 견적 금액은 예상보다 더 많은 액수였다. 내부 벽체 위치 조정하는 것에서부터 바닥과 벽 천정, 내외부 창호 등을 모두 새로 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각 층에 독립적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지붕으로 오르는 계단도 교체해 새로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지붕을 마당처럼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대되었다.

이 건물을 고치면서 무엇보다도 좋은 경험이 된 것은 기존 건물에 쓰인 구조와 재료, 시간의 흔적이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리고 건축에 담긴 세월 흔적의 소중함과 건축의 존재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도시에 관해 현재와 다른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로서 잘 지어지고 아니고를 떠나 나름대로 시대상을 지니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차장 설치 등에 있어서 현재처럼 강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 도시 설비가 덜 갖춰진 대신 도시 구조에 따른 억압도 덜 받는 상태에서 농촌 주택과 같은 체취가 배어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도시 건축에서 중시되고 있는 삶의 장소성 회복과 같은 맥락에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서초동에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올 때 마음이 썩 심난했다. 건축사 사무실의 번잡한 살림과 모형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걱정이었다. 옮긴 후에도 낡은 건물이라 외벽의 균열 보수나 옥상 방수 등이 사후에도 계속해서 손볼 일이 많았다. 2004년에는 외벽 수리를 많이 하였고 2005년에는 지붕 방수를 손보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지붕에 화단을 몇 개 더 만들었고 목백일홍, 수국 등을 심었다. 이사한 해 마당 한쪽에 제법 큰 감나무를 옮겨 심어서 그에 대한 기대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자라면서 마당에 그늘을 만들고 감이 열린 풍경도 선사했다. 그런 요소가 정서적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내가 여기 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곳은 옥상이다. 옮길 결심을 하게 된 이유도 옥상에서 펼쳐지는 조망이 좋은 것이 큰 계기



일매현설경



1\_ 매화가 피어난 모습 2\_ 매화 주변의 벤치와 장독들 3\_ 감나무 그늘에 놓은 벤치와 벽에 수놓인 햇살

였다. 르 꼬르뷔제는 옥상정원을 근대 건축의 5원칙의 하나로 꼽았는데, 방수와배수문제만 잘 해결하면 실제로 마당처럼 잘 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문 앞마당에서 지붕으로 오르는 계단과 노대는 건축적 산책로가 되어 일하든 운동하든 삼아 오르곤 한다. 2005년 대한민국 건축제에 참가한 한 학생이 내 사무실을 놀러 오고 싶다고 해서 허락한 적이 있는데 와서 돌아보더니 “다 있네요.”라고 말했다. 근대 건축적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다는 말이었다.

나는 지붕의 평온함과 편안한 시선이 마음에 들어 매화 한 그루를 심고 거기 있는 작은 서재 이름을 일매헌(一梅軒)이라 붙였다. 여기로 사무실을 이전하던 해 옥상에 네모난 화단 하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서초동의 한 농원에 가서 언 땅에 있던 매화를 사다 심었다. 나무심는 철이 아니어서 겨우 내 염려하며 살펴보았다. 그래서 겨울을 난 첫 봄에는 꽃이 필 기대보다 살아나기만을 바랐다. 그런데 봄이 되자 다행히 꽃이 맺혔다. 그때는 단지 살아난 것이 고마웠다. 그러나 허약한 꽃은 바람에 흩날리듯 금새 지고 말았다.

다음 해에는 생사 걱정은 하지 않고 꽃이 얼마나 맺힐까 궁금했다. 다시 기다리던 꽃을 피웠지만 꽃망울이 부실해보였다. 꽃이 필 무렵 갑자기 기온이 높아지다 다시 급강하기를 반복하는 사이 옷자란 꽃눈이 냉해를 입었을 것 같았다. 또한 꽃 필 무렵 땅이 너무 건조해서 그리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작년에 다시 꽃이 피었다. 그 때는 꽃이 피기까지 좀 더 주의하기를 기울이고 땅이 녹은 후에는 미리 물도 주고 했다. 그런 정성에 보답한 것인지 꽃눈이 튼튼하게 자라서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고 갔다. 그것이 대견해서 사진을 찍어두고 메일로 보내주기도 했는데, 어떤 이는 이처럼 고혹적인 매화를 본 일이 없다고 답신을 보내오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몇몇 문인들과 조촐히 출판기념회를 갖기도 했었다. 매화가 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모습을 보이기는 작년이 처음이다. 그 때 인근 식당에서 식사 후 간 뒤풀이 술집에 늦게 도착한 여성 한 분이 합류하자 흥이 난 이선배가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나에게 매화 한 가지만 꺾어다 달라고 부탁했다. 술을 먹다 다시 올라가 작은 가지 3개를 골라서 꺾어다 주었다. 그랬더니 맥주잔에 꽃잎 하나씩을 떨어트리고 건배를 제의했다. 그리고 매화 한 가지를 선물로 주기도 하며 매화 잔치를 벌였다.

## 매화

먼 하늘을 보며  
터뜨려진 매화 한송이

그고고한자태에  
꽃술가지런히  
속살드러내면  
차마  
바로보지못한다

하지만  
그향연도  
꽃필때만이고

별날아들어  
가녀린속살후벼든  
얼마쯤후면

푸른매실을등에업고  
줄린눈을한다.

- 김석환

처음에는 나의 생활영역에 단지 한 그루의 매화를 두겠다는 생각으로 심었는데 몇해가 지나며 표정을 살피는 동안 이제 더 친근한 존재가 되어 있다. 작년에는 그 매화를 정겹게 대하려고 그 주변에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 매화가 가까이 에난로를 두고 그 주위에 산길을 가다 돌그루터기에 앉듯이 나무토막을 받쳐서 만든 의자를 빙둘러 놓았다. 요새는 나무 주변에 자생적인 생태계도 조성되어 저서 겨울에도 얼어죽지 않고 겨울을 나는 것들이 있다.

매화를 심고 지켜보는 동안 이듬해 꽃을 피우기까지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꽃눈은 봄이 올 무렵부터 자랄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봄이 올 때 한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낙엽이진 후 맨몸 상태가 되고부터 바로 다음 생을 준비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잎이진 마른 가지에서 눈에 띄게 꽃눈이 맺히듯 자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싸래기처럼 도톰해지다 겨울 문턱에서는 쌀톨만큼 커진다. 그렇게 꽃방울이 만들어지는 것은 꽃을 피워내는 과정이라기보다, 그 꽃눈과 잎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마치 어린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 새가 알을 품듯이 나무는 그 생명의 근간이 얼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의 몸 안에서 보호막 같은 물질을 분비하여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다. 봄에도 그냥 피는 것이 아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는 가운데서 항상 생의 의지와 끈을 놓지 않고 주의를 기울인다. 때이르게 날씨가 따뜻해져서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다가도 추우면 다시 오그라든다.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일찍 커져서 오무라들지 못하고 동해를 입기도 한다.

내가 옥상에 매화를 심은 지 4년째 나는 봄이다. 다시 매화 꽃망울이 오르고 있다. 올해는 일찍 온 봄에 매화 가지마다 꽃눈이 때이르게 커지고 있다. 오늘은 꽃눈 몇 개가 유난히 더 커지며 안쪽의 꽃잎살을 드러내 보였다. 나는 봄이 올 무렵 매화 꽃망울이 커가면 그 소

중한 존재에 내 마음이 먼저 상기되어진다. 이 시절을 어떻게 매화와 함께 보낼지, 그리고 그 소중한 존재를 어떻게 귀히 대접하고 꽃이 지게 할까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함께 감상할 이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그것이 겨우 내 기다려 꽃을 피우는 것에 걸맞는 대접이라 여긴다.

매화는 어느 기간 피다 같 것이다. 꽃이 활짝 피어났을 때는 질 때의 슬픔도 떠올려진다. 아무도 보지 않은 채 고운 자태로 홀로 피다 같 것 같은 아쉬움도 느끼게 된다. 매화 필 무렵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개인사로 매화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 대부분 그냥 흘려 듣지만 매화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무작정 기다릴 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 시절은 쉬지나간다. 삼라만상이 다 무상하다는 말처럼 조금 후면 그 아쉬움도 잊게 된다. 圖

## 一梅軒

매화꽃 향기를 그리워한이의  
치기 어린 손길로  
엄동설한에  
서울 집 옥상에  
 옮겨 심은 설중매 한 그루

그날 후로  
매화는  
매일매일 그의  
눈길을 받았다

매화는  
누군가의 기다림에 답하러  
차가운 겨울 햇살이지만  
꽃눈에 따사로움을 더 머금으려고  
얼굴을 내밀다

어느 날  
시베리아에서 불어온  
찬 바람을 맞고  
한 동안 몸살을 앓았다

그런 날들이 지나고  
뒷마당 얼음도 녹아난  
햇살이 좋은 나절  
조금씩 부풀어 올랐던 꽃망울을  
남몰래 틈었다

- 김석환



## 협회소식\_kira news

### 우리협회회장이 · 취임식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3월 7일(수) 오전11시 건축사회관대강당에서우리협회회장이 · 취임식을개최했다.

이날이 · 취임식에는이영근건설교통부도시환경기획관과 변 용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김광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우리협회 역대 회장을 비롯한 시.도회장 및 전임, 신임 이사 등 건축계의주요인사와협회직원등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제26대 이철호 회장의 이임사로 시작한 이 · 취임식은 제27대 한명수 회장의 취임사로 이어졌는데, 이철호회장은이임사에서“ 오랫동안 같이 노력해 오던 신임 한명수 회장께서뛰어난능력과추진력으로잘해결하고, 우리건축사의권익과건축계를한차원높은수준으로 발전시키리라 믿는다”며 신뢰했고, 한명수 회장은“ 이렇게 우리 협회가 역동적으로 획기적인발전을할수있게된것은이철호회장님께서 협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결과”라며“ 협회와 건축사의 운명을 바꾸고우리의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각오를다졌다.

이어 임기를 마친 전임 임원에게 재직기념패를 전달하였고, 신임 임원들의 소개가 이루어졌다. 협회기 전달에서는 전임 이철호 회장과 신임 한명수 회장의 진심어린 격려와 포용으로식장안을감동으로채웠다.

식후오찬식에서는이취임을축하하는송기덕 전임회장의 건배제의가 있었으며, 기념사진촬영을끝으로식을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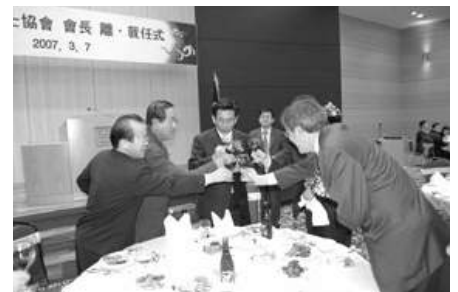
이철호전임회장이임사



한명수신임회장취임사



이철호 회장과 한명수 회장의 감동적인 포옹 장면



건배 장면



전임임원과기념사진



우리협회회장 이 · 취임식전경



신임임원과기념사진

## 제4회 정기총회개최

### 제27대 회장에 한명수 회원, 감사에 이종정 회원 당선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2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재적대의원 444명 중 410명의 성원을 보인 가운데,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을 비롯한 9개의 안건이 상정·처리되었다.

오전 10시 25분 이철호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총회는 성원보고, 국민의례, 강석후 이사사의 건축사헌장낭독에 이어 우리협회 회장 개회사, 한국건축가협회장 및 대한건축학회장의 축사에 이어 회원 공로패 및 직원 표창패가 수여되었고, 2007년도 대한건축사협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5인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본 회의에 들어가서 제40회 정기총회 회록을 원안대로 승인한다음 추대회원에 대



제41회 정기총회전경



우리협회 제27대 회장 당선자 한명수 회장



우리협회 신임 감사 이종정 감사

한추대보고,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를 마치고 부의안건 상정에 들어가 제1호의안부터 제9호의안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1호의안부터 순서대로 심의하였다.

제1호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건'에서 정관 제21조는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자구수정 등은 관련위원회에서 검토·보완하는 조건으로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였고, 나머지 7개안은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최대관심사였던 제9호의안 '임원개선의건'에서는 우남용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시의장직을 맡아 회장 및 감사선출을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한명수(주.예도 건축사무소) 회원이 제2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감사선출에 있어서는 이종정(에스와이 종합건축사무소) 회원이 감사로 선출되었다. 이사 11인의 선출은 신임회장에 계위임되었다.

또한, 정기총회개최 전 회관준공식(머릿돌) 설치기념식을 이철호 회장과 역대회장, 시·도회장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략하게 치렀다.

제41회 정기총회 주요 부의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건
  - 정관 제21조는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자구수정 등은 관련위원회에서 검토·보완하도록 함.
- 제2호의안: 공제사업 시행(안) 및 공제규정(안) 승인의건
  -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증과 배상공제, 자금융자 및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가칭) 건축사등록원 설립 승인의건
  - 1단계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건축사등록원 설립·운영, 2단계 건축사법 개정시 건축사법에 의한 특별법인 건축사등록원으로 전환 추진을 위한 예산 50억원 소요 등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회관건립차입금 상환기간 연장 승인의건

-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입 등으로 14년 이내에 분할 상환할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대형건설회사의 설계업허용요구」대처에 따른 예산 확보에 관한 건
  - 홍보비 10억원, 건축사회 지원비 및 물품제작비 5억원 등 총 15억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2006년도 APEC 등록 건축사 특별회계 예산(안) 추인의건
  - 2006년도 APEC 등록 건축사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2006년도 결산(안) 승인의건
  - 2006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8호의안: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건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9호의안: 임원개선의건
  - 회장(1인): 한명수 회원
  - 이사(11인): 신임회장에 계위임하되, 정관 개정으로 인해 증원되는 3인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개정 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시행
  - 감사(1인): 이종정 회원

#### ▲신임이사



**김국태(金國泰)**  
 생년: 46년생  
 출신교: 경북산업대학교 건축학과,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건축설계·실내건축  
 사무소명: 김국태건축사무소



**김수현(金秀煥)**  
 생년: 58년생  
 출신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동대학대학원 건축학과  
 사무소명: (주)나우동인건축사무소



**류춘수(柳春秀)**  
 생년: 46년생  
 출신교: 한양대학교 건축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  
 사무소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이공



**박신욱(朴信昱)**  
 생년: 48년생  
 출신교: 동의공업대학, 한국교육개발원, 동아대학교 산업대학원,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과정  
 사무소명: 원심건축사무소



**박영순(朴英順)**  
 생 년: 58년생  
 출 신 교: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  
 대학원 건축공학과  
 사무소명: 건축사사무소상화



**백민석(白旻錫)**  
 생 년: 68년생  
 출 신 교: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동  
 대학 대학원 건축학과, 동  
 대학대학원 건축공학과박  
 사과정수료  
 사무소명: (주)건축사사무소시그에이



**송평문(宋平文)**  
 생 년: 47년생  
 출 신 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사무소명: 비온드스페이스 종합건축  
 사무소



**심재호(沈載浩)**  
 생 년: 54년생  
 출 신 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동  
 대학 환경대학원 도시·환  
 경고위정책과정, 한양대학  
 교 환경대학원 환경경영정  
 책과정  
 사무소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  
 건축



**이영순(李瑛淳)**(유임)  
 생 년: 46년생  
 출 신 교: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한  
 남대학교 대학원 도시설계  
 사무소명: 영건축사사무소



**전영철(全永哲)**  
 생 년: 55년생  
 출 신 교: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과,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건  
 축과  
 사무소명: (주)열린모임 건축사사  
 무소



**조성원(趙聖源)**  
 생 년: 52년생  
 출 신 교: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학과  
 사무소명: (주)대우건축사사무소

#### ▲신임감사



**이종정(李宗正)**  
 생 년: 41년생  
 출 신 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동대학원 건축계획, 동대  
 학 도시과학대학 도시개발  
 최고위과정  
 사무소명: 에스와이종합건축사사무소

## 이사회

### ■ 제2회이사회

2007년도 제2회 이사회가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건축사연수교육 개최계획(안) 승인의 건,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공제사업 시행(안) 및 공제규정(안) 승인의 건, 여비규정중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회관지분 결정의 건, 회관건립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승인의 건, 2006년도결산(안) 승인의 건, 2007년도 사업계획 및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대형건설회사의설계업허용요구」대처에 따른 예산확보의 건, 회비미납 대의원의 회원권리정지에 관한 건, 제41회 정기총회의제 결정의 건,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공로회원 및 직원표창 승인의 건, 「2007건설의 날」건설산업유공자 포상후보 추천의 건이논의되었다.

주요의결내용은다음과같다.

#### ▲부의안건

- 제1회의안 : 건축사연수교육 개최계획(안) 승인의 건
  - 안대로승인함. 다만, 회의순서 등 세부사항은정명옥이사과 협의하여진행하기로함.
- 제2회의안 :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 개정(안)중 아래의 사항을 수정하여 제41회정기총회에상정하기로함.
  - ▷제19조 제3호 : 이사 21인 이내에 당연직이사포함
  - ▷제21조 제4항 : 건축사회장회의에서추천된1인은당연직이사로함.
  - ▷제27조 제10호 : 이사회 의결사항중 건축사회장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은삭제
- 제3회의안 : 공제사업 시행(안) 및 공제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제41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함.
- 제4회의안 : 여비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제41회 정기총회에서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승인된 이후에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키로 하고, 유보함.

- 제5회의안: 회관지분결정의건
  - 소유권 이전절차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협회와 서울건축사회간 약정을 통해건물사용권한등을정하기로함.
- 제6회의안 : 회관건립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승인의 건
  - 원안대로 제41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함.
- 제7회의안 : 2006년도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제41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함.
- 제8회의안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회장과예산편성위원장, 예산편성소위원장이 협의·조정하여 제41회 정기총회에상정하도록위임함.
- 제9회의안 : 「대형 건설회사의 설계업허용요구」대처에따른예산확보의건
  - 원안대로 제41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함.
- 제10회의안 : 회비미납 대의원의 회원권리정지에관한건
  - 원안대로승인함.
- 제11회의안 : 제41회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 제41회정기총회의의제를아래와같이결정함.
  - ▷제1회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건
  - ▷제2회의안 : 공제사업 시행(안) 및 공제규정(안) 승인의건
  - ▷제3회의안 : (가칭)건축사등록원 설립승인의건
  - ▷제4회의안 : 회관건립차입금 상환기간연장승인의건
  - ▷제5회의안: 「대형건설회사의설계업허용요구」대처에따른예산확보의건
  - ▷제6회의안 : 2006년도 APEC등록 건축사특별회계예산(안) 추인의건
  - ▷제7회의안 : 2006년도결산(안) 승인의건
  - ▷제8회의안 : 2007년도 사업계획 및수지예산(안) 승인의건

- ▷제9호의안: 임원개선의건
- 제12호의안: 추대회원추대승인의건
  - 원안대로 추대하여 제41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함.
- 제13호의안: 공로회원 및 직원표창 승인의건
  - 회장에게 위임하되, 공로회원은 협회 의기여도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함.
- 제14호의안: 「2007건설의 날」 건설산업유공자포상후보추천의건
  - 차기회장에게 위임함.

## ■ 제2회임시이사회

2007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2월 21일 오후 3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시 이사회에서는 회관 예식임대사업시행에관한건, 추대회원추가추대승인의 건, 아름다운 가게 협약 체결 추진의 건, 건축문화신문 광고료 단가 재조정의 건이 논의되었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회관 예식임대사업 시행에 관한건
  - 원안대로승인함.
- 제2호의안: 추대회원추가추대승인의건
  - 원안대로 제41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함.
- 제3호의안: 아름다운 가게 협약 체결 추진의건
  - 원안대로추인함.
- 제4호의안: 건축문화신문광고료 단가 재조정의건
  - 부결됨.

### ▲협의사항

- 제1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연대포럼참석에관한건
  - 임원, 시·도건축사회 회장, 각 위원회위원장 및위원 등 가능한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홍보·독려하기로하고, 참석자에게는 참석확인증을 발급하기로함.
- 제2호: 내진설계관련언론보도에관한건

- 서울건축사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회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사실관계를확인하기로함.
-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서울건축사회에서윤리위원회에회부하여적의조치하고, 해당관청에징계건의
-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국민에대한오해를 불식시키기위한대책을다시논의
- 제3호: 제41회 정기총회 임원업무 분담에관한건
  - 사안에따라업무를분담하기로함.

## 위원회회의

### ■ 제1회APEC등록건축사실무위원회

제1회 APEC등록건축사실무위원회회의가 지난 2월 28일 오후 2시 건축사회관 아카시아 회장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등록기준 적용의 건, 등록신청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에 관한 건, 최종 서류 심사 일정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등록기준 적용의건
  - APEC등록건축사에 대한 등록기준을완화하여보다많은신청자가등록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전제회의에상정하기로함.
  -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행한 프로젝트 참여기간 7년 → 건축사사무소운영기간 7년으로같음
  - ▷신청직전 최소 2년간의 사무소 운영→신청직전 3년간가운데 3분의 2 이상사무소운영
- 제2호: 등록신청관련서류의보완요구에관한건
  - 등록신청자(277명)중 서류보완이 필요한 신청자(21명)에게는 ‘07.2.20

~ 3.5일까지보완기회를주시기로함.

- 제3호: 최종서류심사일정에관한건
  - 서류보완이 완료되면 사무국에서 서류를최종정리하고 3월중순경심사위원회에서 전체 등록신청자에 대하여최종심사한후등록여부를결정하기로함.

## ■ 제3회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제3회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회의가 지난 3월 9일 오후 2시 건축사회관 아카시아 회장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 등록건축사 등록개시일에 관한 건, APEC 등록건축사의 계속교육 취득 방법및관리에관한건,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건, APEC 등록건축사등록신청서심사에관한건이 논의되었다.

주요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APEC 등록건축사 등록개시일에 관한건
  - APEC 등록건축사 등록개시일은 ‘07.5.31로 하고, 등록증 및 ID 카드수여식에관한세부계획은차기위원회에서재논의하기로함.
- 제2호: APEC 등록건축사의 계속교육 취득방법및관리에관한건
  - 계속교육자료를 개별적으로다시 검토한후에차기회의에서다시논의하기로함.
- 제3호: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등록기준변경에관한건
  -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대로 APEC 등록건축사에 대한 등록기준을완화하여 보다 많은 신청자가 등록될 수 있도록하기로함.
  -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행한 프로젝트 참여기간 7년 → 건축사사무소운영기간 7년으로같음
  - ▷신청직전 최소 2년간의 건축사사무소 운영(근무)이력이 있는 자. → 신청직전 3년중 3분의 2 이상 건축



사사무소운영(근무)이력

- 제4호 : APEC 등록건축사 등록신청서 심사에관한건
  - 서류심사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한 등록신청자 264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참여프로젝트 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에게다시한번보완기회를주기로함.
  - 서류심사결과 등록기준부적합 등록신청자13명중건축관련학사학위미취득자 5명은 등록신청비를 환불조치 하기로 하고, 나머지 건축사사무소운영(근무)경력미달자인8명은다시한번근무경력을확인하기로함.

#### ■ 제4회회관건립위원회

제4회 회관건립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3일 오후 3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관 건립백서 발간에 관한건과기타사항이논의되었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회관건립백서발간에관한건
  - 회관건립백서 발간일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확정하여 '07.2.8일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약 4개월( 07. 5.30)내 발간키로협의함.
  - 회관건립백서발간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김순명, 김영수, 최선규 위원)를 구성하여 자료정리 및 편집업무를진행키로협의함.

##### ▲기타사항

- 회관준공식(머릿돌) 설치의건
  - 회관머릿돌 설치위치는서측계단 우측하단부 벽면에 기존 화강석(1.2×0.6m)을 대체하여 동일 크기의 오석 판으로 제작 · 설치키로 하고, '07.2.22일 본 협회 정기총회전 설치를 완료키로협의함.
- 회관준공검사시행에관한건
  - 시공자와의 회관정산금액 확정에 따라 '07.2.22일 신축회관 준공검사를 시행키로협의함.

#### ■ 제5회회관건립위원회

제5회회관건립위원회회의가지난3월7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회의에서는회관건립백서발간에관한건과기타사항이논의되었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회관건립백서발간에관한건
  - 회관건립백서 발간일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확정하여 '07. 5.30일내 발간키로협의함.

##### ▲기타사항

- 유진건축으로부터지급요청된 회관관리용역잔금에대해서는회관건설지가 제출되었고, 감리보고서보완사항등을 조속히보완 · 제출키로함에 따라감리용역비 잔금 26,246,000원(부가세포함)을지급토록건의키로함.
- 추가감리비 관련 본 협회의 내용증명 회신에대한유진건축의문구수정요청에 대해 후속 업무협조 등 감리용역업무가원만히종결되도록재회신키로협의함.

#### ■ 제5회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 사무추진에 관한사항이논의되었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선거사무추진에관한사항
  - 가. 선거인명부확정건
    - ▷대의원 444명중회원권리정지자2명을제외한442명으로확정함.
  - 나. 투표용지확인건
    - ▷투표용지에대한일련번호 및 직인 날인은사무처에위임함.
  - 다. 무효투표처리건
    - ▷역대 위원회에서 결정하였던 유권 해석 사항을 따르기로 하고, 양선

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용이아닌투표용지가 투함된경우무효처리키로함.

##### 라. 투표용지교부건

▷이번 선거는 회장2인, 감사3인 출마했으므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방지하기위해, 투표진행은 감사선거를먼저실시하고회장선거를후에 실시하되, 감사선거 결과 1차투표에서당선자가없을경우 감사선거결선투표와 회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함.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이 2인 1조로 하여 대의원 명찰에 표기한후투표용지를교부키로함.

##### 마. 연설시간건

▷연설시간은 후보당 7분이내로 하고, 연설순서는 회장후보, 감사후보 순으로 진행하되, 선거당일 후보자 기호순으로 추첨하여 결정키로함.

#### ■ 제6회선거관리위원회

제6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회의에서는 임원선거 투표 및 개표 관리에관한사항이논의되었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임원선거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사항
  - 회장 · 감사선거투표및 개표에 관한 전반적인사항을논의하고, 선거진행절차및위원담당업무에관하여논의함.

#### ■ 제7회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사무 종료에 관한건,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건의에 관한 건이논의되었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선거사무종료에관한건
  -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 의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동 규정 제22조제2항에의거투표용지를금일중으로폐기처분토록함.
  - 후보자별 기탁금을 정산하여 1인당 915,150원씩 환불조치토록함.
- 제2호: 임원선거관리규정개정 건의에관한건
  - 임원선거관리규정은정관제16조제5호에의한 총회의결사항으로 개정되는규정의종류에포함하는것이바람직함.
  - 삭제된제13조(현직임원의입후보)의 규정 제정취지는 후보자간의 동등한 조건으로공정한선거가될수있도록 하자는취지이었으므로 동조항은 제정당시의조항대로회복하는것이바람직함.
  - 제7조 제2항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적용시점을분리
  - 제15조제1항 선거홍보 종류에 전자매체범위를확대
  - 제24조제1항의유효투표자의의미를 명확히규정

## ■ 제2회정관개정특별위원회

제2회정관개정특별위원회회의가지난2월 28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회의에서는정관개정(안)의문안 검토에관한건이논의되었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정관개정(안)의문안검토에관한건
  - 제41회 정기총회( 07.2.22)에 상정된 정관 개정(안)에 관한 위원회 검토(안)은아래와같음.  
※담당이사의견: 정관제21조는제41회 정기총회( 07.2.22)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이미 의결된 사항이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개정(안) 제21조 제1항을 수정하는 것은타당하지않음.  
※위원회검토안중제1조, 제5조및 제21조제3항에대해서만최종정관에반영되었음.

## 전국시도건축사회및건축상담실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 ~ 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중구건축사회/2266-4904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 ~ 3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 ~ 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 ~ 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 ~ 7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 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 평방평택지역건축사회/(033)374-6477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0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 ~ 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7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계룡지역회장/(042)841-572 평양지역회장/(041)942-5922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 ~ 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8 영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 ~ 4 문경지역건축사회/(054)436-2651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군위, 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영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교령, 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2-9000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6666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하동지역건축사회/(055)864-7400 함안지역건축사회/(055)585-8587 함녕지역건축사회/(055)533-2473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 관련조항            | 총회(안)         | 위원회검토(안)                                                                                                                                                                                                                                                         |
|-----------------|---------------|------------------------------------------------------------------------------------------------------------------------------------------------------------------------------------------------------------------------------------------------------------------|
| 제1조(명칭)         | 인협회 · · · · · | 우리협회 · · · · ·                                                                                                                                                                                                                                                   |
| 제5조(사업)         | 16회원의복지증진     | 16회원의복지증진                                                                                                                                                                                                                                                        |
| 제21조<br>(임원의선출) | 현행대로          | <p>①회장, 이사및 감사는 총회에서선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을 제외한 협회임원은 건축사회 임원을 겸직할수 없다.</p> <p>②현행과같음</p> <p>③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불구하고 상근부회장및 상근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임 · 면한다.</p> <p>④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p> <p>⑤현행과같음</p> <p>⑥현행과같음</p> |

## 일신설계30주년기념포럼개최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창립일인 지난 2월 22일자사가계획한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일신설계 30주년기념포럼’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30년의 일신설계의 역사를기록한기념집 ‘일신30년’을발간하여포럼참석자에게배부했다.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창립자 이용흠 회장)는 1977년 부산에서 창업한 이래 지난 30년간 부산을 대표하는 우수한 건축물을 설계하였으며, 1992년 지방최초의 건축전문잡지 ‘이상건축’을 발간하는 등 부산의 건축과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살아있는부산건축의역사라고할수있다.

대표적인건축물로는 부산시청,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 누리마루 APEC하우스, 부산시립미술관 등 부산을 대표하는 수많은작품을남겼다.

포럼에서는 ‘부산건축과 일신설계’, ‘건축미디어, 비평, 건축’으로 구성되어, 서치상(부산대), 김기수 (동아대)교수와 최부림 부산시보 편집위원 등 내외 인사들의 주제강연과 부산과 일신설계의 30년 역사에 대해청중들과자유롭게토론하는열린포럼형식으로진행되었다.

• 문의 :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051-462-4711

## 홍익대학교건축대학200년봄학기특강

홍익대학교 건축대학에서는 올해 봄학기 특강계획을발표하였다.

3월에는 영국에서 도시재생 전문가인 Peter Stark와 Dixon Jones Architect의 대표인, 건축사Edward Jones를 초빙하여 특강을 주최하며, 4월에는 독일 건축사 Oliver Kuhn과 Swantje Kuhn의 초청강연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연일자 / 강연자 / 주제 순(상기일정은사정에따라변동가능함)

- 3월 26일 14:00~15:30 / Peter Stark(Peter Stark 대표) / 도시와 재생
- 3월26일15:30~17:00 / Dixon Jones Architect(Dixon Jones Architect 대표) / 건축과재생
- 4월 5일 17:00~19:00 / Oliver & Swantje Kuhn(Gewers Kuehn+kuehn Architekt 대표) / Life Cycle Architecture and Transition
- 문의 :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학과  
02-320-1106

## 제10회강구조건축설계공모전



환경 친화적 소재인 철강재를 이용한 강구조 건설을 유도하고, 사회진출 예정인 대학 재학생의 강구조설계 참여 기회를 제공 등 강재활용 아이디어 발굴 및 강구조 설계 전문인력확대하기위한 ‘제10회강구조건축설계공모전’이개최된다.

공모주제는 ‘도시재생을 위한 랜드마크(Landmark for Urban Revitalization)’로서 지역선정의타당성과 제안의 효용성에 대한고려를바탕으로도시재생을위한상징건축물의 의미와 역할을 해석하고, 강구조의 구축미학을반영한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을요구한다.

### • 공모일정

- 참가접수 : 2007. 3. 19(월) ~ 3. 25(일)
- 설명회개최: 2007. 4. 6(금)
- 작품접수 : 2007. 6. 26(화) ~ 6. 28(목)
- 예비심사: 2007. 7. 3(화)
- 모형접수 : 2007. 7. 18(수) ~ 7. 19(목)
- 본심사: 2007. 7. 20(금)
- 시상식및전시회: 2007. 7. 31(화) ~ 8. 3(금)

### • 시상내역

- 대상(1점) : 상패및장학금 700만원
- 금상(1점) : 상패및장학금 500만원
- 은상(2점) : 상패및장학금 300만원
- 동상(5점) : 상패및장학금 200만원

- 입선(31점) : 상패및장학금 50만원
- 문의 :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02-559-3564, www.steelcon.or.kr

## 제4회도코모코리아디자인공모전

1925년 9월 준공되어 80여 년 동안 서울의 상징적 이미지로 간직하고 있었던 구 서울역사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준공된 새로운 서울역사와는 어떠한 연관성도 갖지 못한 채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분주한 흐름에서 외면당하고 있으며, 우리의 근·현대적 삶의 궤적을 담아왔던 구 서울역사는 투명성, 개방성, 속도감 등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유리 상자 역사의 첨단적인 시대적 이미지에 밀려 관심에서조차 점차 멀어져가고 있다.

서울역사를 살려내는 일은 과거의 우리 삶에 대한 집착이 아닌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일이다.

- 공모일정
  - 신청접수: 2007년 3월 5일 ~ 4월 16일
  - 공모전 워크숍: 2007년 3월 31일 오후 1시
  - 질의기간: 2007년 3월 7일 ~ 4월 7일 오후 5시(홈페이지 공모전 게시판)
  - 응답공지: 2007년 4월 10일
  - 작품접수 마감: 2007년 6월 1일 오후 3시
  - 심사결과 발표: 2007년 6월 4일
- 참가자격: 역사도시 서울에 대한 관심과 긍지 그리고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시상
  - 대상(1점): 상금 5백만원과 상장
  - 최우수상(1점): 상금 2백만원과 상장
  - 우수상(2점): 상금 각 1백만원과 상장
  - 특선 및 입선: 다수
- 심사위원
  - 유결(심사위원장, 아이아크 대표)
  - 권문성(아틀리에17 대표)
  - 김기호(서울시립대 교수)
- 문의: 도코모모 코리아 사무국 02-790-2539

## 제4회김중업건축상

일찍이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건축사 르 꼬르뷔지에 아틀리에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귀국 후 국내에서 근대 건축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축가 김중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김중업 건축상'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다.

프랑스대사관이 주최하고 프랑스 건축사회가 주관하는 이 지원 사업은 건축을 새롭게 시작하는 건축지망생들에게 프랑스에 있는 건축사무실에서 3~5개월 체류하며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랑스 건축사무소와 공동 설계를 통한 프랑스 건축의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자신의 건축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하기 위한 목적인 이 사업은 3차에 걸쳐 도미니크 빠로, 도미니크 리옹, 장누벨 건축사무실에서 3인의 당선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점진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혜자는 매년 1명으로 프랑스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불어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프랑스 현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심사위원
  - 1차 기술 심사: 프랑스 건축사회 김중업 장학재단 추진위원회
  - 2차 지명 심사: 프랑스 건축사회 임원
  - 3차 지명 심사: 프랑스대사관
- 참가자격
  - 5년제 건축대학 2008년 졸업예정자
  - 4년제 + 1년 경력자 - 11년차까지
  - 2년제 + 3년 실무자 - 13년차까지
- 수혜자 혜택 및 의무
  - 수혜 장학 총 액수: 약 4,000 유로(약 1,300 유로/1개월 x 3)
  - 수혜 장소: 프랑스 현지
- 프랑스 건축 설계 사무소 근무
  - 프랑스 대사관에서 선별하여 결정(2004: 도미니크 빠로, 2005: 자크 리옹, 2006: 장누벨)
  -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간을 3~5개월로 선택할 수 있다.
- 접수: 2007년 4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20일 금요일 5시까지
- 질의응답

- 기간: 2007년 4월 1일 일요일 ~ 4월 14일 토요일
- 답변: 2007년 4월 17일
- 일정
  - 1차 심사: 4월 23일 월요일
  - 2차 대사관 심사: 5월 중
  - 결과 발표: 5월 28일
  - 대사관 행정 서류 준비: 5월 ~ 8월
  - 수혜자 출국: 8월 말
  - 수혜자 현지 실무: 9 ~ 11월
  - 보고서 제출: 2월 20일
- 접수(방문 및 우편 접수)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 76 인덕대학 건축과 도시건축연구소 대표 배대승 교수 ☎



## 건축

### 지구온난화에대한건물의역할회의

대부분사람들은자동차등의교통수단이 지구온난화의주된범인이라고생각하고있다. 그러나 건물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은 놀란다. 미국의 경우건물이모든그린하우스가스의절반에 이르는 48%를 배출한다. 아마도 지구 전체로 볼 경우건물이 차지하는비율은 더욱높을것이다. 환경변화에대한건물부문의역할을 논의하기 위하여, 건축 2030은 AmercaSpeaks와 함께 'The 2010 Imperative: Global Emergency Teach-in'을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2010년의 주요 의제로 선택되었으며, 2월 20일 뉴욕에서 웹에 의한 생중계가 되었다. 건축계의 많은 학생, 교수, 실무자들이참석한가운데건축디자인을통하여 지구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추가하여참가자들은 '2030 도전 과' 2010의 과제에관한여토의하였다. 기후변화에대한대응으로건축 2030은새로운과제를제시하고있다. 이도전적 과제는 건물에너지 소비를 50% 줄이기 위한 즉시적 혁신을 추구하고있다. 2030년까지탄소배출을하지 않는건물을목표로하고있다. 이와같은도전이전국으로퍼지고 전세계적으로퍼질수있도록전문가와젊은건축사들의노력을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도전을 위하여는전체설계에대한접근과설계교육에서의 빠른 변화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2010년의 과제'는 디자인 교육의 변화를 위한 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목표를설정하고진행하도록하고있다.

### 미국AIA 지식커뮤니티

미국 AIA는 20개의 실무관련 지식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다. 이는 AIA 회원들이 특정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며,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는 건축사들 간의 장의 만들기 위

함이다. AIA 회원들이 AIA를 통하여 연결되는 것으로, 지역 단위로 묶일 수 있으며, 또한지식에의한교류도지원한다. 몇몇지역의 지식 커뮤니티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위한 지원 방안들이마련되어있다. AIA는 지역 단위에서 지식 커뮤니티를 설립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문서를 만들었다. 이문서는 회의를 어떻게개최할 것인가로부터그들의이벤트를마케팅하기위한광고템플레이트까지다양한내용을담고있다. 지식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비된문서는다음과같다.

회의개최 가이드라인 : Sharing Knowledge: A Small Project Practitioners Roundtable Toolkit

이 문서는 성공적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회의 개최를 위한 10단계의 행동지침과 함께, 일상적 질문내용들을정리하여놓았다.

AIA COTE의 가이드 : AIA COTE Chapter Guide for State and Local Committees on the Environment

COTE (The Committee on the Environment)는전문가와건설산업, 학계, 그리고실무디자인에관련된사람들이건물과 자연 시스템을 통합하여 디자인의 질과 환경적 성능을거주환경에 증진시키고자하는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에서 만든지식 커뮤니티의 가이드를 케이스로 제공하고 있다.

워크숍 개최를 위한 팸플렛 등의 실례 : Sampl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Workshops

지식 커뮤니티와지역 AIA간의 계약서를 제시하고있다

워크숍 가이드라인 : Knowledge Community Workshop Guidelines

워크숍개최를위한가이드라인

위원회 여행 가이드라인 : Committee Travel Guidelines

위원회의여행가이드라인

광고템플릿: Advertising Template  
지식커뮤니티와관련한행사에서사용할수있는광고템플레이트

커뮤니티 주소 : List of Current Local and State KCs and those interested in beginning a KC, compiled from the annual KC survey and component survey

현재의 지역 및 주 단위 지식 커뮤니티의 명단과지식커뮤니티를시작하고자하는명단을제공하고있다.

플래시를 이용한 광고 : Macromedia Flash Advertisement

60초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지식커뮤니티 행사와 관련하여사용할수 있으며, 스크린 세이버나 이벤트의 소개 등에 사용할수있다.

설명자료 : Knowledge Community Benefits (Powerpoint presentation)

지식 커뮤니티의 장점에 대한 설명 발표자료. 지역및주단위레벨에서다양한지식커뮤니티와활동들을소개하고있다.

### 시저 펠리의 안다루시아 고층건축 계획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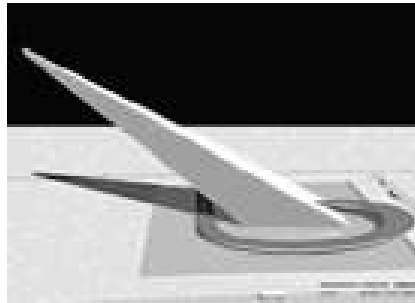


시저펠리에 의한안다루시아고층건물계획안

스페인의 세빌은 금융의 중심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 왔으며, 안다루시아 푸에토트리아나개발계획은이러한시당국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 지역 개발계획 현상공모에서시저펠리의178m 고층건물계획이당선되었다. 안다루시아 푸에토 트리아나 개발계획은 대규모 오피스빌딩과 뮤지엄, 상업지역과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행로도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시저 펠리에 의하여 설계된건물은옴니맥스영화관옆에위치할

것으로, 이 영화관은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2006년에 철거되었다. 시저펠리의고층 안다루시아의 가장 큰 건물이 될 것으로 21세기세빌의새로운심볼이될것이다.

### 건축사오스카니에메이에르의조각상



건축사오스카 니에메이에르의조각상 계획안

CARACAS, VENEZUELA. -

브라질출신의건축거장인오스카니에메이에르(99)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남미 독립의 영웅 시몬 볼리 바르(1783~1830년) 장군을 위한 대형 조각상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베네주엘라 대통령 차베스는 카스트로를 방문하였으며, 그에게 브라질건축사 오스카니에메이에르가 가져 온 스케치를 보여주었으며, 그의 회복에대한축하로건네주었다.

이 모뉴먼트는 아빌라 산 꼭대기위에 300ft 크기로 세워질 예정이다. 니에메이에르는 최근 차베스를 만나 이 조각을 제안하였다. 조각상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작품은 물로 만들어진 거울에 둘러 싸인 기울어진 삼각형 형상을 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너무 공격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고이야기 하고 있으나, 미국의 부시에 대항하여 저항 운동을 벌이는 베네주엘라를 표현하고있다고 건축사는 이야기하고있다.

### 아부다비의문화시설계획

아부다비의문화시설공단에의한네개의 야심찬 작품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작품들은 프랭크 게리에 의한 구겐하임 아부다미, 장 누벨에 의한 고전뮤지엄, 안도 다다오에 의한 마리타임 뮤지엄, 자하 하디드에 의한 예

술공연 센터이다. 프랭크 게리의 구겐하임 아부다미는현대박물관으로중동지역의 유일한건물이될것이다. 자하하디드는음악, 연극, 무용공연을 위한 사이아트 예술공연 센터를 계획하고 있다. 장 누벨은 고전 뮤지엄을그리고안도다다오는아랍에미리트와아라비안걸프의풍부한해양역사를전시할마리타움뮤지엄을계획하고있다.

이들 계획안은 특별 전시의 형태로 아부다비의 에미레이트팰리스 호텔에서 이루어졌으며, 사디아트 섬의 문화지구의 건물 모델들을 전시하였다. 이 밖에 관광청은 유나이티드아랍에미리트의첫대통령을기념하며, 아부다비의 역사와 전통을 위하여 세카 지드 국립 박물관을 설계할 건축사 선정을위한국제공모전을열것을발표하였다.

게리의 구겐하임 아부다미 뮤지엄은 320,000ft²의규모로세계에서가장 커다란구겐하임뮤지엄이다. 전시공간은 130,000ft² 규모가 될 것이다. 영구 소장품의 전시, 특별전시를위한갤러리, 예술과기술센터, 어린이를 위한 예술교육센터, 자료실, 도서관, 그리고연구소, 그리고최신시설의보존실험실이들어설예정이다. 이디자인은4층의 건물로 중앙의 코어 갤러리들이 중정 주위에배치된형상을하고있다.

하디드의예술공연센터는62m 높이로, 5개의 극장을 가지고있다. 이 센터는 공연예술 아카데미와 함께 음악 홀, 콘서트 홀, 오페라하우스, 드라마극장과, 그리고6300석 규모의가변형극장이계획되어있다.

장 누벨의 고전 뮤지엄의 디자인 개념은 사시야의 국가적 주변을 나타내고 있다. 섬은 거친 조경을의미한다. 이 건물은 커다란 돔에 의하여 덮여있으며, 방문객은 그 안의 다른 세계를 경험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돔은 다양한 망의 형태로 반투명하여 빛을 투과한다. 물을 도입하여 건물의 모든 부분을 반영하며, 바람이 불어감에 따라 미세 기후를조절하게된다.

안도의마리타임뮤지엄은아부다미국가 환경과 조경, 그리고 해양적 전통을 표현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바다와 땅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배를 타고 방문객은 내부 전시공간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는 시각적으로 뮤지엄 건축 전체에 대한 경험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하에 거대한 아쿠아리움을 위한 리셉션 홀이 배치되어 있다. 전통적배가이 아쿠아리움 위를 다니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단순하고 강력한 개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변 조경은 그리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대지의 전면의 나무들은 오아시스와 같은 경계를 이루며, 방문객들에게 동적도시와뮤지움의 조용하며 관조적 공간으로의 변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 록펠러재단에의한새로운건축상제정

록펠러 재단은 \$20만 상금의 '제인 제이콥스메달' 상의제정을발표하였다. 이상은 뉴욕에서 도시 디자인에 중대한 공헌을 한 개인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매년 두 사람에게 시상될 예정이다. 한 사람은 생애를 통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장래가촉망되는사람에게주어질예정이다.

제이콥스는 무명의 젊은 시절 1958년에 이 재단으로부터 \$1만의 기금을 받아 '위대한 미국 도시들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1961년에 발간된 이 책은 그린위치 마을과 같이 이웃 간의 얽혀진 네트워크를 묘사였다. 1950년대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비판하였으며, 현재를 통하여 어떻게 도시들이움직이는가에대한생각에중대한영향을미쳤다.

제인 제이콥스의 사물을 보는 방식은 과거 20년간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고 뉴욕의 건축비평가이자교수인폴골드버거는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는 이 메달의 심사자이기도하다. 이상에대한추천대상자는록펠러재산 웹사이트에 3월 2일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상의 수상자는 6월에 발표될 것이며, 수상에 대한 식은 9월에 열리며, 동시에전시회가열릴예정이다.

### 대중이좋아하는미국건축물 150

미국 AIA는 '미국이 좋아하는 건축물' 150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결과는

1,804명의성인을 대상으로 한조사의 결과이다. 순위는 혁신적인 디자인이 아닌 실제 사람들이 실제건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이조사는 건물의 미적 아름다움이나건물의깊은의미를반영하고있지는 않다. 투표는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48개의 건축물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고, 각건물에대한점수를1부터5까지 매기도록하였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백악관이2위를차지하였다. 금문교가 5위를 하였으며, 4위는 제퍼슨 메모리얼이차지하였다. 시어스타워는 42위를, 트랜스 아메리카 피라미드는 61위를, 샌프란시스코시청은 49위를차지하였다.

AIA에서는 일반대중과의 교감을 위하여 이번 조사를 수행하였다. 디자인 전문가의 견해에 의한 최고의 건물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축물안에서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사람들의감성적유대감또한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조사의 결과는[www.aia150.org](http://www.aia150.org)에서볼수있다.

### 영국노스햄프턴도심재생계획



영국노스햄프턴 도심재생을위한  
브라운 코비 지역 시민 허브센터계획안

영국 노스 햄프턴 도심 재생을 위한 호킨 브라운 코비 지역 시민 허브센터 계획안 심사가 완료 되었다. 이 계획안은 설계공모전에 의한 당선작으로 £2,610만의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1세기의 행정, 상업, 문화 시설을 엮어 이전의 철강 도시를 재생하고자하는프로젝트의일환이다.

이 계획의 제 1단계는 파크랜드 게이트웨이 개발 사업으로 호킨 브라운의 허브 센터와 새로운 랜드마크인 50m 수영장 시설이 있다. 이두건물은새로운도심에위치하며, 그랜트사에의하여설계된코비보도라고불

리우는 보도에 의하여 도시의 다른 곳과 연결된다. 이들 건물들이 새로운 도심 광장에 위치하며, 코비 허브건물은 도심의 중심 역할을할것이다. 이와같은도시의중심적역할을최대화하기위하여, 코비허브는네개의생동적입면으로계획되어있다.

이 건물의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물들이있다.

- 현대적 445석의 극장과 예술 공간, 추가적스튜디오공간
- 현대적도서관
- 지상층의카페와미용실
- 도시를조망할수있는지붕층레스토랑
- 기념품점및사무실
- 시의공식행사를위한공간
- 테라스루프가든

### 전시회및공모전

#### 시계루반의눈을통한알바알토전시회

알바 알토의 작품을 일본 건축사 시계루반의 눈을 통한 회고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시회는 알토의 건축적 스타일의 발전을 핀란드, 덴마크, 스칸디나비아에 세워진 14개의그의중요한프로젝트를모델, 도면, 사진등을통하여조명하고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파이미오 투베르쿨로시스 사나호리움(1929~33), 빌라 마이레(1938~39), AA-시스템 하우스(1937~45), 실험 하우스(1952~53), 북 주트랜드 예술뮤지움(1958~72), 그리고사잉나조키 도심 개발(1952~87) 등이 있다. 알토는 건물의구조뿐만아니라실내에도많은관심을 기울였으며, 이 전시회는 그의 다양한 범위의디자인을볼수있다. 이전시회에서는적재 가능한 의자, 다양한 가구, 유리제품, 조명기구, 직물 등의 작품을 볼 수 있으며, 많은 작품들이 1935년에 세워진 핀란드 디자인회사아르텍에의하여지속적으로생산되고있다.

알토는 일본 건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  
인정신과 자연 재료에 대한 이해의 능력에  
있어 존경을 받아왔으며, 60년이 지난 오늘  
일본의 건축가 시게루 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전시회는 시게루 반의 주요 작품  
들이 알토의 유기적 접근방식으로부터 영향  
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은 자연적  
카드보드, 대나무, 나무 등 자연적 재료와 재  
생재료의 활용으로 유명하며, 이 전시회에  
서 그의 작품 Paper Log House (1995), 하  
노버엑스포의 Japan Pavilion (2000)과 함  
께 최근 메츠의 새로운 풍피두 센터 작품  
을 같이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회에서는 두 건축사의 시대적 그  
리고 지리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제  
에 대한 연관성을 비교 전시하고 있다. 이 전  
시회는 시게루 반에 의하여 큐레이팅 되었으  
며, 핀란드 대사관과, 일본 재단이 후원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영국 바비칸 아트 갤러리  
에서 2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개최된다.

###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디자인 포털

어린이들이 건축과 환경에 보다 많은 관  
심을 갖도록,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는 'Which Places Work'  
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는 11세 -  
16세 아이들을 위한 웹 포털로 특정 건물의  
개인적 경험에 의한 '좋은 디자인'의 개념을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호환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CABE의 이 프로그램은 다른 교육 프로그  
램인 'How Places Work'와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BSF)' 프로그램  
과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다. BSF 프로그램  
은 학교 건물을 좋게 만들기 위하여 정부와  
함께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다. 'Which  
Places Work'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그들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평가와 건설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 MVRDV 전시회

로테르담에 소재하고 있는 사무소  
MVRDV의 벨기에 첫 전시회가 열린다. 이

전시회는 부뤼셀 예술 미디어 센터인 아르코  
스가 전시 공간의 개보수를 MVRDV에 맡긴  
후 열리고 있다. MVRDV는 그들의 설계와  
연구가 건축, 도시, 조경 디자인 분야에서 유  
명하며, 특히 그들의 밀도, 도시 데이터, 오픈  
스페이스, 건축물의 환경적 영향 등에 관  
한 것으로 유명하여졌다.

MVRDV는 그 이슈를 건물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각 과제에 대한 개념적 탐구와  
분석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MVRDV는  
혁신적 공간 파라다임으로 잘 알려져 있으  
며, 건축에 대한 사회적인 접근 방식, 특히  
밀도와 공공성에 관한 그들의 급진적 방법론  
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디자인 과정, 공간,  
그리고 형태를 위하여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  
의 사용과 탐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러한 접근 방식에 따른 결과물은 다양하다.  
모든 형식과 크기의 건물들, 도시 디자인, 출  
간물과 설치 미술, 비디오 작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들이 있다.

### 숨쉬는 벽 전시회



프랑스 건축가 제이콥 + 맥파레인에 의한 숨쉬는 벽 전시회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사이아  
크 갤러리는 숨쉬는 벽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불란서 건축사 제이콥 +  
맥파레인에 의하여 전시되고 있다. 이 프로  
젝트는 '이론적 건물'로 일반적인 창문이나  
문이 없는 건물을 제안하고 있다. 대신, 임시  
적 개구부가 공기의 유통, 사람, 빛을 위하여  
잠시 열리고 닫히는 개념이다. 합성수지로  
덮힌 알루미늄과 경량 카드보드로 이 동적  
설치 작품이 만들어져 있다. 흥미로운 감각  
적 감성적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멀리 많은  
장래의 가능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상상의 세  
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들의 작품은 순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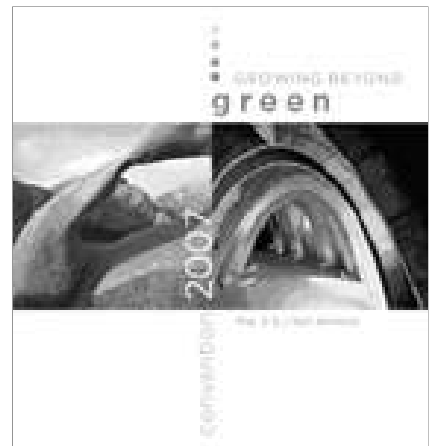
개념적인 면과 함께 유연한 인터랙티브 환경  
구현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실험을  
하고 있다.

### 주택외피의 변화 전시회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은  
실험적 현대 디자인과 미래의 생각에 관한  
주거 건축 외부 디자인에 관한 전시회가 열  
리고 있다. 건축의 외피는 세상을 향한 얼굴  
이자 변화의 실체로써, 개인적 것이기도 하  
며 또한 공공의 얼굴로, 우리 모두에게 집이  
라는 의미를 인상시켜주는 형상적 감각에 관  
한 전시회이다.

이 전시회는 새로운 주거를 요구하는 시  
대적 요구와, 외부에서 관점으로 어떠한 것  
이 좋은 주택 설계인가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다. 주거 건물이 인공적 환경의 80%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의  
감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  
로는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드는 방법론을 탐구  
하고 있다. AHMM, BKK-3, 브렌드랜드  
크리스토퍼슨, FAT, 마크레너 라빙톤,  
MVRDV, S333 그리고 윌킨슨 아이어가 참  
여하고 있다.

### AIA 2007 컨벤션 및 전시회



AIA 2007 컨벤션

AIA 2007 컨벤션 및 디자인 전시회가 5월  
3~5일에 걸쳐 산안토니오에서 열릴 예정이  
다. 250개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 60개의 투  
어, 그리고 40개의 이벤트와 800여 개의 회사들에  
의한 제품과 서비스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행사는건축사, 디자이너, 실내건축가, 조경 건축사, 엔지니어개발업자, 교육자, 제품 생산자및고객모두를위한행사이다.

## 플로리다 인사이드 아웃지 공모전: 집의 축소



고에너지시대를대비한플로리다 주택의축소공모전

미국마이애미비치에위치한 5,687ft<sup>2</sup> 연면적에2층규모의집을축소설계하는공모전이열리고있다. 이는2025년의비싼에너지가격과고령화에대비하여 2,000ft 크기의 집으로 축소하는 공모전이다. 집의 규모를 키우기는 매우 쉬운 일이다. 건축사는 이러한 것을 일상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집을 축소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이번공모전에서주어진과제는 9,500ft 대지위에마이애미해변히비스커스섬에지어진 집을대상으로하고있다.

축소설계 대상은2층의아름다운해변의저택이다. 5,687ft<sup>2</sup>의 규모로 4대의 차고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시설도 갖추고 있다. 5개의 침실이 있다. 안방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200ft 크기로 500ft 크기의발코니가있다. 두개의클로젯방이있으며, 욕실을 갖추고 있다. 욕실에서 해변을감상할 수 있다. 2,500ft<sup>2</sup> 크기의엔터테인먼트테라스가지붕에있으며, 부엌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 이제 에너지 비용을 생각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다투존스 시장 보고서는 2004년에 비하여 2005년에 난방비로 14%를 추가 지출하였다고 한다. 플로리다의 경우 냉방을 위하여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여 왔다. 지구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에너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어날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적변화에 따라 집의크기를 보다 작은 크기로, 남부 플로리다에 적합한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물론플로리다에다치는허리케인에대한배려를 하여야 한다. 선정된 작품은 6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9~10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 디지털

### 윈도우비스타와CAD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비스타가 지난 1월 30일 출시되었다. 그 후 비스타에서 CAD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CAD를 사용하기위하여는비스타가적합하지않은많은 이유가 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사양이 최고의 수준이 필요하다. 최고사양의 하드웨어뿐만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작동문제까지속되고있다.

오토데스크관계자는현재자사의CAD의작동을위하여는패치를다운로드받아설치하여야한다고이야기하고있다. 비스타에서 제대로작동기위하여는다음버전의오토데스크 제품을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비스타 환경에서제대로사용할수있는제품은올해 하반기에출시될것으로전망된다.

### 전자출판 형식의 격돌 PDF 대 XPS - DWF

현재전자출판을위하여많은사용자들이 아도비PDF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는 XML Paper Specification (XPS)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XML 기반전자문서이다. 이는문서의자유를위한새로운표준이라고이야기하고있으며, 이는 오토데스크사의DWF 문서 포맷을 포함하고 있다. XPS에서 DWF를 사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는CAD 기반뷰잉포맷을

갖게 되었다. 현재 DWF는디자인의 기하학적 데이터 이외에 메타 데이터를 갖고 있다. 현재의쉐어포인트데이터관리기술과함께 DWF를 함께 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스타에서 기초적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의 초보적제품을갖게되었다. 윈도우비스타에서 DWF 기술을사용은지난오토데스크유니버시티에서작년 11월선보였다.

한편 아도비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스타의 최종 버전을 기다려 아크로벳 8.0과의 호환성을 시험할 예정이다. 현재 윈도우 비스타에서 DWF를 볼 수 있는 기능은 2D에 한정되어있다. 2D DWF를저장하고, 크기를조정하고, 측정할수있으며, JPG나TIFF 등의 그래픽 포맷을 지원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5년 오토데스크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전략적제휴의일환으로진행되고있다.

### AutoCAD 2008 출시

3월AutoCAD 2008 제품군이출시될예정이다. 범용 CAD 제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품이출시될예정이다.

- AutoCAD® 2008
- DWG TrueView™ 2008
- Autodesk® Design Review 2008
- Autodesk® VIZ 2008
- AutoCAD® Raster Design 2008

오토캐드 2008은 빠르고 손쉽게 문서화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전문적 디자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오토데스크사는 오토캐드 LT 2008을 출시하였다. 이는 2D만에초점을둔생산성을높여 출시하고있다.

오토캐드디자인리뷰 2008은 2D와함께 모델기반의정보를협업을위한소프트웨어이다. 오토데스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디자인 리뷰를빠르게할 수있는기능인 도면보기, 치수측정과마크업기능이있다. 이는 CAD 소프트웨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 팀과 다른 전문가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구로사용할수있다. CAD 파일과 함께 워드프로세싱 문서,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도볼수있도록되어있다.

건축분야에서는다음과같은 제품들이출시될예정이다.

- AutoCAD®Architecture 2008
- AutoCAD®MEP 2008
- Revit®Architecture 2008
- AutoCAD® Revit® Architecture Suite 2008

오토캐드 아키텍처 2008은 ADT의 새로운이름으로문서화에따른작업의단순화에노력을 하고 있다. 새로운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 자동화된 스케일 조절 기능과 치수 등의 설계 변경에 따른 도면 자동 업데이트기능
- 설계 변경에 따른 설계 요소의 자동 갱신기능
- 새로운 도면의 비교기능. 설계 변경에 따른비교표시기능

오토데스크사는 래빗 빌딩으로부터 래빗 아키텍처 2008로이름을바꾸었다. 이 소프트웨어는 오토데스크사의 3차원 건물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실제 건물의 형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래빗의새로운기능은다음과같다.

- 모델 정보에 대한 개선된 관리와 DWF에대한지원
- 구글어스플러그인의기능
-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3ds 맥스와의보다넓은호환성

윈도우 비스타에서 오토캐드 2008과 오토캐드 LT 2008은 32비트와 64비트 윈도우 비스타 홈 베이식, 홈 프리미엄, 얼티미크, 비즈니스와 엔터프라이즈와 호환될 것이다. 그리고 오토캐드 2007과 오토캐드 LT 2007의 경우 비스타 32비트 버전에서 운영될 수 있는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할 것으로예상된다.

## 2007년 CAD의5가지동향

2007년 CAD에 관한 5가지 동향이 예측되고 있다. 첫째는 인터넷의 강화이다. 인터넷은 CAD 시스템과 사용자에게 필수 불가결한요소로발전하고있다. CAD 관련인터넷

넷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구입, 기술 지원, 교육, 서비스, 자료 등. CAD는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 시트와 달리 온라인에서의직접적사용이가능하게될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규모 사용자와 소규모 사용자 간의 격차이다. 대규모 구입자와 중소규모 구입자 간의 차이가 분명하여 질 것이다. 전통적소매업자들의경우 여러 개의 카피를구입하거나비싼서비스를원할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개인이거나 작은 사무소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구입과 훈련, 서비스만이강화될것이다.

세 번째로 종이 출력의 감소와 보다 넓은 자료교환 형식의 확대이다. 수년간 이와 같은 노력이 진행되어왔으며,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해가 될것이다. 협업이 보다 강조되며 CAD의 시각화의 중요성이 설계에 보다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오토데스크의 DWF, 아도비 아크로벳 3D 등을 이용한자료교환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네 번째로 보다 넓은 문서화된 소프트웨어의 등장이다. 많은 경우 설명서 책자가 사라지고 있다. 사용자는 무거운 매뉴얼을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현재 도움말 파일과 PDF 문서는 사용자를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지능적이며, 통합적 사용이 편리한 문서가 등장할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SolidProfessor의 제품은미래의문서가어떠한형식일것인가를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강화이다. 가격경쟁과판매사들에대한마진폭의감소로 무료 기술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섀프립션에 의한 구입이나 전화상담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기술적 지원이 없어진 상황이다. 이에따라CAD 사용자들은기술적지원을위하여온라인커뮤니티에의존하게되었다. 앞으로는 이들 사용자 그룹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와기술적발전에대한영향력이증대할것이다. 라이노커뮤니티가다른제조업자나제삼자제공업자의모범이되고있다.

벤틀리사 구조 분야를 위한 키위 소프트웨어사인수

미국의 벤틀리사는 1월 말 플랜트, 건물 및토목구조물을위한구조모델링, 디테일, 제작 소프트웨어사인 KIWI 소프트웨어사를 인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KIWI 소프트웨어사의 대표적 제품으로 ProSteel 3D가 있다. 이제품은오토캐드, 인벤터, 마이크로스테이션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철골디테일와제작을위한세계적소프트웨어이다. 현재 ProSteel 사용자는 6,000명이 넘는다. 이소프트웨어는철골구조, 철골건물 시공, 플랜트 시공, 설비와 중장비의 운송, 알루미늄 시공, 그리고 선박구조용으로 사용되고있다.

이와 같은 벤틀리사의 움직임은 2005년 건물 구조엔지니어링 분야소프트웨어사인 램 인터내셔널을인수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대표적인구조디자인과해석프로그램인 STAAD를 인수한 이후 계속되는 움직임이다. 이는 벤틀리가 건물, 토목, 플랜트분야모두에서 계획에서부터운영까지 모든 분야를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을 포괄하려는노력의일환이다.

## 벤틀리사프로젝트와이스네비게이터발표

벤틀리사는 프로젝트 와이스 네비게이터를 발표하였다. 이 제품은 디자인 리뷰를 위한 시각화 협업도구이다. 이 도구는 프로젝트 와이즈 서버와 연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현재 많은 디자인 회사들이 프로젝트진행을위하여사용하고있다.

프로젝트와이즈네비게이터의 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 시각화 환경에서의 프로젝트와 디자인 리뷰기능
- 시공스케줄에대한분석과 시물레이션과시공가능성의검토
- 시공과운영을위한지능적작업과정

## 벤틀사 벤틀리사의 프로젝트와이즈 사용 결정

미국의벤틀사는벤틀리의프로젝트와이즈 시스템을 인도의 잼나거 수출 정제소 프로젝트(Jamnagar Export Refinery

Project(JERP)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성을 감안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이 프로젝트는 36개월이라는 규모에 비한 짧은 공사 기간과 플랜트의 거대한 규모에 따른 것이다. 벡텔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하여 전 세계적인 기술과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세계의 10곳에서 2,500명의 전문가가 동원되며, 19개 사무소와 8개의 국가를 연결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90,000명 이상을 고용할 것이며, 철강 109,170톤이 사용될 것이며, 200만m의 다양한 크기의 파이프가 사용될 것이며, 4,000개 이상의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단 시간에 끝내기 위하여 벡텔사는 연결성, 문서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벡텔은 2D 파일 관리가 가능한 벡텔사의 ProjectWise 시스템을 선택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GS 건설 벡텔사와 기업 라이선스 섀프스 크립션 계약

2월 초 GS건설은 벡텔리의 기업 섀프스 크립션(Enterprise License Subscription (ELS)) 프로그램을 계약하였다고 발표하였

다. 벡텔리의 ELS 프로그램은 연간 고정액으로 전체 ELS 소프트웨어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모든 건축, 엔지니어링, 시공 및 지리 정보 프로그램으로, 건물, 플랜트 토목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 새로운 라이노 4.0 발표

수년간의 침묵 끝에 새로운 버전인 라이노 4.0이 출시되었다. 이는 기존의 3.0버전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개발팀은 이 새로운 버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이번 버전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와 기타 성능 향상을 위하여 800가지 이상의 기능 향상을 가져왔다.

주요 기능의 보완은 다음과 같다.

- 모델링 - 모델링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보완되었으며, 그 기능들이 보완되었다
- 저작 도구 - 새로운 저작 도구들이 선보이고 있다. 프리 폼을 보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며, 히스토리 기능을 통하여 다양한 곡면 형태 만들기 기능이 강화되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스마트 트랙 기술을 이용한 보다 나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비디오 클립을 이용한 도움말 기능
- 디스플레이 파이프라인 - 이 기능을 이용하여 속도를 개선하며, 보다 나은 디스플레이를 하며, 분석 도구와 듀얼 스크린 지원을 한다.
- 실사 렌더링 - 다양한 렌더링 방식의 수를 통한 실사 이미지 렌더링과 제3자 플러그인 기능의 지원
- 2-D 도면 - 2D 작성에 있어 스타일, 선의 굵기, 숨긴 선, 치수, 문양, 레이아웃, 프린트 기능의 보강
- 분석 - 디자인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 기능의 강화
- 대형 프로젝트 지원 - 계층적 레이어 관리, 파일 관리 등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호환성 (import / export) - 다양한 파일과의 호환성을 지원한다.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는 파일 형식은 PDF, AI 8+, STEP, DWG/DXF, PLY, DGN, FBX, SolidWorks, Google Earth, SketchUP 등이 있다. 

<제공: 윤기병(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992호)

### 1. 의결주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업 관련시설에 대하여기반시설부담금을부과하지아니하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보장시설에대하여기반시설부담금을부과하지아니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추가(안 제7조제1항제22호 내지 제24호 신설)

- (1) 현재 농촌의 축사등 농업관련시설과 장애인시설등에 대하여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러한 시설을 건축하는 데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2) 농촌지역에건축하는축사·버섯재배사등동물및식물관련시설, 친환경농산물의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위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을지원받아건축하는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회복지시설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및「노인복지법」에 따른 실비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3)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원활한 확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나. 기반시설부담금 경감대상 추가(안 제7조제3항제4호및제5호신설)

- (1)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됨에따라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고 서민의 주거안정을저해하는문제가있음.
- (2) 다가구주택의전부및 다세대주택의 일부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100분의 50만큼경감하도록함.
- (3)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건축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2호 내지 제24호 및 제7조제3항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신축·증축에 한하며, 다른법률에따른사업승인등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받는분부터적용한다.

③(가축분뇨처리시설에관한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22호다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7년 9월 27일까지는 동목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시설”로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부과제외 등)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br>1. ~ 21. (생략)<br>〈신설〉 | 제7조(부과제외 등) ①-----<br>-----<br>-----<br>-----<br>1. ~ 21. (현행과 같음)<br>2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동법에 의한 농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읍·면 전 지역과 동의 지역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br>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의 건축물 중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br>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br>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br>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粗飼料) 제조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농기자재보관시설<br>마.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br>바.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br>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항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br>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항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br>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br>차.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항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br>카. 「축산법」 제2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
| <신설>                                                                                                                                                                                                                            |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4 조제항제2호의 실비노인요양시설로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 ②(생략)                                                                                                                                                                                                                           | ②(현행과같음)                                                                               |
| ③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③-----<br>-----,<br>1. ~ 3. (현행과같음)                                                    |
| 1. ~ 3. (생략)                                                                                                                                                                                                                    | 4. 「건축법」 제2조제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
| <신설>                                                                                                                                                                                                                            | 5. 「건축법」 제2조제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부분 |
| <신설>                                                                                                                                                                                                                            | ④~ ⑦(현행과같음)                                                                            |
| 제18조(권한의 위임) ①(생략)                                                                                                                                                                                                              | 제18조(권한의 위임) ①(현행과같음)                                                                  |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반시설 부담금중 법제4조제1항에따른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귀속분은수납한날이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하고, 법제4조제1항및이영제3조제1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귀속분은법제4조제3항에따라설치된해당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기반시설특별회계에지체없이납입하여야한다. | ②-----<br>-----<br>-- -20일까지- --<br>-----<br>-----,<br>③~ ⑤(현행과같음)                     |
| ③~ ⑤(생략)                                                                                                                                                                                                                        |                                                                                        |





# 2007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문제출제 기준

이기준은 건축사자격시험의 문제출제 및 선정위원회에게는 출제의 중심 내용과 방향을 반영하도록 권고·유도하고, 응시자에게는 출제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출제 및 선정위원회에게는 이 기준의 취지를 문자 그대로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이 점을 참고하여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 제1장 ‘대지계획’ 문제출제 기준

### 1.1 출제범위

‘대지계획’의 출제범위는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등 6개 분야이며, 이를 선택 또는 복합하여 2개의 과제로 출제한다.

### 1.2 배치계획

#### 1.2.1 배치계획 과제개요

‘배치계획’ 과제에서는 주어진 규모의 건물, 시설물 등을 계획대지 내에 적정배치하게 하여, 배치 영향조건을 합리적으로 해석·종합하고 이를 일정한 규격의 도면(배치도)에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1.2.2 주요배치영향조건

- ① 대지 주변 자연환경 및 지역지구제 등 지역적 특성
- ② 방위, 대지면적, 대지경계선,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주출입구
- ③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거리
- ④ 대지 내외 기존 건물/시설물, 각 건물의 연계기능
- ⑤ 동선계획(사람, 물건, 차량) 및 주차계획
- ⑥ 건축물외부공간계획 및 조경계획(담장계획 포함)
- ⑦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위치, 공사기간중의 도로점용범위
- ⑧ 옹벽, 우물, 급배수시설,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쓰레기분리수거용기, 기타 부대시설 및 공공설비에 대한 계획 및 현황

#### 1.2.3 배치계획 출제유형

[출제유형1] 제시조건을 고려한 도심지역 내 건물배치

계획대지가 도심지역에 위치한 경우, 계획대지를 둘러싼 도시환경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예1)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를 계획하는 경우, 계획대지에 인접한 다른 건물이나 독특한 성격 가진 외부 공간 등 주변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시설을 배치한다.

예2) 계획대지가 여러 건물에 근접하여 있는 경우, 인접대지 내 건물의 조건과 면밀하게 관계를 맺는 별동을 증축하거나, 제시된 도로의 성격을 반영한 외부 공간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한다.

[출제유형2] 자연환경을 고려한 교외지역 내 건물배치

계획대지가 도시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경우, 조망·자연지형의 이용 등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

예1) 교외로 나들이 하러 나온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인 경우, 자연 지형의 경사를 이용하여 내·외부의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을 배치한다. 이에는 옥외 공간구성 및 동선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예2) 계획대지의 주변 성격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면적이 충분히 넓어서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경우, 자연적 요소를 주제로 하여 건물을 배치한다.

[출제유형3] 자연환경, 대지 내 기존 건축물 등을 고려한 건물배치

계획대지 안에 위치한 자연환경 요소 또는 기존 시설물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예1) 계획대지 안에 강한 암반이나 보호수와 같은 자연환경에 맞추어 초등학교를 배치하는 경우, 기능·면적·향·소음원에서 이격하는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실동, 지원동, 체육관 등과 같은 필요시설을 배치한다.

예2) 계획대지 안의 기존 건물에 대하여 증축을 고려하거나 인접대지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격거리·필요한 옥외공간·요구되는 동선 및 주차 등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배치한다.

[출제유형4] 철도, 도로 등 제약조건을 고려한 건물배치

계획대지 내외의 제약조건에 따라 여러 건물을 적절히 인접시키거나 이격하는 문제가 배치계획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예1) 철도,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계획대지에 철도역사, 기념관, 여행안내소 등을 배치하는 경우, 여러 건물을 주어진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분리·연결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불필요한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주어진 기능을 배치한다.

예2) 제시된 건물 중 일부를 계획대지 안에 미리 배치하고, 면적 등 제시조건을 고려하여 이미 배치된 건물과 함께 다른 건물들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 1.3 대지조닝

### 1.3.1 대지조닝 과제개요

‘대지조닝’ 과제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규모 제한조건을 고려한 최대 건물 규모(높이)를 계획하는 것으로서, 규모 제한조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건물높이를 결정하고 이를 일정한 규격의 도면(대지조·형단면도 등)에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대지분석과 함께 종합적으로 출제될 수도 있다.

### 1.3.2 '대지조닝' 관련 주요 규모 제한 조건

- ① 건축선, 사선제한, 일조권, 용적률, 층수, 지역지구제등법규상제한조건
- ② 지형, 지반조건, 지하수위, 홍수위, 지하매설물, 일조, 일영등계획적제약조건

### 1.3.3 '대지조닝' 출제유형

[출제유형 1] 규모 제한조건을 고려한 단면상건축가능범위(층수등) 결정

법규상의 높이제한, 이격거리제한, 지반고의 차이, 기타 계획조건을 고려하여 건축이가능한단면상범위를결정하는기본능력을평가한다.

예 1) 계획대지의등고선또는전면도로의너비에 따른 각종 높이 제한과 사선제한 등 법규상의 제한과 지반조건, 지하수위, 홍수위, 지하매설물, 일조, 일영 등 계획적인 제약을만족시키면서건축가능한공간의크기를단면으로나타낸다.

예 2) 층고를 명시하여 건물의 층수를 결정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지하층의 규모를 검토한다.

[출제유형 2] 가상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가능한건물의규모결정

인접한 도로와 대지 지표면의 높이 차이로생기는가상도로면과가상지표면을설정하고, 가상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 가능한 건물의규모를결정하는능력을평가한다.

예 1) 일반주거지역 안의 도로에 접하는 두인접대지에대하여각종후퇴거리와높이제한, 제시된 층고 등을 만족시키는 건축이가능한범위를배치도에지상과지하로나누어표시한다.

예 2) 도로와 계획대지의 경사도, 지표면의 높이 차이 등을 만족시키는 건축이 가능한범위를배치도에표시한다.

[출제유형 3] 경사대지내인동거리등을고려한건축가능범위결정

건축규모 제한에 관한 법규를 대지에 적용하여 건축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파악한 다음, 이 규모가 건축적으로 적정하지를 검토하는능력을평가한다.

예 1) 도로 및 일조권에 따른 높이제한 규정,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 건축후퇴선 등을 만족하면서, 제시된 층수가 경사

진 대지에지어질 수 있는규모를 대지 단면에표시한다.

예 2) 고저차가큰대지안에공동주택등2동이상의건물을계획할경우최소인동거리를검토하여건축이가능한범위를표시한다.

## 1.4 대지분석

### 1.4.1 '대지분석' 과제개요

대지분석 과제는법규에의한건축물의규모제한과각종장애물을고려하여평면또는단면의크기와모양을계획하는과제로서, 제한조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적정 건물규모(평면또는단면의크기및모양)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 과제는 대지조닝과함께종합적으로출제될수도있다.

### 1.4.2 '대지분석' 관련주요제한조건

- ① 건축선, 사선제한, 일조권, 건폐율, 건물최고높이등법규상제한조건
- ② 인접 도로 레벨 차 및 경사, 문화재 인접, 공동구대지관통등장애물

### 1.4.3 '대지분석' 출제유형

[출제유형 1] 규모 제한조건 및 장애물을고려한건축가능범위(단면) 결정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이격거리확보 규정에 따라건물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을 단면으로확인한다.

예 1) 각 경계선에서 지상층 건축 후퇴선, 건물최고높이등법규및제한규정에따라건축이가능한부분을단면으로표시한다.

예 2) 대지에접한도로면이경사지거나도로와대지의높이가다른조건을만족하면서건축이가능한부분을단면으로표시한다.

[출제유형 2] 건축 가능한 층고 및 층별평면면적산정

대지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장애물이나 건폐율 등 평면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건물을배치할수있는영역을측정한다.

예 1) 문화재가인접하고공동구가대지를관통하는계획대지에서여러조건을만족하면서건축이가능한범위를표시한다.

예 2) 층별 층고를 제시한 후 층별로 가능한수평투영면적을표시한다.

## 1.5 대지단면

### 1.5.1 '대지단면' 과제개요

'대지단면' 과제에서는대지조건 및 요구기능을 파악하여대지의 변형을 최소화하거나 절토와 성토의 균형을 이루면서 주어진 높이의건물과외부공간을배치하고이를표현하는능력을측정한다.

### 1.5.2 '대지단면' 관련 주요 조건 및 요구기능

- ① 지반상태, 지상과 지하의 시설, 풍향, 식생, 동결심도, 대지경계선, 지역지구제등의대지조건
- ② 차량 및 보행자 접근로, 배수, 소방 및 피난, 장애인 이용, 건물의 특성 및 프로그램등에의한요구기능

### 1.5.3 '대지단면' 출제유형

[출제유형 1] 지반의 암반상태와 절토및성토를고려한배치및단면계획

제시된경사지에지반의암반상태를파악한 후 절토와 성토의 균형을 이루면서 주어진 건물과 옥외 구조물의 단면을 계획하고 건물을배치하는능력을확인한다.

예 1) 경사가 있는 계획 대지에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지 안의 등고선을 적절히 이용·변경하여제시된 건물과 시설물을배치한결과를단면으로표시한다.

예 2) 지형의 고저 차이를 자연적인 물매만이아니라적정한높이의옹벽으로변경하여표시한다.

[출제유형 2] 대지조건 및 요구기능을고려한건물및옥외구조물배치

계획 대지 안에 설치하는 지하 매설물을 보호하며 제시된건물과 옥외구조물을 배치한다.

예 1) 계획대지 안의 등고선을 적절하게 이용·변경되되 지하매설물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주어진 건물을 배치한 결과를단면으로표시한다.

예 2) 풍향, 식생, 동결심도, 차량 및 보행자접근로, 배수, 소방및피난, 장애인이용, 건물의 기능적 특성 및 프로그램 등에 의한 제약을해결하고건물을배치한결과를단면으로표시한다.

[출제유형 3] 서로 다른 건물을 배치하면  
서 건물규모 및 높이를 설정

제시된 평면을 주어진 조건에 따라 대지  
안에 배치하면서 건물 규모 및 높이를 설정  
하는 것을 확인한다. 이 유형은 지형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출제될 수도 있다.

예 1) 지형이 경사진 계획대지에 계단과 옹  
벽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  
토량을 최소화하면서 필요 시설을 배치한다.

예 2) 지형이 경사진 계획대지에 전망, 장  
애물 등을 만족하면서 기능과 조건이 다른 2  
3개 이상의 건물을 배치한다.

## 1.6 지형계획

### 1.6.1' 지형계획 과제 개요

‘지형계획’ 과제에서는 지형 등 자연환경  
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대지를 조성케 하고,  
제시된 설계조건에 따라 대지의 지형을 조정  
하게 함으로써 설계조건에 대한 이해력과 대  
지 조성 관련 지형계획 능력을 측정한다.

### 1.6.2' 지형계획 관련 주요 설계조건:

- ① 대지의 지형 및 지질
- ② 대지 내 우수의 흐름, 공동구, 우수관,  
오하수관
- ③ 대지 내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수목  
상태 등

### 1.6.3' 지형계획 출제 유형

[출제유형 1] 등고선 조정 및 건축물 배치  
(포장바닥높이 결정 포함)

주어진 지형의 고저를 조정하고 대지 안  
에서 우수의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  
며, 지질조사 결과물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예 1) 주어진 대지의 형상과 지질조사 결  
과를 고려하면서, 건물을 적절한 위치에 배  
치하고 우수가 원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등  
고선을 변경한다.

예 2) 도시안에 있는 대지에서 각 지점마  
다 포장할 바닥의 높이를 결정하고 공동구,  
우수관, 오하수관 등을 고려하여 우수처리  
를 계획한다.

[출제유형 2] 기존 자연지형 유지 조건부  
건축계획

주어진 자연지형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필요한 면적을 가진 시설을 계획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예 1)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사지에 클럽  
하우스와 부속 시설을 계획하는 경우, 진입  
하는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지형을  
조절하며 필요한 시설과 면적을 나타낸다.

예 2) 경사지에 이미 설치된 건물과 옥외  
구조물을 이용하여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도  
록 여러 개의 증축 건물을 배치한다.

[출제유형 3] 대지 단면 조건에 따른 건축  
물 배치

계획대지의 단면 조건에 맞추어 요구 규  
모(평면과 단면의 크기)의 건축물을 배치하  
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 유형은 대지 단면과  
함께 출제한다.

## 1.7 대지주차

### 1.7.1' 대지주차 과제 개요

‘대지주차’ 과제에서는 계획대지 내 각종  
동선, 진입도로의 성격과 대지조건 및 주변  
환경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주차장 계획  
능력을 측정한다.

### 1.7.2' 대지주차 주요 평가 요소

- ① 주차 배치(주차 면적 및 주차 대수 등)  
의 적정성
- ② 차량동선, 보행자동선, 하역동선 등 각  
종 동선 계획의 적정성
- ③ 진입도로, 대중교통정류장, 대지 주변  
의 교통흐름과 체계, 차도 및 보도 등에  
대한 계획 내용
- ④ 대지 내 교통체계, 택시승강장, 소방도  
로 확보 상황 등
- ⑤ 대지 내 기존 시설물, 증축 예정 건축물,  
지하주차장, 지상 기계식 주차시설 등  
대지조건에 대한 처리 내용
- ⑥ 대지 내 자연환경 요소(천연기념물, 보  
호수 포함), 지형(경사지의 고저차 포  
함) 등의 환경 요소와 인접도로(진출입  
도로 포함) 관련 처리 내용 등

### 1.7.2' 대지주차 출제 유형

[출제유형 1] 차량동선의 성격, 대지 지형  
등을 고려한 주차장 계획

성격이 다른 자동차 동선이 같은 대지 안  
에 있을 때, 이를 적절히 분리하여 대지면적  
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주차장을 계획하는 능  
력을 측정한다.

예 1) 차량의 성격에 따라 동선을 계획하  
고, 건물의 출입구와 연계한다.

예 2) 경사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을 계획한다.

[출제유형 2] 대지조건 및 주변환경을 고  
려한 옥외주차장 계획

대지안에 위치한 자연환경 요소와 기존 시  
설물을 고려하며 주어진 크기의 주차장을 동  
선에 무리 없이 확보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예 1) 병원이 위치한 대지에서 인접한 도  
로의 폭과 성격에 따라 차량 진출입 도로를  
설정하고, 증축을 대비한 옥외 주차장을 계  
획한다.

예 2) 대지의 한가운데 있는 천연기념물인  
보호수나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를 동시에 고  
려하며 주어진 주차대수를 옥외주차장으로  
해결하거나, 기존 건물의 증축에 따라 주차  
장을 변경한다.

[출제유형 3] 주변환경 및 장래 수요 증가  
를 고려한 옥외주차장 계획

지하주차장이나 지상 기계식 주차장이 옥  
외주차장과 함께 계획되는 경우 동선에 무리  
없이 제시된 크기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능력  
을 측정한다.

예 1) 지하주차장 계획을 고려하여 주차장  
진입경사로의 방향을 결정하고, 보차 동선  
이 교차하지 않고 이용자 승하차 공간과 장애  
인 주차공간 등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예 2) 기존 건물의 위치와 지하주차장 출  
입 경사로 및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장  
래의 주차타워를 고려하여 표시한다.

## 제2장 '건축설계 1' 문제 출제 기준

### 2.1 출제 범위

‘건축설계 1’은 건축설계의 기본인 평면  
설계로서, 제시조건에 의거 건축공간을 구

성하고 동선을 계획한 내용을 평면적으로 표현하게 하여, 건축계획 및 표현 능력을 측정하고 건축설계 실무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 및 전문 지식 습득 수준을 평가한다.

## 2.2 평면설계

### 2.2.1 평면설계 주요 평가 요소

1) 대지조건 및 설계조건에 대한 해석 및 설계 능력

- ① 각종 법규 제한 조건 및 공간 계획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설계 내용의 적정성
- ② 대지 관련 제시 조건에 대한 논리적 해석 및 기술적인 처리 능력
- ③ 건축물 위치 관련 요구 조건에 대한 이해 및 기술적인 처리 능력
- ④ 건축 규모 및 구조 등에 대한 설계 조건 준수 정도
- ⑤ 설비 시스템, 건축물의 형태 등에 대한 설계 반영 내용의 적정성
- ⑥ 출입, 이동, 피난, 각 부위별 레벨 등 특기 조건에 대한 설계 반영 정도
- ⑦ 연계성,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 인지성, 상징성 등과 관련된 설계 능력

2) 스페이스 프로그램 관련 공간 구성 능력

- ① 실별 요구 사항을 논리적으로 해석, 전체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능력
- ② 공간의 수(실명 및 실수), 실별 위치 및 면적의 적정성
- ③ 실별 특기 요구 조건 및 실간 연계성 관련 요구 조건 준수 정도
- ④ 출입구, 통로, 계단 등 동선 체계의 효율성
- ⑤ 장애인 등 특수 사항에 대한 배려
- ⑥ 기타 스페이스 프로그램 관련 요구 조건에 대한 설계 내용

3) 표현 능력 및 기타

- ① 도면 작성 범위 및 표현 방법의 적정성
- ② 도면 내용 및 표기 요구 사항에 대한 도면 작성 정도
- ③ 도면 작성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설계 반영 정도
- ④ 기타 건축 설계 실무 관련 문제 해결 능력

### 2.2.2 평면설계 관련 주요 제시 조건

1) 과제 개요

- ① 건축 설계 1(평면 설계) 과제의 주제

- ② 과제의 개략적인 특성(프로젝트의 성격, 용도, 주변 상황 등)

2) 대지 조건 및 건축 개요

- ① 계획 대지 주변 현황: 조망 및 경관(산, 호수, 공원 등), 바람, 소음, 교통, 건물 등
- ② 계획 대지 현황: 대지면적, 방위(향), 지형, 접도(도로) 상황, 기존 건축물 등
- ③ 규모 및 구조: 층수, 바닥면적, 구조, 층고, 천장고 등
- ④ 설비 시스템, 건축물의 형태 등

3) 설계 조건

- ① 각종 법규 제한 조건: 지역 지구제,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 ② 주변 현황 및 대지 내 현황 관련 설계 요구 내용
- ③ 대지 내 계획 건축물 위치 및 조경 관련 요구 조건
- ④ 공간 계획 및 각 실 배치 시 유의 사항
- ⑤ 각 부위별 레벨(바닥 레벨 등) 관련 특기 조건
- ⑥ 출입, 이동, 피난 관련 특기 조건
- ⑦ 기타 연계성,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 인지성, 상징성 등과 관련된 설계 조건

4) 스페이스 프로그램 요구 조건(실별 소요 면적 및 실별 요구 사항)

- ① 실별 위치 및 소요 면적
- ② 실 간 근접성 등 실별 연계성
- ③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등에 대한 요구 조건
- ④ 각 실에 특별히 필요한 가구, 설비, 부속 등에 대한 요구 사항
- ⑤ 실별 전망, 자연 채광, 자연 환기 등에 대한 요구 조건
- ⑥ 연면적 허용 오차 등 기타 스페이스 프로그램 요구 조건

5) 도면 작성 요령 및 기타 요구 조건

- ① 도면 작성 범위 및 표현 방법
- ② 요구 도면 내용 및 필수 표기 사항
- ③ 기타 도면 작성 시 유의 사항

### 2.2.3 평면설계 출제 유형

[출제 유형 1] 주어진 실별 면적과 요구 조건을 평면으로 구성

계획 대지 주변의 건물 또는 옥외 공간과 같이 계획 건물에 근접한 도시적 맥락에서 상호 관련을 맺으며 주어진 실별 면적과 요구

조건을 평면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예 1) 신축 동사무소가 맞은편 시민회관 입구의 소공원과 시각적 연계 관계를 갖도록 독자적인 외부 공간을 가진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주어진 실을 설계한다.

예 2) 인접한 대지의 소규모 공공 건물의 기능과 계획하고자 하는 건물의 기능을 함께 제시하고, 이 두 건물이 공간적·기능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실을 구성한다.

[출제 유형 2] 기존 건축 공간을 이용, 증개축에 의한 새로운 평면 구성

기존 건물의 일부를 이용하여 증개축을 하거나, 보존 건물 등 기존 공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평면으로 구성해 내는 능력을 측정한다.

예 1) 공장 기숙사로 사용되었던 박공지붕의 2층 건물에서 2층 바닥 일부를 철거하여 1층과 공간적으로 연결되는 사무소를 설계한다.

예 2) 보존할 가치가 있는 오래된 역사 건물 전체를 새로운 건물 안에 공간적으로 표현하면서 역무 기능과 상업 기능을 겸하는 새로운 역사 건물을 계획한다.

[출제 유형 3] 계획 대지 주변 현황 및 건축 주요 사항을 고려한 평면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축주의 요구 사항을 대지 주변의 물리적 조건 등과 함께 해석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과 동선, 옥외 공간의 특징을 고려한 평면 계획 능력을 측정한다.

예 1) 건축주가 강조하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읽고 주어진 내·외부 공간의 면적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예 2) 경관(산, 호수, 공원 등), 바람, 소음, 교통, 건물 등 대지의 주변 조건을 요약한 보고서 해석하여 이를 평면 계획에 적용한다.

[출제 유형 4] 특정 조건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 작성 및 평면 계획

실제 상황 등 특정 조건을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의로 설계하게 하여 창의적으로 계획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부분이 외의가 급적 요구 조건을 단순하게 제시한다.

예 1) 대형 회화 시리즈를 전시하는 소규모 미술관에서 전시물 높이 등 특정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공간을 설계한다.

예 2) 실제 상황으로 보여주는 사진 등의



자료를근거로평면을계획한다.

## 제3장 '건축설계2' 문제출제기준

### 3.1 출제범위

‘건축설계 2’의 출제범위는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등 5개 분야이며, 이를 선택 또는 복합하여 3개의과제로출제한다. ‘건축설계2’의각과제에서는 건축물의다양한 구성요소를 종합하고 분해하는 능력과, 그 결과를 도면으로 표현하는능력을측정한다.

### 3.2 단면설계

#### 3.2.1' 단면설계 과제개요

제시 조건에 의거 단면도를 작성하게 하여 건축물 수직방향의 구성요소(기초·바닥·기둥·벽·천장·계단·각종 샤프트 등의 구조, 마감 및 각종설비 등)에 대한 지식과도면상표현능력을측정한다.

#### 3.2.2' 단면설계 '관련주요제시조건

- ①주변 상황, 각 공간의 기능, 천장고, 층고 등
- ②건축물의 평면, 입면, 구조, 마감 및 건축설비 등

#### 3.2.3' 단면설계 출제유형

[출제유형 1] 제시조건을 고려한 천장고 및층고산정및단면설계

주변 상황과 평면의 기능을 고려하고 천장높이및층고를조절하며2층이상인건물의단면을결정하는능력을측정한다.

예) 기존 도서관과 주민편의시설의 평면과 입면을 제시하고, 이 두 건물을 연계하도록 구조, 설비, 전시 조건 등을 만족하는 건축미술관의단면을설계한다.

[출제유형 2] 제시조건에 따른 기존 건물의단면재구성

요구되는기능에대응하도록기존건물의

단면 형태나 층고를 바꾸거나 기존 단면을 부분적으로재구성하는능력을측정한다.

예) 물류창고로 쓰이던 건물 골조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소요 천장높이를갖는방으로구성된일정규모의주민편의시설의단면을계획한다.

[출제유형 3] 실시설계를 위한 단면상세도작성

실시설계를 위한 단면도의 이해 능력과 상세도면작성능력을측정한다.

예) 각층 부분 평면도와 실내재료마감표 및부분상세도를이용하여요구하는부분의단면상세도를작성한다.

### 3.3 구조계획

#### 3.3.1' 구조계획 과제개요

건축구조 관련 제시조건에 의거 구조개념도또는구조계획도면을작성하게하여, 철골조·콘크리트조·목조 등 각종 구조재료별 구조형식에대한이해력을평가하고, 설계단계에서 구조기술사와 함께 구조설계를 진행하는데필요한지식습득수준을측정한다.

#### 3.3.2' 구조계획 주요평가요소

- ①건축계획에 맞는 구조 프레임 및 구조모듈을선정하는능력
- ②슬래브 구조방식을 선정과 보의 위치를결정하는능력
- ③기둥의 주심을 계획하는 능력과 내력벽의위치를결정하는능력
- ④기존의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하는 경우, 활용또는철거가능한구조물을선정하는능력

#### 3.3.3' 구조계획 출제유형

[출제유형 1] 구조 프레임, 구조 모듈, 슬래브구조방식등의결정

계획설계 이후 구조 모듈을 선정하는 능력, 건축계획에 맞는 구조 프레임을 제안하는 능력, 슬래브구조방식에 따른 골 방향의설정과 보의 위치 결정, 기둥이 아닌 내력벽의위치를결정할수있는가를측정한다.

예) 계획설계 중인 수영장의 평면도를 참조하면서 구조재료, 공간구획, 계획천장높이, 기초 및 지질 등의 조건에 맞는 안정한

구조시스템을계획한다.

[출제유형 2] 기존의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하기위한구조계획

기존의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하는 경우, 기존 구조를 활용하거나, 변형·추가하며, 변경하기 전·후의구조계획의차이점을 적정하게활용하고철거가능한구조물을선정하는능력을측정한다.

예) 농촌지역의소규모공장건물을이용하여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개조하는경우, 변경전의구조를이용하고 새로운 구조재료, 공간 구획, 천장높이 등을고려하여적정한구조계획을세운다.

[출제유형 3] 평면도와 구조계산상 기둥치수를근거로한기둥의주심계획

기본설계 단계에서 평면도와 구조계산상의 기둥 치수를 근거로 하여 기둥의 주심을계획하는능력을측정한다.

예) 계획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한 가정단면과 주어진 창호의 규격에 맞는 기둥의 주심도를작성한다.

### 3.4 설비계획

#### 3.4.1' 설비계획 과제개요

각종건축설비가표현된 천장평면도등을 작성하게 하여, 기계설비·전기설비·통신설비 등이 천장 내·외부 및 수직 설비공간에서통합되는방식에대한이해력을측정하고, 설계단계에서 설비기술사와 함께 건축설비 관련 설계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습득수준을측정한다.

#### 3.4.2' 설비계획 출제유형

[출제유형 1] 소규모 건물의 천장모듈 설정및건축설비배치

소규모 건물의 평면에서 천장재 규격에 따른 천장 모듈의설정, 천장에 설치되는 설비기구적정배치, 설비기구및구조체와 겹치지 않는 덕트 라인 등을 만족하도록 천장을설계할수있는능력을측정한다.

예) 내과전문의원을 위한 평면을 제시하고, 천장높이와 천장 시스템, 전등 계획, 각실의 급기와 배기 조건에 맞는 공조덕트 계획과전등설비계획을도면으로작성한다.

[출제유형 2] 고층 개방형 사무실 평면의

### 천장모듈설정및건축설비배치

대규모건물에서반복적으로 나타나는설비모듈을계획하는능력을측정한다.

예) 오픈 플랜으로 사용하는 사무실과 칸막이로구획된사무실로사용하고자하는임대사무실 평면에 적합하고, 천장재, 천장높이, 조명형식, 급기·배기 조건, 스프링클러설치 간격 등을 만족하는 전등계획, 공조덕트계획을도면으로작성한다.

[출제유형3] 기계및전기설비조건을반영한천장설계(기본설계단계)

기본설계 단계에서 전기 및 기계설비 도면을상호검토하는능력을측정한다.

예) 천장높이와 조명방식을 변경하고자하는낙후된연수원의엘리베이터홀에대해도중에 전달받은 기계 및 전기설비 조건을 반영하며천장을설계한다.

## 3.5 지붕설계

### 3.5.1' 지붕설계 과제개요

‘지붕설계’ 과제는 제시조건에 의거 지붕 및 옥탑층 관련 도면을 작성하는 과제로서, 이를 통해지붕 및 옥탑층설계 능력을 평가한다.

### 3.5.2' 지붕설계 주요평가요소

- ①우·배수처리및지붕(옥상) 방수계획능력
- ②각종기계장비등옥탑(지붕) 설치시설의배치능력
- ③지붕 하부 평면구성과 구조형태 등과 관계하여재료를사용하는능력
- ④지붕의 형태와 형식, 지붕의 경사 등을 정확히이해하고표현하는능력

### 3.5.3' 지붕설계 주요제시조건

- ①기준층등의평면등
- ②지붕의 물매, 벽면 채광창, 천창, 지붕 배수구등
- ③계단실, 엘리베이터기계실, 공조실, 냉각탑등옥탑(지붕) 설치시설
- ④지붕의형태와형식
- ⑤주변현황및기타

### 3.5.4' 지붕설계 출제유형

[출제유형1] 제시조건을고려한단독주택지붕의평면도및단면도작성

지붕 하부 층의 평면을 제시하고 지붕의 경사도, 내부 실의 구성 관계 및 설비, 관련 법규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의 조건을 합리적으로해결하는능력을측정한다.

예) 지상 2층 단독주택 평면을 제시하고, 각실의상부를덮는지붕의물매, 벽면채광창, 천창, 지붕 배수, 기기설비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붕의평면을계획한다.

[출제유형 2] 제시조건을 고려한 고층 건물의옥탑층평면계획

각종 기기와 배수를 위한 물매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최상층 평면에도 적합하도록고층건물의옥탑층을계획하는능력을측정한다.

예) 기준층 평면과 함께 공조실, 냉각탑, 계단실, 엘리베이터기계실, 곤도라레일, 바닥의 물매 등 옥탑층을 구성하는 요소와 지붕 배수를 위한 각종 조건을 만족하는 옥탑층평면을계획한다.

[출제유형 3] 제시조건을 고려한 지붕평면도와입면도(정면도등) 작성

평면과지붕의관계를채광, 환기, 기타설비와관련하여단면또는입면으로구성하는능력을측정한다.

예) 각종 평면을제시하고, 옥탑을 구성하는 요소, 입면 계획의 조건, 지붕 배수와 기기설비의 조건을만족하는 지붕평면도와 정면도를작성한다.

## 3.6 계단설계

### 3.6.1' 계단설계 과제개요

‘계단설계’ 과제는 제시조건에 의거 각층의 레벨을 조절하고 서로 다른 기능의 공간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계단 및 경사로 등의 도면과 계단 주변의 서비스 코어 공간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는 과제로서, 이를 통해 계단 및 경사로 등의 수직방향 이동 공간의 요구조건을입체적으로해결하는능력을측정하고, 수직방향 이동 공간과 서비스 코어 공간의설계능력을측정한다.

### 3.6.2' 계단설계 관련주요제시조건

- ①각층및각부위별공간의높이또는바

닥레벨

- ②수직방향 동선 관련 공간의 요구사항(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등)
- ③피난 등수직방향동선 관련 법규상 요구조건
- ④장애자용 안전지대 등 장애자 관련 요구조건
- ⑤수직방향이동시외부전망조건등
- ⑥수직방향 동선 관련 공간 및 서비스코어공간의구조, 설비및마감
- ⑦기타 요구사항(화장실, 탕비실, 창고, 각종설비용사프트등)

### 3.6.3' 계단설계 출제유형

[출제유형 1] 바닥레벨, 진출입동선, 건축마감등을고려한계단설계

오르내릴 때 외부 공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커튼월에서 떨어져서 계단을 배치하고, 서로 다른 레벨에 맞으며 장애자용 안전지대, 주어진 바닥높이, 출입구, 동선, 피난 안전지대등을고려하여공간을원활하게연결하는능력을측정한다.

예) 기존의두 건물사이를이어서 증축할 때 생긴홀에서 두 동의서로 다른 바닥높이를 조절하고, 진출입구 및 동선, 건축마감을 고려한계단을계획한다.

[출제유형 2] 고층사무소 건축의 기준층 코어공간계획및계단설계

엘리베이터와피난계단의 배치, 화장실의 배치,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용 사프트, 배연용수 직풍도 등을 홀과 복도와 함께 고려한코어계획능력을측정한다.

예) 사무소 건물의 기준층 평면에 대하여 계단의 개수, 특별피난계단, 엘리베이터, A.D와 P.S의위치, 탕비실, 창고등부속실, 장애자용 안전지대, 기둥 간격 등을 고려한코어를계획한다.

[출제유형 3] 협소한 공간에서의 장애인을고려한피난계단및경사로설계

계단과 출입문의 관계, 핸드레일 설치, 기타피난및장애인을고려한계단과경사로의 구조및시설을설계하는능력을측정한다.

예) 대지면적 및건축면적이협소한 경우, 건축물 바닥레벨(1층 바닥레벨)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현관 부위의 동선을 계획하고계단및경사로를설계한다. ■

##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회원수)

2007년1월말

| 구 분 | 개 인 사 무 소 |       |     |     |      |    |   |   |     |   | 법 인 사 무 소 |       |       |     |     |     |     |     |      |    | 용 역 |     | 합 계 | 비율(%) |     |   |     |       |       |       |   |       |       |        |        |       |
|-----|-----------|-------|-----|-----|------|----|---|---|-----|---|-----------|-------|-------|-----|-----|-----|-----|-----|------|----|-----|-----|-----|-------|-----|---|-----|-------|-------|-------|---|-------|-------|--------|--------|-------|
|     | 1인        |       | 2인  |     | 3인이상 |    |   |   | 소 계 |   | 1인        |       | 2인    |     | 3인  |     | 4인  |     | 5인이상 |    |     |     |     |       | 소 계 |   | 사무소 |       |       |       |   |       |       |        |        |       |
|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       |   |       |       |        |        |       |
| 건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5,115     | 5,115 | 141 | 282 | 22   | 69 |   |   |     |   | 5,278     | 5,466 | 1,518 | 268 | 536 | 67  | 201 | 36  | 144  | 30 | 207 |     |     |       |     |   |     | 1,919 | 2,606 | 7     | 7 | 7,204 | 8,079 | 100.0% | 100.0% |       |
| 서울  | 1,107     | 1,107 | 38  | 76  | 10   | 31 |   |   |     |   | 1,155     | 1,214 | 860   | 860 | 173 | 346 | 39  | 117 | 20   | 80 | 17  | 121 |     |       |     |   |     |       | 1,109 | 1,524 | 6 | 6     | 2,270 | 2,744  | 33.2%  | 35.4% |
| 부산  | 482       | 482   | 19  | 38  | 4    | 13 |   |   |     |   | 505       | 533   | 85    | 85  | 14  | 28  | 6   | 18  | 3    | 12 | 4   | 24  |     |       |     |   |     |       | 112   | 167   |   |       | 617   | 700    | 8.9%   | 9.1%  |
| 대구  | 427       | 427   | 21  | 42  | 7    | 22 |   |   |     |   | 455       | 491   | 59    | 59  | 18  | 36  | 7   | 21  | 1    | 4  | 2   | 10  |     |       |     |   |     |       | 87    | 130   |   |       | 542   | 621    | 7.3%   | 7.5%  |
| 인천  | 235       | 235   | 2   | 4   | 0    | 0  |   |   |     |   | 237       | 239   | 49    | 49  | 6   | 12  | 0   | 0   | 0    | 0  | 0   | 0   |     |       |     |   |     |       | 55    | 61    |   |       | 292   | 300    | 3.9%   | 3.5%  |
| 광주  | 211       | 211   | 2   | 4   | 0    | 0  |   |   |     |   | 213       | 215   | 32    | 32  | 7   | 14  | 1   | 3   | 2    | 8  | 3   | 17  |     |       |     |   |     |       | 45    | 74    |   |       | 258   | 289    | 3.5%   | 3.6%  |
| 대전  | 201       | 201   | 14  | 28  | 0    | 0  |   |   |     |   | 215       | 229   | 28    | 28  | 8   | 16  | 4   | 12  | 1    | 4  | 1   | 14  |     |       |     |   |     |       | 42    | 74    |   |       | 257   | 303    | 3.6%   | 3.7%  |
| 울산  | 165       | 165   | 6   | 12  | 1    | 3  |   |   |     |   | 172       | 180   | 15    | 15  | 4   | 8   | 1   | 3   | 0    | 0  | 0   | 0   |     |       |     |   |     |       | 20    | 26    |   |       | 192   | 206    | 2.6%   | 2.5%  |
| 경기  | 685       | 685   | 7   | 14  | 0    | 0  |   |   |     |   | 692       | 699   | 215   | 215 | 20  | 40  | 3   | 9   | 2    | 8  | 1   | 5   |     |       |     |   |     |       | 241   | 77    |   |       | 933   | 976    | 12.7%  | 12.1% |
| 강원  | 162       | 162   | 3   | 6   | 0    | 0  |   |   |     |   | 165       | 168   | 22    | 22  | 3   | 6   | 0   | 0   | 0    | 0  | 1   | 5   |     |       |     |   |     |       | 26    | 33    |   |       | 191   | 201    | 2.5%   | 2.4%  |
| 충북  | 176       | 176   | 7   | 14  | 0    | 0  |   |   |     |   | 183       | 190   | 26    | 26  | 2   | 4   | 1   | 3   | 2    | 8  | 1   | 11  |     |       |     |   |     |       | 32    | 52    |   |       | 215   | 242    | 2.9%   | 2.9%  |
| 충남  | 166       | 166   | 3   | 6   | 0    | 0  |   |   |     |   | 169       | 172   | 36    | 36  | 2   | 4   | 1   | 3   | 4    | 16 | 0   | 0   |     |       |     |   |     |       | 43    | 59    |   |       | 212   | 231    | 2.7%   | 2.6%  |
| 전북  | 193       | 193   | 3   | 6   | 0    | 0  |   |   |     |   | 196       | 199   | 22    | 22  | 2   | 4   | 2   | 6   | 1    | 4  | 0   | 0   |     |       |     |   |     |       | 27    | 36    |   |       | 223   | 235    | 2.8%   | 2.6%  |
| 전남  | 138       | 138   | 0   | 0   | 0    | 0  |   |   |     |   | 138       | 138   | 10    | 10  | 1   | 2   | 0   | 0   | 0    | 0  | 0   | 0   |     |       |     |   |     |       | 11    | 12    |   |       | 149   | 150    | 1.9%   | 1.7%  |
| 경북  | 314       | 314   | 7   | 14  | 0    | 0  |   |   |     |   | 321       | 328   | 28    | 28  | 3   | 6   | 1   | 3   | 0    | 0  | 0   | 0   |     |       |     |   |     |       | 32    | 37    | 1 | 1     | 354   | 365    | 4.6%   | 4.2%  |
| 경남  | 353       | 353   | 9   | 18  | 0    | 0  |   |   |     |   | 362       | 371   | 23    | 23  | 5   | 10  | 1   | 3   | 0    | 0  | 0   | 0   |     |       |     |   |     |       | 29    | 36    |   |       | 391   | 407    | 5.2%   | 4.9%  |
| 제주  | 100       | 100   | 0   | 0   | 0    | 0  |   |   |     |   | 100       | 100   | 8     | 8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 8     | 8     |   |       | 108   | 108    | 1.5%   | 1.4%  |

##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 구 분 | 회 원   |    |       |        | 준회원 |
|-----|-------|----|-------|--------|-----|
|     | 건축사   | 2급 | 계     | 비 율    |     |
| 합 계 | 8,079 | 10 | 8,089 | 100.0% | 23  |
| 서울  | 2,744 | 3  | 2,747 | 35.4%  | 10  |
| 부산  | 700   | 1  | 701   | 9.1%   | 9   |
| 대구  | 621   | 0  | 621   | 7.5%   | 0   |
| 인천  | 300   | 0  | 300   | 3.5%   | 0   |
| 광주  | 289   | 0  | 289   | 3.6%   | 0   |
| 대전  | 303   | 1  | 304   | 3.7%   | 0   |
| 울산  | 206   | 0  | 206   | 2.5%   | 0   |
| 경기  | 976   | 2  | 978   | 12.1%  | 2   |
| 강원  | 201   | 0  | 201   | 2.4%   | 0   |
| 충북  | 242   | 0  | 242   | 2.9%   | 0   |
| 충남  | 231   | 3  | 234   | 2.6%   | 0   |
| 전북  | 235   | 0  | 235   | 2.6%   | 0   |
| 전남  | 150   | 0  | 150   | 1.7%   | 0   |
| 경북  | 365   | 0  | 365   | 4.2%   | 1   |
| 경남  | 407   | 0  | 407   | 4.9%   | 1   |
| 제주  | 108   | 0  | 108   | 1.4%   | 0   |

##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 구 분   | 개인사무소  | 법인사무소  | 전입미처리 | 합 계    | 비 고 |
|-------|--------|--------|-------|--------|-----|
| 회 원 수 | 5,466  | 2,606  | 84    | 8,156  |     |
| 비 율   | 67.02% | 31.95% | 1.03% | 100.0% |     |
| 사무소수  | 5,278  | 1,919  | -     | 7,197  |     |
| 비 율   | 73.34% | 26.66% | -     | 100.0% |     |

## DOMUS



Domus 11월호(No. 899)는 우주시대의 건축이나 말라리아방지와 같은 굵직굵직한 주제들로 지면을 채우고 있다. 여기서 가장 무게가 실려 있는 분야는 멕시코시티에 관한 것이다. 루이스 바라간이 1960년대 제시했던 다채롭고 복합적인 대도시로서의 멕시코시티의 '미래 와실제멕시코시티의' 현재 '를 대비함으로써 디자인과 실제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기사는 대규모의 계획이 '계획없이' 진행되는 한국의 상황과 기묘하게 겹치고 있다. 이에 조응하여 멕시코의 건축사 Fernando Romero의 근작과 Tatiana Bilbao(MXA)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으며, 별도로 교각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는 5개의 프로젝트를 게재하고 있다. 또한 『속도와 정치』, 『지각의 병리학』 등으로 독창적 연구를 진행한 폴 비릴리오의 에세이 또한 농치기 가까운 기사이다.

## ■ Space Tourism Space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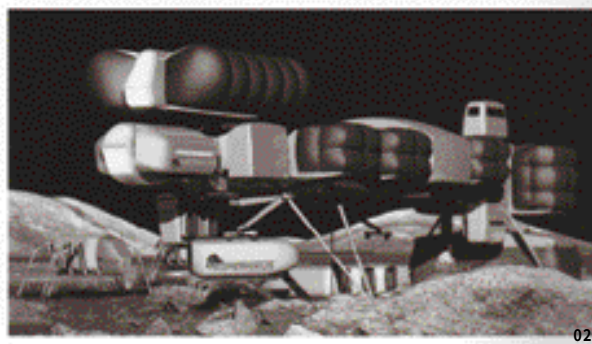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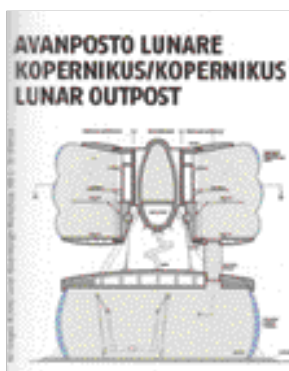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이 우주여행을하거나 장기간체류를 할 수 있는 우주세기의 도래는 여전히 실감이 안 가는 말이다. 하지만 이를 건축적으로 준비하는 연구와 프로젝트, 그리고 조망들을 소개하고 있다. 다른 중력과 다른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공간의 물성과 구성은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를 우주 비행사(그들은 동시에 연구자이기도 하다)들과의 인터뷰와 개념의 규정과 예측을 통해 다루고, 이들을 위한 공간 디자인의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 ■ Barragan's Ciudad del Mexico

바라간 재단이 보존해오고 있던 공개되지 않았던 바라간의 도판 컬렉션이 공개되었다. 그것은 루이스 바라간이 멕시코 시티의 미래를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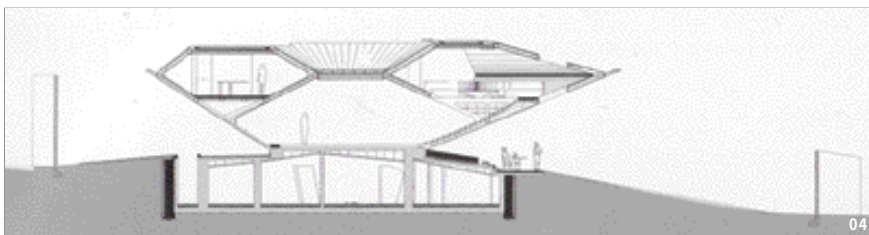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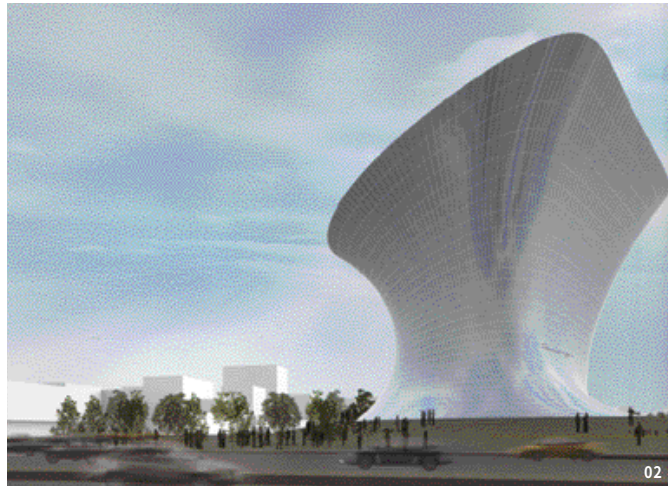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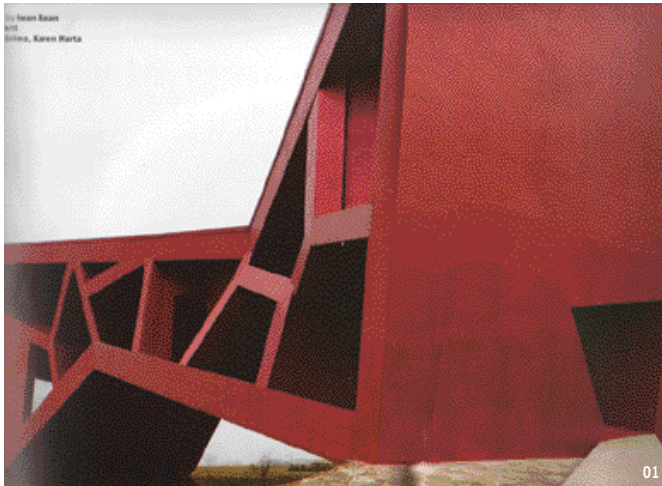
01



02

01\_ Mexicocity(top) & Barragan- Ciudad del Mexico(bottom) 02\_ lunar outpost





01\_ Fernando Romero-Bridging Teahouse  
02\_ Fernando Romero-Museo Soumaya  
03\_ Fernando Romero-Villa S

망하면서 60년대 초에 작성된 것이었다. 그림들은스페인에의해매워진호수의복개와 올림픽 스타디움, 위성도시의 개념, 수평적 확장과 조닝에 따른 구역의 특성화 등에 대한 바라간의 시선을 보여준다. 그 자신의 언급처럼 “중심부의 활기와 속도, 새것의 냄새,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멕시코시티에서 발견하고이를긍정적인방향으로확대하기를바랐다. 하지만도판안에있는공업지역의굴뚝에서뿜어내던연기는바라간의열려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문제라는 것이 생소했던 그 시기에도 10년 사이에 가시거리가 10km에서 4km로 줄고(현재는 2km), 눈과 목을 따끔거리게 했던 공장의 연기는 걱정스러운 것이었다. 이 도판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부분이다. 당대의 일반적 유토피아적비전과는달리바라간은희망과공포를 모두 보이고있으며, 후일 실제의 멕시코 시티의 정체성과문제점들을형성하고 있는 단초들이 도판에서암시적으로드러나고 있기때문이다.

#### ■ 작품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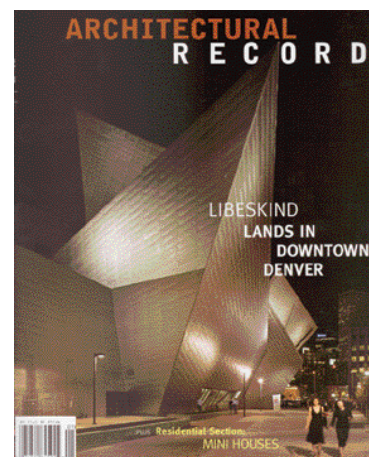
**Fernando Romero(LAR)- Briding Teahouse(Jinhua, china) / Museo Soumaya(Mexico city, Mexico) /**

#### Villa S (Mexico city, Mexico)

페르난도 로메로와 그가 이끄는 설계팀 LAR에게 혁신은 전통적 형태와 기술의 독창적 변안과 다르지 않다. Villa S는 멕시코 시티외곽의차폴테펙공원의모퉁이에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건축사는 나뭇가지와 유사한 형태를 단면을 가진 유기적 강구조를 적용하여 지하가 구조적으로 ‘뿌리’의 역할을 하고상부의급격한캔틸레버공간을 ‘가지’로서 이해하여 일반적 주거와는 사뭇 다른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자연적 맥락에서 연유한시스템적구조프레임은중국의진후아 성의 건축공원(Ai Weiwei와 Herzog & De Meuron이 시와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다)의 파빌리온-bridging teahouse-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페르난도 로메로는다리वाद실을하나의콘크리트 구조체안에서결합시켜중국적전통을환기하고 있다. Museo Soumaya는 식민지 시대에서로댕에이르는막대한소장품을가진 박물관측이새로운시설을요구함에따라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에도 역시 상부로 갈수록확장되는내부공간을가지는구성을통해 버섯과같은형태의반짝이는건축물을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반투명 유리를 통해

그가이전에서도했던시스템적강구조를환경적문제와연계하여해결하려는고민을보인다.

## ARCHITETURAL RECORD



Architectural Record 2007년 1월호에서는추미나리베스킨트와같이잠시지면상에서 뜨윳했던작가들의 최근작이 눈에 띈다. 빌딩 유형 연구에서는 기계적 효율성과기능주의에서벗어나 친환경 요소



를 도입하고 있는 최근의 사무소 건축의 양상을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번호에서는 주거 특집으로 휴먼스케일의 가치를 재고하고있는 소규모의주택건축을다루면서작은공간에서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건축사에관련된유쾌한경구들을소개하고 있는 비평 <A Treasure of Words>도 무거운 건축적 담론 사이에서 톡 쏘는 청량감을주고있다.

## ■ 신간서적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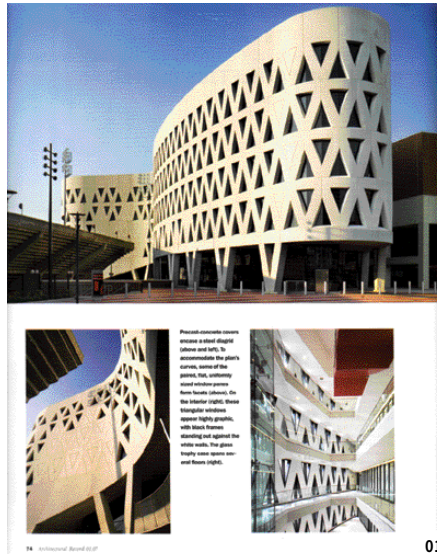
이번호는 아시아의 도시와 건축에 최근 경향을다루는서적들이소개되고있다.

- New Architecture in China , by Bernard Chan. New York : Merrell Publishers, 2005
- Building Revolution : Chinese Architecture since 1980, by Charlie Q.L. Xue, Hong Kong :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2006
- East Asia Modern : Shaping the Contemporary City, by Peter G. Rowe. Rexington, Kentucky : Reaktion Books, 2006
- Pacific Modern, by Raul A. Barreneche. New York : Rizzoli, 2006
- Architecture Tomorrow, by Francis Rambert. Paris : Terrail, 2005

## ■ 작품리뷰

### • Lindner Athletics Center, Cincinnati (건축사 Bernad Tschumi)

건물이 놓인 대지는 극도로 좁고 비정형적인, 건축을진행하기쉽지 않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대지가 건축사 본인의 선택에 의해결정된것이며, 이런 외견상의 난점을 추미가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심할정도로’인접한주변건물과연결통로 없이도 이용자를 끌어들이여 여러 가지 사건들을 유도하여, 비어있으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인 건축공간을 창출해 내고 있다. 눈



01\_ Bernard Tschumi - Lindner Athletics Center  
02\_ Daniel Libeskind + Davis Partnership - Denver Art Museum  
03\_ Heneghan.Peng.Architects - Aras chill Dara  
04\_ 24H architecture - Drangspelhuset(house)

에띄는곡면의벽과사선그리드는강구조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덮은 것으로 건축물의인상을강하게규정하는동시에내부에서는패턴트를연상하게하는삼각형의개구부로 인지된다. 이는 신시내티 대학의 상징색인검정과진홍을내부에적용함으로써훨씬 강력하게 유도된다. 사선으로 만들어내는 외부의긴장과역동적인내부공간은하나로 어우러져 학생들로하여금 대학의 아이덴티티를강하게느낄수있도록의도되었다.

### • Denver Art Museum, Denver, Colorado (건축사 Daniel Libeskind + Davis Partnership)

박물관 측에서 6만개가 넘는 소장품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필요로 하자 1억달러가 넘는자금이스민들과기부를통해확보되었



다. 이확장안에서 건축사는 예의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소용돌이 치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경사진 벽을 가진 현기증 나는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발레로 치면 그랑주테(대도약)에 비견될 강력한 인상을 제시하는 이 건물은 필경 내부에 전시될 미술품을 압도하는 그 자태로 인해 많은 비판을 감당해 내야 할 것이다. 아이콘으로서의 건축은 어느 정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리베스킨트 표 건축의 유효기간은 언제일까? 프랭크게리이전에도이미이런아이콘은 존재했고 여전히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부를 만들어 낸다. 아마 리베스킨트의 이런 ‘태연한격정’은그런부류의작품에포함될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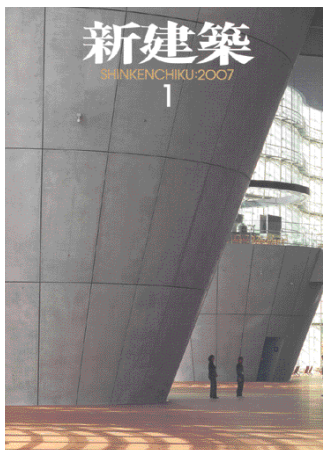
## ■ 건물 유형 연구

21세기가되면서작업장은‘ 친환경 ’이라는 대단히 모호하면서도묘하게설득력있는 주제를 향해 집중하고 있다. 그와더불어 지속가능성이라는개념이 친환경과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발전되기 시작하였으며최근에는‘ 사회적지속가능성 ’이라는개념이 등장하면서조금씩 의미가구체적으로정의되고 있다. 인공조명과 인공 환경조절에 대한 의존을줄이고 자연광과자연환기를극대화하는 것과 같은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태도가 생산성을높이는데에도기여하고있다는논리로친환경디자인의재정적설득력을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단순히 친환경적 태도가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것은 바로공존과소속감을증진시키는환경을조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중요한모티브인것이다.

아일랜드의Naas 지역의Aras Chill Dara는비스듬하고두갈래로갈라진평면과독창적 파사드를 가지고 건축사 Heneghan. Peng.Architects와 Arthur Gibney & Partners는 아이콘적인 관공서를 창조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California Endowment 건물에서 건축사 Rios Clementi Hale은 주변 다운타운의 역사적 요소를 활용하고,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랜드스케이프와결합하여 정원과 중정에중점을 둔 다채로운 캠퍼스 건물을 건축했다. NBBJ는시애틀에서223 Yale at Alley 24 프로젝트에서 좀 더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 대규모의복합용도 프로젝트를 분할하고있다. 이를 통해 내부는좀도효율적으로 구성되고 연계되었다. 스튜디오 아키텍처는 캘리포니아 리치몬드에서 CDHS Office를 통해출구계단과브리즈솔레일과같은기능적 장치들을사용하여 제한된주정부의예산을 극복하는건축을보여주고있다.

(글/김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선문대학교, 부천대학출강)

## 新建築



이번 호(2007년 1월호)에서는 일본 미술관의기념비적프로젝트인‘ 국립신미술관 와이토모토요가설계해개장이후싱가폴의 명소가 된 쇼핑몰 'Vivo City'등이 소개되었다. 국립신미술관은 컬렉션의 수집없이기획전과공모전만을위한미술관이라는 도전적인 개념을가지면서도 엄청난 전시면적을 가진 독특한 사례이며, Vivo City는 옥상과 벽면을 감싸고 있는 HP셀구조의 자유로운 곡면이 인상적인 쇼핑몰이다.

### ■ 일본 국립신미술관(國立新美術館) - 쿠로카와 키쇼(黒川紀章) 설계

국립신미술관의 도전 - 국립신미술관의 부지에는 동경대학 생산기술연구소가 필요 한용적률의대부분을채우며자리잡고있었다. 초기단계에서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동경대학 생산기술연구소, 다시 말해 구·육군보병제3연대병사를 전면적으로 보존하면서 미술관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미술관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맞지 않을 뿐더러구조상 내진성을만족시키지못하고있다는것이판명되어신축하는방향으로 정해졌다. 다만 부지는 현재의 인근에 세워진 정책연구대학원대학(아마시타설계와 리차드로저스공동설계)을포함하면서여유가



생겼다. 그러나 그 후 부지는 2개로 분할되었고, 그 북측부분에 국립신미술관이 세워지게 되어 2000년에 오픈프로포절이 개최되었다.

국립신미술관의 프로포절안이 결정된 이후 10명이 넘는 아티스트와 공동단체, 반출입업자, 화랑관계자, 학식경험자, 미술평론가, 문화청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용자측에서 바라본 설계요건들이 정해졌다. 설계안은 이 위원회에서 토의와 설계자와의 질의응답등이 이루어지는 수년에 걸친 워크샵속에서 결정되어갔다. 모든 위원회에 설계자가 출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응답하면서 적극적으로 안을 제안하여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설계는 진행되었다.

이후 국회의원의 유지와 일본근대건축의 전문가인 동경대 스즈키 히로유키 교수와 후지모리 테루노부 교수의 강한 요청에 의해 구·육군보병제3연대병사의 사령부 모서리 부분의 외벽을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사실 보존하기로 한 부분은 이미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국립신미술관측에서는 손을 쓰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과의 협의를 거쳐 부지를 등가교환의 방식으로 국립신미술관측에 해당부지를 편입시키기로 정해지면서 국립신미술관과의 ‘공생’을 목표로 하게 된 것이다. 기존 건물의 외벽은 하프미러 커튼월을 사용하여 곡면으로 처리해 정면현관과 인접하는 장소라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새로

운 현대건축의 공생에 일치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국립신미술관은 여러가지의 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계획이다. 국립신미술관은 수집품을 모으지 않는다. 오로지 기획전과 공모전을 위한 미술관인 것이다. 세계의 명화가 디지털데이터화되고 있는 시대, 실물 이상으로 정확하게 가상으로 재현된 회화나 조각을 인터넷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시대에 걸맞게 국립신미술관은 IT 미술관으로서 첨단성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세계의 각 미술관이 보유한 실물을 기획전의 형태로 세계 최대급인 14,000㎡의 전시 스페이스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도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 Vivo City - 이토오 도요오(伊東豊雄) 설계

Vivo City는 싱가포르섬의 최남단, 약 8.9ha의 부지에 건설된 싱가포르 최대의 복합 시설이며, 부지와 해안을 마주하고 있는 센토사섬 리조트와 함께 지역 재개발의 중심 시설로서 국내외로부터 많은 방문객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다.

프로젝트는 과거의 계획안을 백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미 과거 계획안에 따라 말뚝 기둥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과거 계획시 사용되었던 8.4m의 구조 그리드를 사용하면서 단기간에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설계자가 착안한

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새로운 심벌로서의 표층(외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20세기적인 아이콘으로서의 심벌이 아니라 상품이나 공간의 사이를 움직이는 ‘Sufing’이라는 체험의 이미지에 착안한 유기적인 심벌로서 ‘경관사선제한’ 때문에 저층으로 계획이 한정된 상황에서 연속된 HP 셀 곡면의 옥상과 벽면을 통해 건물에 특징적인 인상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 연속된 곡면의 외피는 건물의 표층일 뿐 아니라 콘크리트의 구조체로서, 균질적인 커튼월을 사용한 건물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강력한 물질감을 통해 방문자의 감정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이 때문인지 쇼핑몰 오픈 후 2개월간 700만명이라는 기록적인 집객에 성공하고 있다.

또 다른 착안점은 내부 공간에서 연속적이고 단계적(sequential) 체험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부공간이 균질해지기 쉬운 상업시설에서 부분부분 다양한 경관을 만들어 내고자 한 것이다. 이는 외피를 형성한 곡면이 건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체로 연속되어 사용됨으로서 달성되도록 하였다. 이로서 건물 내부에도 다양하고 활기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고 이 같은 공간들은 식당이나 운동, 휴식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

<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